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최 배 영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초의(艸衣) 차문화 콘텐츠에 관한 연구

2020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

김 진 희

# 초의(艸衣) 차문화 콘텐츠에 관한 연구

최 배 영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

김 진 희

# 인 준 서

김진희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11월

심사위원장 ..... (인)

심 사 위 원 ..... (인)

심 사 위 원 ..... (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초의가 발현한 사절(四絶)의 분야 가운데 다(茶)에 초점을 두고 초의에 관한 차문화 콘텐츠를 공간 콘텐츠, 축제 콘텐츠, 브랜드 콘텐츠로 나누어 각각의 사례를 조사하여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초의 차문화 콘텐츠에 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공간 콘텐츠에 대한 사례조사 대상은 초의의 생애 및 교유관계와 연관된 사건이 담긴 차문화 공간의 콘텐츠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초의의 출생지인 초의선사유적지(2019.5.11. 조사), 출가지(出家地)인 운흥사(2019.10.19. 조사), 개오(開悟)가 일어난 월출산(2019.10.18. 조사), 초의가 평생을 주석(駐錫)했던 대흥사(2017.05.04.~05.07., 2017.10.21., 2018.9.23., 2019.10.19. 조사), 유학과 시문을 가르쳐 준 스승인 다산이 유배 와서 10여 년 간 거주하며 초의를 가르쳤던 다산초당(2018.9.24. 조사), 초의가 『다신전』을 필사했던 칠불사(2018.9.24. 조사), 초의가 다산 정약옹과 다산가의 두 아들과 함께 만난 수종사(2019.3.24. 조사), 초의차가 있게 한 추사 김정희와 처음 만난 학림사(2019.3.24. 조사), 제주도로 유배 간 추사와 함께 보냈던 추사적거지(2019.07.16.~17. 조사)이다. 이와 더불어 대흥사 사찰을 나와 녹차 제다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인 녹차밭과 녹차체험장(2017.05.04.~05.07., 2018.05.05., 2019.05.03.~05.17. 조사)도 조사에 포함하였다. 축제 콘텐츠에 대한 사례조사 대상은 초의와 관련된 차문화 행사 유형으로 구성되는 축제로 초의문화제(2017.10.20.~10.21., 2018.10.19.~10.20., 2019.10.18.~10.19. 조사)와 초의선사탄생문화제(2019.5.11. 조사)를 선정하고 이들 축제의 콘텐츠를 주제, 의례·시연, 강연, 체험, 전시·판매, 공연, 경연 등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브랜드 콘텐츠에 대한 사례조사 대상으로는 초의가 정립한 제다 방법에 근거해 제작되는 차 브랜드 콘텐츠로 고월 석용운이 만든 ‘초의차’와 무공

박동춘이 만든 ‘동춘차’를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각각의 사례를 본 연구자가 현장답사로 조사하여 그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초의 차문화 콘텐츠의 발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공간 콘텐츠로서 대홍사 녹차밭과 제다장소인 녹차체험장을 해남군에서 장기적으로 육성하여 초의가 정립한 우리 고유의 차를 보다 많은 일반 대중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축제 콘텐츠에 있어 일지암과 해남읍내를 연결한 초의문화제의 이행 그리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논문학술대회 다시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전국차도구공모전 작가들의 작품 전시 활동이 계속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광활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초의선사탄생문화제의 경우 짜임새 있는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 구성으로 초의차 장인의 제다 시연과 제다 교육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우리 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초의와 관련된 브랜드 콘텐츠의 홍보로도 이어지는 길이 될 것이다. 셋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콘텐츠들을 상호 연결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초의와 연관되는 공간 콘텐츠들이 상호 연계되는 스토리텔링 구상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초의의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여 차문화기획인 티 로드(Tea road)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차의 다성인 초의에 관한 차문화 콘텐츠에 중심을 두었다. 초의는 민멸한 차의 기나긴 연결고리를 만들었으며 우리 차의 원형을 전수·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게 하였다. 초의가 『동다송』을 저술한 공간, 초의의 차생활이 반영되는 축제, 초의가 정립한 제다법(製茶法)으로 만든 브랜드를 차문화 콘텐츠로 조명하여 우리는 한층 더 우리 차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 차문화의 원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를 토대로 다양한 콘텐츠 간 상호융합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노력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	3
II. 초의(艸衣)의 생애, 교유관계 및 저술 .....	10
1. 생애 .....	10
2. 교유관계 .....	19
3. 저술 .....	29
III. 차문화와 콘텐츠 .....	42
1. 차문화 .....	42
2. 차문화 콘텐츠 .....	44
3. 선행연구 .....	48
IV. 초의(艸衣) 차문화 콘텐츠 사례 분석 .....	51
1. 공간 콘텐츠 .....	51
2. 축제 콘텐츠 .....	87
3. 브랜드 콘텐츠 .....	97

V. 결론 및 제언 ..... 108

참고문헌

ABSTRACT

## 표 목 차

<표 I -1> 고찰 대상 문헌 .....	3
<표 I -2> 공간 콘텐츠에 관한 사례조사 대상 .....	6
<표 I -3> 축제 콘텐츠에 관한 사례조사 대상 .....	8
<표 I -4> 브랜드 콘텐츠에 관한 사례조사 대상 .....	8
<표 III-1> 형태와 성격에 의한 축제 콘텐츠의 분류 .....	46
<표 III-2> 행사 유형에 의한 축제 콘텐츠의 분류 .....	47
<표 IV-1> 초의에 관한 벽보의 내용 .....	64
<표 IV-2> 녹차 체험장의 운영 현황 .....	73
<표 IV-3> 초의문화제의 축제 콘텐츠 분류 .....	91
<표 IV-4> ‘초의차’의 상품 분류 및 구성 .....	103
<표 IV-5> 동춘차 마시는 방법 .....	106

## 그림 목 차

<그림 IV-1> 대흥사의 초의에 관한 공간 안내도 .....	5
------------------------------------	---

## 사 진 목 차

〈사진 IV-1〉 초의선사 유적지 .....	52
〈사진 IV-2〉 초의의 출가지인 운흥사 .....	54
〈사진 IV-3〉 초의탑과 초의선사탑비 .....	58
〈사진 IV-4〉 이광사의 글씨인 「대웅보전」 .....	59
〈사진 IV-5〉 초의가 심었다는 초의매 .....	61
〈사진 IV-6〉 동다송비 .....	62
〈사진 IV-7〉 초의관이 있는 성보박물관 .....	63
〈사진 IV-8〉 초의동상 .....	67
〈사진 IV-9〉 대광명전과 동국선원 .....	68
〈사진 IV-10〉 일지암 .....	72
〈사진 IV-11〉 대흥사 녹차밭 전체 전경 .....	74
〈사진 IV-12〉 다산초당 .....	77
〈사진 IV-13〉 『다신전』을 등초한 칠불암(현 칠불사) .....	78
〈사진 IV-14〉 칠불암 입구에 있는 초의선사다신탑비 .....	78
〈사진 IV-15〉 수종사의 다실, 삼천헌 .....	79
〈사진 IV-16〉 초의에 관한 이야기가 수록된 수종사 사적기 .....	80
〈사진 IV-17〉 추사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학림암(현 학림사) .....	82
〈사진 IV-18〉 세한도를 본 뜬 제주도 추사관 .....	85
〈사진 IV-19〉 추사의 두 번째 적거지인 강도순의 집 .....	86
〈사진 IV-20〉 유배지에서 함께 보낸 추사와 초의 .....	86
〈사진 IV-21〉 제27회 초의문화제(2018) .....	93
〈사진 IV-22〉 초의선사 탄생문화제 .....	96

<사진 IV-23> 석용운의 ‘초의차’ .....	102
<사진 IV-24> 박동춘의 전다계와 ‘동춘차’ .....	107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조선시대는 승유억불 정책으로 차문화가 침체되어 사찰을 중심으로 명맥을 겨우 이어왔으나 조선후기에 들어 해남 대흥사의 승려인 초의선사(草衣禪師, 1786~1866, 이하 초의로 약칭)를 통해 부흥기를 맞이했다.

조선후기의 예술을 언급할 때 시(詩)·서(書)·화(畫)에 뛰어나면 삼절(三絶)이라고 하는데 초의는 시(詩)·서(書)·화(畫)·다(茶)의 사절(四絶)에 모두 능하였다. 이에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의의 시(詩)는 생애 동안 대략 180여 편의 시를 썼다고 전해지며, 당대의 내로라하는 학자들이 경탄을 금치 못했을 정도로 빼어났다. 여러 문사(文士)들과 어울려 시회(詩會)를 즐겼으며 이름난 문장가들이 앞 다투어 초의와 시로 교유하기를 원했다.

초의의 서(書)는 여러 분야를 넘나들어 제문이나 상량문, 불교에 관한 글 또는 서문이나 발문 등을 합치면 일생에 걸쳐 수많은 글을 남겼다. 추사와는 절친한 사이였지만 그의 서체는 추사의 서체를 닮지 않아 어느 서체에 속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글씨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단아하며 자연스런 멋이 풍겨 나온다.

초의의 화(畫)는 인근 사찰를 비롯하여 대흥사에 소장되어 있는 탕화의 거의 대부분이 초의의 작품인 것으로 보아 그의 화격(畫格)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의 탕화 중에 대흥사 소장인 「사십이수관세음보살」은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단청으로는 대흥사(대둔사)의 「대광명전」·「대웅보전」·「천불전」이 있으며, 그림으로는 실경산수(實景山水)를 그린 다산의

백운첩<sup>1)</sup>에 있는 「백운동도(白雲洞圖)」, 「다산초당도(茶山草堂圖)」, 「제주화북진도(濟州華北津圖)」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채색(彩色)과 백묘(白描)로 그려진 대표적 탕화로는 대흥사에 있는 「천수관음보살도」, 「준제관음보살도」 등의 작품이 있다.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이 초의에게 처음으로 그림을 배웠다는 것만으로도 초의의 화재(畫才)는 충분히 짐작된다.

한편 초의의 다(茶)는 차에 관한 다서인 『다신전』과 『동다송』으로 결실을 맺었다. 특히 『동다송』을 저술하여 한국의 다성(茶聖)이라 일컬어진다. 제다를 통해 우리차의 우수함을 입증해서 경화사족들은 초의를 ‘전다박사(煎茶博士)’로 칭하고 초의차를 칭송했다.

이와 같은 초의의 생애와 교유관계 그리고 저술 속에서 나타나는 차문화는 우리차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일례로 초의가 우리차의 우수성을 밝힌 『동다송』을 저술한 공간, 초의의 차생활이 반영되는 시·서·화에 관한 전시와 축제, 초의가 정립한 제다법(製茶法)으로 만든 브랜드로서의 차를 콘텐츠로 조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선행논문 가운데 초의에 관련된 차문화를 콘텐츠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의가 발현한 사절(四絶)의 분야 가운데 다(茶)에 초점을 두고 초의에 관한 차문화 콘텐츠를 조사해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의에 관련된 차문화 콘텐츠를 공간 콘텐츠, 축제 콘텐츠, 브랜드 콘텐츠로 나누어 각각의 사례를 조사하여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초의 차문화 콘텐츠에 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

1) 초의가 1812년 9월12일에 월출산 백운동의 이덕휘(李德輝)택을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윤동(尹洞)과 함께 방문하여 백운동에 있는 12승경에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려 시축도(詩軸圖)로 만들었다. 이 시축도의 첫 장에 「백운동도(白雲洞圖)」를 붙이고 이어 백운동 12 승경의 시를 실고, 말미에 다산의 발문과 「다산초당도(茶山草堂圖)」를 붙여 놓았다.

## 2. 연구의 방법

### 1) 문헌연구

#### (1) 고찰 문헌

본 논문에서는 연구 대상 문헌으로 다음의 (표 I -1) 과 같이 초의의 생애, 교유관계, 저술 그리고 차문화와 콘텐츠에 관련된 단행본과 논문을 선정하였다.

<표 I -1> 고찰 대상 문헌

구분	출간연도	저자 및 제목
단행본	2005	박동춘, 『맑은차 적멸을 깨우네』
	2008	손연숙, 『손연숙의 차문화 기행』
	2009	석용운 스님, 『초의선사의茶香기』
	2009	류건집, 『동다송 주해』
	2009	송해경, 『「동다송」의 새로운 연구』
	2010	박동춘, 『우리시대 동다송』
	2010	박동춘, 『초의선사의 차문화 연구』
	2011	정 민,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
	2011	민병천, 『두륜산 대홍사』
	2011	주영애 외 6인, 『세계의 차(茶)문화』
	2013	박동춘, 『박동춘의 한국차문화사』
	2014	박동춘 편역, 『추사와 초의』
	2014	원학 스님, 『향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환희라네』
	2015	박정희, 『한국 차문화의 역사』
	2016	김수인, 『초의스님과 차』
	2017	최석환, 『韓國의 茶人 I』
2018	유홍준, 『추사 김정희』	
논문	2001	현영조, 조선시대 대표적 지식인의 차문화공간 연구 : 고산, 다산, 초의를 사례로
	2004	박동춘, 초의 의순의 다도사상 연구: 『동다송』을 중심으로
	2010	박동춘, 초의선사의 차문화관 연구
	2010	맹해영, 축제주제의 의미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2012	강승수, 한국의 차생활 공간에 관한 연구 : 다산, 초의, 효당을 중심으로
2012	노재현, 두류산 대홍사 일지암 다정(茶庭)의 일고찰(一考察) : 시문과 현황 비교를 중심으로
2013	이상준, 브랜디드 콘텐츠의 속성 및 활용방안 연구 : TV 광고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4	차정현, 축제콘텐츠 성공요인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5	장혜원, 초의선사의 다법 연구
2016	정서경, 초의차의 제다법 고찰 : 고전기록과 문헌 속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2017	정계순, 草衣禪師의 茶風에 관한 研究 : 茶風 確立 및 繼承을 중심으로
2017	김민규, 다산 차문화 콘텐츠의 활용방안 고찰 : 강진군을 중심으로
2017	위의진, 브랜디드 콘텐츠가 소비자 공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7	박동춘, 초의선사의 초의차 완성과 그 영향
2017	정서경, 대둔사 찻독 초의차의 전승맥락
2018	한수진, 브랜디드 콘텐츠 인게이지먼트 구성요소가 소비자 공감,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브랜디드 콘텐츠 웹 드라마 영상을 중심으로-
2019	이영주, 이병훈, 지역문화공간 설립을 위한 문화공간 콘텐츠 연구

## (2) 고찰 방법

본 연구의 고찰 방법으로 첫째, 초의의 생애는 다사(茶事)에 얽힌 행적을 중심으로 출가 이전, 출가 이후, 사후로 구분하여 연대순으로 정리하였다.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초의의 생애에 사후를 포함시킨 이유는 초의의 사후에 만들어진 콘텐츠도 중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둘째, 초의의 교유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초의집(草衣集)』을 통해 볼 때 초의와 교유(交遊)했던 인사들만도 40여명이나 되어 이들 가운데 초의와 다사(茶

事)에 깊은 인연을 맺은 인물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금령(錦齡) 박영보(朴永輔), 자하(紫霞) 신위(申緯), 해거도인(海居道人) 홍현주(洪顯周), 소치(小痴) 허유(許維)를 중심으로 초의와의 관계를 서술하였다. 셋째, 초의의 저술은 다서(茶書)를 중심으로 살펴봤으며 다서인 『다신전(茶神傳)』과 『동다송(東茶頌)』의 저술동기, 제목 및 체제, 내용 그리고 판본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의에 관한 차문화 콘텐츠 영역을 분류하기 위해 차문화와 콘텐츠의 개념을 토대로 차문화 콘텐츠를 공간 콘텐츠, 축제 콘텐츠, 브랜드 콘텐츠로 세분화하였다. 여기서, ‘공간 콘텐츠’는 초의의 생애 및 교유관계와 연관된 사건이 담긴 차문화 공간의 콘텐츠로 정의하였다. ‘축제 콘텐츠’는 초의와 관련된 차문화 행사 유형으로 구성되는 축제로 정의하였다. ‘브랜드 콘텐츠’는 초의가 정립한 제다 방법에 근거해 초의 차를 계승·발전시켜 제작되는 차 브랜드로 정의하였다.

## 2) 사례연구

### (1) 사례조사 대상

본 연구의 사례조사 대상은 앞서 분류한 차문화 콘텐츠의 영역에 따른 공간 콘텐츠, 축제 콘텐츠, 그리고 브랜드 콘텐츠의 사례에 해당된다.

먼저 공간 콘텐츠에 대한 사례조사 대상(표 I -2)은 초의의 생애 및 교유관계와 연관된 사건이 담긴 차문화 공간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즉, 초의의 출생지인 초의선사유적지(2019.5.11. 조사), 출가지(出家地)인 운흥사(2019.10.19. 조사), 개오(開悟)가 일어난 월출산(2019.10.18. 조사), 초의가 평생을 주석(駐錫)했던 대흥사(2017.05.04.~05.07., 2017.10.21., 2018.9.23.,

2019.10.19. 조사), 유학과 시문을 가르쳐 준 스승인 다산이 유배 와서 10여년 간 거주하며 초의를 가르쳤던 다산초당(2018.9.24. 조사), 초의가 『다신전』을 필사했던 칠불사(2018.9.24. 조사), 초의가 다산 정약용과 다산가의 두 아들과 함께 만난 수종사(2019.3.24. 조사), 초의차가 있게 한 추사 김정희와 처음 만난 학림사(2019.3.24. 조사), 제주도로 유배 간 추사와 함께 보냈던 추사적거지(2019.07.16.~17. 조사)이다. 이 가운데 대흥사의 경우 사찰 안의 위치순으로 배열하여 초의탑과 초의선사탑비, 복원에 위치한 대웅보전, 남원의 적묵당 앞에 있는 초의매, 별원으로 가는 길에 있는 동다송비, 성보박물관 안의 초의관, 초의 동상, 별관의 동국선원과 그 안에 있는 대광명전, 그리고 일지암까지 함께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흥사 사찰을 나와 녹차 제다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인 녹차밭과 녹차체험장(2017.05.04.~05.07., 2018.05.05., 2019.05.03.~05.17., 2019.10.19. 조사)도 포함하였다.

축제 콘텐츠에 대한 사례조사 대상(표 I -3)은 초의와 관련된 차문화 행사 유형으로 구성되는 축제로 초의문화제(2017.10.20.~10.21., 2018.10.19.~10.20., 2019.10.18.~10.19. 조사)와 초의선사탄생문화제(2019.5.11. 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축제 콘텐츠의 유형을 주제, 의례·시연, 강연, 체험, 전시·판매, 공연, 경연 등으로 구분하였다.

브랜드 콘텐츠에 대한 사례조사 대상(표 I -4)으로는 초의가 정립한 제다법에 근거해 제작되는 차 브랜드 콘텐츠로 고윌 석용운이 만든 ‘초의차’ (2019.5.11. 조사)와 무공 박동춘이 만든 ‘동춘차’ (2019.10.29. 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I -2> 공간 콘텐츠에 관한 사례조사 대상

시·도	조사 대상	소재지	조사 일자	조사 내용
전라	초의선사	전남 무안군	2019.05.11.	초의의 탄생지

남도	유적지	삼향읍 초의길 30		
	운흥사	전남 나주시 다도면 암정로 398	2019.10.19.	초의의 출가지
	월출산	전남 영암군 영암읍 천왕사로 280-43	2019.10.18.	초의의 개오(改悟)가 이루어진 곳
	대흥사 (초의탑과 초의선사 탑비/대웅 보전/초의 매/동다송 비/성보박 물관의 초의관/초 의동상/대 광명전과 동국선원/ 일지암/늑 차밭과늑 차체험장)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2017.05.04.~ 05.07.	초의가 주석(駐錫)한 곳
			2017.10.21.	
			2018.05.05.	
			2018.09.23.	
2019.05.03.~05.17.				
2019.5.24.~05.30.				
	2019.10.19.			
다산초당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2018.09.24.	초의와 다산	
경상 남도	칠불사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528	2019.05.05.	초의의 『다신전』 필사지
경기도	수종사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433번길 186 수종사	2019.03.24.	초의의 첫 상경지
서울 특별시	학림사	서울 노원구 덕릉로 129가길 241	2019.03.24.	초의와 추사의 첫 만남
제주도	추사 적거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44	2019.07.16~17.	추사적거지에서 함께한 초의

<표 I -3> 축제 콘텐츠에 관한 사례조사 대상

축제명	개최 횟수	개최지(소재지)	조사 일자	조사 내용
초의 문화제	제26회	전야제 해남군청앞 광장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4)	2017.10.20.~10.21.	주제, 의례·시연, 강연, 체험, 전시·판매, 공연, 경연
		본행사 대흥사 일원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제27회	해남군청앞 광장 및 문화예술회관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4)	2018.10.19.~10.20.	
	제28회	해남군청앞 광장 및 문화예술회관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4)	2019.10.18.~10.19.	
초의 선사 탄생 문화제	제17회	초의선사 탄생지 일원 (전남 무안군 삼향읍 초의길 30)	2019.05.11.	주제, 의례·시연, 강연, 체험, 전시·판매, 경연

<표 I -4> 브랜드 콘텐츠에 관한 사례조사 대상

구분	소재지	조사 일자	조사 내용
초의차	전남 무안군 삼향읍 초의길 30	2019.5.11.	석용운의 초의차 제다과정
동춘차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806호	2019.10.29.	동춘차, 박동춘 인터뷰

## (2) 사례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례로 조사한 공간 콘텐츠, 축제 콘텐츠, 브랜드 콘텐츠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공간 콘텐츠에 대한 사례는 초의의 생애 및 교유관계와 연관된 사건이 담긴 차문화 공간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축제 콘텐츠에 대한 사례는 차문화 행사 유형인 주제, 의례·시연, 강연, 체험, 전시·판매, 공연, 경연 등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셋째, 브랜드 콘텐츠에 대한 사례는 브랜드 제작자, 브랜드의 연혁, 차의 특징, 제다방법, 관련 교육에 대해 분석하였다.

## II. 초의(草衣)의 생애, 교유관계 및 저술

### 1. 생애

초의(1786~1866)는 조선후기 억불숭유(抑佛崇儒)로 인해 쇠퇴되고 있던 차문화를 부흥시킨 인물로 우리나라의 다도의 중흥조이며, 한국의 다성(茶聖)<sup>2)</sup>으로 불린다.

초의의 법명은 의순(意恂)이고 중부(中孚)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에게 받은 자(字)이며, 초의(草衣)는 완호윤우(玩虎倫佑:1758~1826)에게 받은 법호(法號)이다. 이 밖에도 자우(紫芋)·우사(芋社)·해옹(海翁)·해노사(海老師)·해양후학(海陽後學)·해상야질인(海上也耄人)·초사(艸師)·일지암(一枝庵)<sup>3)</sup>·명선(茗禪)<sup>4)</sup> 등의 별호(別號)가 있다.

초의의 행장은 위당(威堂) 신현[申樵, 초명은 신관호(申觀浩), 1810~1884]이 찬(撰)한 「초의대종사의순탑비명(草衣大宗師意恂塔碑銘)」, 범해(梵海) 각안(覺岸, 1820~1896)의 『동사열전(東師列傳)』 가운데 「초의선백전(草衣禪伯傳)」, 송파(松坡) 이희풍(李喜豐, 1813~1886)이 찬술한 「초의대사탑명(草衣大師塔銘)」, 소치(小痴) 허유(許維, 1808~1893)의 『몽연록(夢緣錄)』, 진도 사람 우당(愚堂)이 쓴 「대둔사초암서(大菴寺艸庵序)」, 유경도인(留耕道人)이

2) 최범술, 『한국차생활사』 프린트본, 1966 참고. 재인용.

3) 범해(梵海) 각안(覺岸), 『동사열전』의 「초의선백전」, (한불전10, 1039.上). “사명의순 자 중부 호초의 우왈일지암(師名意恂 字中孚 號草衣 又曰一枝庵)”

4) 치원(巨園) 황상(黃裳, 1788~1870)의 「결명시(乞茗詩)」에 “명선(茗禪)이란 아름다운 호는 학사께서 주신 것이다.(명선가호학사증(茗禪佳號學士贈))” 라고 하였다. 이 시구의 아래에 “추사가 명선이란 호를 주었다.(추사증명선지호(秋史贈茗禪之號))” 라 하였으니 학사(學士)는 추사임이 밝혀졌고, ‘명선(茗禪)’은 추사 김정희가 초의에게 준 호(號)이다. 추사가 써서 보내준 ‘명선(茗禪)’은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2004년 박동춘의 논문 「초의 의순의茶道사상연구」에서 처음 발표되었다. 박동춘, 『초의선사 차문화 연구』, 황상(黃裳), 『치원유고(巨園遺稿)』, 필사본 32엽(개인소장). 일지사, 2010, pp.21~22.

저술한 「초의대선사운(草衣大禪師韻)」과 이능화(李能和)의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 하권 등을 통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이상의 기록들 가운데 초의의 생애를 비교적 자세하고 정확히 기록한 문헌은 「초의대종사의 순탑비명」과 『동사열전』 가운데 「초의선백전」이다.<sup>5)</sup>

초의라는 법호를 갖게 된 데는 다섯 가지 설이 있다. 그러나 신현(申櫛, 1810~1884)이 찬술한 「초의대종사의 순탑비명(草衣大宗師愷恂塔碑銘)」에 의하면 “초의는 그 염화의 법호”<sup>6)</sup>라는 주장이 가장 옳다고 사료된다. 신현의 「초의대종사의 순탑비명」에 “의순공에게서 보고 들은 바로써 붓을 든다”<sup>7)</sup>라고 기록하여 사실적이고도 생생한 초의의 생전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현의 「초의대종사의 순탑비명」에는 염화법호(拈花法號)라는 뜻은 달마가 혜가에게 의발을 전하였다는 데서 의(衣)라는 말을 취한 것이다. 완호 윤우가 그의 세 제자들에게 염화를 전심한다는 뜻으로 쓴 듯하다. 완호 윤우는 그의 법제자 중 세 제자들을 골라 첫째 법제자인 시오에게는 호의(縞衣)를, 둘째 법제자인 정지에게는 하의(荷衣)를, 셋째 법제자인 의순에게는 초의(草衣)를 법호로 내렸다. 호의는 청정하고 맑은 옷을 전의(傳衣)한다는 의미로, 하의는 연꽃으로 된 옷을 전의한다는 뜻으로, 초의는 자연에 은거한다는 의미로서 『요사(遼史)』의 ‘상고지세(上古之世)는 초의목식(草衣木食)으로 산다.’는 데서 기원한다. 이것은 선 수행을 통해서 자연의 진경을 맛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sup>8)</sup>

초의의 수행과 함께했던 차는 선종의 대표적인 선다(禪茶)의 정신을 이은 것으로 조선후기 쇠락했던 차문화를 중흥시킨 토대가 되었다. 그와 동시에 초의차는 그가 터득한 차의 실증적인 증험을 체계화한 것으로 우리차의 효

5) 김수인, 『초의스님과 차』,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p.37.

6) 염화시중(拈花示衆)이라고도 한다. 선종에서 선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하는 이야기로서, 『대법천왕문불결의경(大梵天王問佛決疑經)』에 기록되어 있다.

7) 의순(愷恂), 『초의시고(艸衣詩稿)』, 권하(한불전 10, 869중). “내이소견문어순공자 위지언(乃以所見聞於恂公者 爲之言).”

8) 송해경, 『「동다송」의 새로운 연구』, 지영사, 2009, p.16.

능이 중국차에 결코 뒤지지 않음을 자신했다. 조선후기의 경화사족들이 우리차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된 것은 초의차를 통해서이다. 초의는 우리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는 이들을 통하여 한국 차문화를 중흥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한편 초의는 백파(白坡, 1767~1852)가 쓴 『선문수경(禪文手鏡)』의 잘못된 선에 대한 입장을 하나하나 지적한 『선문사변만어(禪門四辯漫語)』를 지어 침체된 불교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 논쟁은 근현대까지 초의와 백파의 주장을 지지하는 본격적인 선리논쟁으로 발전되었다.

초의는 선·교·율과 시·차·불화에 일가를 이룬 선백(禪伯)이었고 수행하는 틈틈이 범어(梵語)를 익혔던 학승이었다. 헌종은 초의에게 ‘대각등계보제존자초의대선사(大覺登階普濟尊者草衣大禪師)’라는 시호를 내렸는데, 이는 청허(淸虛, 1520~1604)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것으로, 그의 수행력과 불교계에서의 위상이 컸음을 반영한다.

초의는 생애 기간에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까지 다섯 왕을 걸쳐서 살았던 인물로, 1786년 4월 5일(정조 10년)에 태어나서 세수 81세, 법랍 65세로 1866년 8월 2일(고종 3년)에 입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의(草衣)의 생애를 살펴봄에 있어 다사(茶事)에 얽힌 행적을 중심으로 관련 기록과 선행논문을 토대로 출가 이전, 출가 이후, 사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차문화 콘텐츠를 살펴보기 위해 초의와 연관되는 사후의 일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한 축으로 구분한 것이다.

## 1) 출가 이전의 생애

이 시기는 초의의 출생(1786년)에서 그의 세수 15세(1800년)인 운흥사로

출가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초의는 1786년(정조10년) 4월 5일 전라남도 나주군 삼향면(현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서 무안 장씨 후손으로 태어났다.<sup>9)</sup> 본관은 흥성 장씨(興城 張氏)로 주부공파의 18대손이다. 속명(俗名)은 우순(宇恂)이고, 아버지의 이름은 주팔(籌八)이며, 그의 속가 가계는 19세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초의의 아우인 우열(宇烈)의 아들 선규(善規)가 대를 이었다.<sup>10)</sup> 초의의 부모형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sup>11)</sup> 초의의 출생을 말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생전에 어머니가 꿈 특별한 태몽 두 가지가 전해온다.

첫 번째는 해남 우수영에서 수사(水使)로 있을 때 초의와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던 위당 신헌이 초의 입적 후, 「대종사의순탑비명(艸衣太宗師意恂塔碑銘)」에 “큰 별이 품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꿈 후에 어머니가 초의를 잉태하여 병오년(1786년) 4월 5일에 태어났다.”<sup>12)</sup>는 기록이 남아 있다.

두 번째는 범해 각안의 『동사열전』의 「초의선백전」에 “어머니의 품에 여섯 개의 별들이 들어와 이어 임신이 되었다.”<sup>13)</sup>라고 기록된 것이 있다. 이를 통해 범상치 않은 그의 출생을 엿볼 수 있다.

“5세(1790년) 무렵 강가에 나가 놀다가 잘못하여 떨어져 사나운 급류 속에 휘말렸을 때 누군가가 구해 주었다.”<sup>14)</sup>는 것과 “당시 부친께서 구산(舊山)의 오른쪽에 새 터[신기(新基)]를 마련하셨다.”<sup>15)</sup>는 이야기 정도가 전해온다.

9) 범해(梵海) 각안(覺岸), 『동사열전』 가운데 「초의선백전」, (한불전10, 1039.上). “장씨 나주삼향인(張氏 羅州三鄉人)”

10) 『초의전집(艸衣全集)』 5 (초의문화재단집행위원회 편, 1997), p.14.

11) 김수인, 『초의스님과 차』,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p.29.

12) 의순, 앞의 책, 권하 (한불전10, 869중). “모몽대성투회 이병오사월오일래(母夢大星投懷 以丙午四月五日來)”

13) 각안(覺岸), 앞의 책, “모몽육성입회잉유신(母夢六星入懷仍有娠)”

14) 의순, 앞의 책, 권하 (한불전10, 869중). “오세시출유강저오타한류중 약유허이출자(五歲時出遊江渚誤墮悍流中 若有挾而出者).” 와 범해 각안, 위의 책. “오세타한류중 유허이출자(五歲墮悍流中 有挾而出者)” 라고 되어 있다.

15) 의순(意恂), 『초의시고(艸衣詩稿)』, 「귀고향(歸故鄉)」, (한불전 10, 858. 下). 이 시의 부제에 “당시선군개신기 어구산지우(堂時先君開新基 於舊山之右)”

## 2) 출가 이후의 생애

이 시기는 출가한 세수 15세(1800년)에서 입적한 세수 81세, 법랍 65세(1866년)까지를 말한다.

1800년(15세)에 초의는 전라남도 나주군(羅州郡) 다도면(茶道面) 덕룡산(德龍山) 운흥사(雲興寺)의 벽봉민성(碧峰敏性, ?~?)을 은사로 모시고 사미계를 받았다. 1804년(19세) 약관(弱冠)의 나이에 초의는 월출산에 올라가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는 광경을 보는 순간, 흥증이 모두 열려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경지를 경험하였다고 한다. 월출산 도갑사(道岬寺)에 잠시 머물렀다가 해남 대둔사로 가서 완호윤우에게 구족계를 받고 초의라는 법호를 얻었다. 1805년(20세) 봄, 혜장(惠藏)이 강진 도암의 만덕사[萬德寺, 현 백련사(白蓮寺)] 주지로 취임했다. 가을, 정약용이 만덕사 세심암으로 혜장을 찾아가 첫 대면을 하고 이날 다산은 대둔사(현 대흥사) 북암으로 가고 뒤따라간 혜장과 함께 묵었으며 초의도 이때 다산과 처음으로 대면했다. 다산은 강진 동촌 주막집인 사의재에서 혜장의 배려로 강진읍 우두봉에 아래 고성사(高聲寺)로 옮겨서 살았다. 1807년(22세)에 전남 화순 쌍봉사(전남 이양면 중리 소재)에 주석하고 있던 금담을 만났다. 『초의시고』 첫머리에 실린 정묘(1807)년 쌍봉사에서 쓴 「한가위 새벽에 앉아서, 팔월오일효좌(八月十五日曉坐)」와 「가을 회포를 적다, 추일서회(秋日書懷)」 두 편의 시 내용을 보면, 하안거가 끝난 가을에 초의는 금담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봄, 대둔사에서 가사불사(袈裟佛事)를 베푸는 데 참여하였다. 1809년(24세) 때, 강진으로 유배를 온 다산에게 유학과 시론을 익히게 되었다. 한편 초의가 다산의 아들인 유산(酉山) 정학연(鄭學淵)을 통해 추사를 소개 받고, 대둔사에서 「봉정탁옹선생(奉呈籜翁先生)」을 지었던 것으로 보아 그곳에 거처를 옮겼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대둔사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정약용을 만나

기 위해 강진의 다산초당으로 찾아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다산에게 학문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이능화(李能和:1869~1945)가 쓴 『조선불교통사』에 “초의는 다산승지를 따라 유서(儒書)와 시도(詩道)를 배웠다.”<sup>16)</sup>라는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특히 1811년(26세)에 대둔사 천불전이 소진되고, 아암 혜장이 입적(入寂)한 뒤로 다산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 또한 1812년(27세) 9월에는 다산, 윤동(尹峯:다산의 제자)과 함께 월출산 백운동에 들어가 「백운도(白雲圖)」를 그려 보냈던 것으로도 확인이 된다.

1815년(30세) 금강산(金剛山) 등지를 만행할 때 초의는 처음으로 한양으로 가는 길에 전주에 들러 명필(名筆) 창암(蒼巖) 이삼만(李三挽) 등과 사귀어 한벽당(寒碧堂)에서 시회(詩會)를 열었다. 서울에 올라가 다산의 아들인 유산(酉山) 정학연(鄭學淵)과 운포(耘浦) 정학유(鄭學遊)를 만나 두 해 동안 함께 지냈다. 이 때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산천(山泉) 김명희(金命喜), 『동다송』 저술의 계기가 된 해거재(海居齋) 홍현주(洪顯周), 위당(威堂) 신헌(申櫨), 석오(石悟) 윤치영(尹致英) 등과 교유(交遊)하였으며 이들과의 만남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는 초의의 명성이 세상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초의가 화운(和韻)한 시 60여수가 『일지암시고(一枝庵詩藁)』에 실려 있다.

최근 『현대불교』에 연재중인 박동춘의 「초의 중심으로 펼쳐진 ‘交遊인드라마’」의 내용 가운데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자료는 1818년 7월 23일에 연천(淵泉) 홍석주(洪奭周:1774~1842)가 초의에게 보낸 서찰이다. 그는 홍현주의 형으로, 호는 연천(淵泉)이고, 자는 성백(成伯)이다. 홍석주가 보낸 편지에 초의를 이르기 “향기로운 차(香)를 보내주셨으니 먼 길을 떠난 행장이라 취사선택하셨을 것인데 어떻게 가져와 이 사람에게 보내주실 수 있었습니까(香之惠 長路行裝 便是取間 何能携來有此相贈耶)”라

16) 이능화(李能和), 『조선불교통사』, 보림각, 1972, p.583. “중다산승지(정약용 상적거강진) 수유서관시도 … [從茶山承旨(丁若鏞 嘗謫居康津) 受儒書觀詩道.]”

고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초의는 첫 상경(1815년경)부터 차를 가져와 그와 교유했던 이들에게 선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초의가 두 번째 상경(1830년경)에 차를 가져와 그와 교유했던 이들에게 선물했다는 기존의 설은 이 자료로 통해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1817년(32세)에는 초의가 추사, 동노(東老) 김재원(金在元) 등과 함께 시회(詩會)를 가진 뒤, 헤어져 불국사(佛國寺)에서 참배(參拜)하고, 기림사(祈林寺)에 가서 천불(千佛)을 점안(點眼)하였다. 이 무렵 초의(草衣)와 백파(白坡)의 선논쟁(禪論爭)이 있었다. 1818년(33세)에는 스승으로 모시던 다산(茶山)이 해배(解配)되어 고향(故鄉)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1823년(38세)에 완호 윤우와 아암 혜장을 중심으로 그의 제자들은 『대둔사지(大苾寺誌)』 편집에 참여하였다. 『대둔사지(大苾寺誌)』 각권 서두에는 완호(玩虎) 윤우(倫佑)는 감정(鑑定)으로, 수룡(袖龍) 색성(蹟性)·초의(草衣) 의순(意恂)는 편집(編輯)으로, 아암(兒庵) 혜장(惠藏)은 유수(留授)로, 기어(騎魚) 자홍(慈弘)·호의(縞衣) 시오(始悟)는 교정(矯正)으로 쓰여 있다.<sup>17)</sup> 『대둔사지』는 한국 불교사지의 정형으로, 조선후기 실학자들에 의한 일반사서의 편찬 경향과 동일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그런 연유는 실학자인 다산이 유배 이후 만덕사와 대둔사의 승려들과 교류하면서 불교경전을 두루 섭렵하여 『만덕사지(萬德寺誌)』·『만일암지(挽日庵誌)』·『대둔사지』 등의 사지를 승려들과 함께 편찬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초의는 1824년(39세)에 일지암(一枝庵)을 중건하였다. 일지암(一枝庵)에 언제부터 유거(幽居)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이후 일생을 이곳에서 보냈다.

1828년(43세) 초의는 지리산 칠불암(七佛庵)에서 『만보전서(萬寶全書)』의 「채다론(採茶論)」을 필사하여 돌아왔다. 1830년(45세) 지리산(智異山) 칠불암(七佛庵)에서 등초(騰抄)한 『만보전서』를 정리하여 『다신전(茶神傳)』이

17) 송해경, 『「동다송」의 새로운 연구』, 지영사, 2009, p.240.

란 이름으로 퍼내어 차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였다. 이때 자하(紫霞) 신위(申緯)는 전다박사(煎茶博士)란 시(詩)를 지어 초의(草衣)의 차세계가 도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세상에 알리기도 하였다. 1831년(46세) 지금까지 지은 시를 『일지암시고(一枝庵詩藁)』로 묶었다. 이 책의 서(序)는 홍석주(洪奭周)와 신위(申緯)가 짓고, 발문(發文)은 신헌(申憲), 윤치영(尹致英), 그리고 신헌구(申獻求)가 붙였다.

1833년(48세) 추사(秋史)의 부친(父親) 유당(酉堂) 김노경(金魯敬)이 일지암 자우산방(紫芋山房)에 머무르면서 일지암(一枝庵)의 물맛을 소락(蘇酪)보다 낫다고 언급하였고 이 같은 내용이 『동다송(東茶頌)』에도 실려 있다.

1835년(50세) 초의의 스승인 다산(茶山)이 2월 22일 별세(別世)하였다. 이 무렵 초의는 소치(小痴) 허유(許維)를 한산전에서 처음으로 만나 그를 제자로 맞이했다. 그리고 지기(知己)인 추사에게 추천하여 3년간 시(詩)·서(書)·화(畵)·다사(茶事)를 가르쳐 남종화(南宗畵)를 중흥시켰다. 1837년(52세)에는 해거재 홍현주(洪顯周)에게 『동다송』을 지어 보냈다. 1838년(53세) 서울을 거쳐 금강산으로 여행을 떠나고 귀향길에는 서울에 들러 성동정사에서 홍현주의 시집인 『해거도인시집』에 발문을 지었다. 1839년(54세) 두릉에 가는 길에 소치가 임모한 그림을 가지고 가서 추사에게 보냈다. 이때 김정희가 소치를 제자로 받아드린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서울로 오라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1840년(55세) 헌종(憲宗)으로부터 ‘대각등계보제존자초의대선사(大覺登階普濟尊者草衣大禪師)’라는 사호(賜號)를 받았다. 이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왕사(王師)나 국사(國師) 제도가 폐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헌종으로부터 사호를 받았다는 것은 초의의 학덕과 지행(知行)이 널리 알려져 모든 선비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음을 보여준다. 같은 해 9월 20일 저녁, 추사가 제주도 유배 길에 대둔사 일지암에 도착해 벗인 초의와 차를 마시며 밤새워 달마대사의 『관심론(觀心論)』과 『혈맥론(血脈論)』을 토론

하였다.<sup>18)</sup> 다음날 제주도로 출발하는 추사를 완도 이율포(梨律浦)까지 가서 배웅하였다. 1841년(56세) 제주도에 유배(流配)된 추사로부터 ‘일로향실(一爐香室)’이라는 편액(扁額)을 선물 받았다.

1843년(58세) 40여 년 만에 고향을 찾아가 「귀고향(歸故鄉)」을 지어 세월의 무상함을 노래하였다. 1849년(64세) 겨울, 황상이 초의를 방문했다. 1852년(67세)에 초의는 일지암을 떠나 일로향실에 거처하기 시작했다. 1853년(68세) 초의가 쾌년각(快年閣)에 머물 때 소치가 초의를 찾아왔다. 1856년(71세) 금란지교의 추사가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1857년(72세) 봄에 초의는 해남을 출발하여 김정희를 조문하는 일과 더불어 신위에게 완호의 비문을 받기 위해 상경하여 과천 과지초당에서 겨울을 지냈다. 1858년(73세) 2월 김정희 영전에 「완당김공제문(阮堂金公祭文)」을 지어 올리고 돌아와 인생무상(人生無常)을 느끼며 일지암에서 조용히 나날을 보냈다. 1866년(81세) 일지암에서 쓸쓸한 말년을 보내던 초의는 세수(歲首) 81세, 법랍(法臘) 65세에 서쪽을 향해 가부좌를 하고 입적(入寂)하였다.

### 3) 초의의 사후(死後)

이 시기는 초의가 열반한 세수 81세, 법랍 65세인 1866년의 이후를 말한다.

1868년(사후 2년) 초의의 의발(衣鉢)이 진불암(眞佛庵)에 보관되고, 소치는 초의의 종상(終喪) 재(齋)에 나아가 곡을 하였다. 1871년(사후 6년) 봄, 초의탑을 건립하고, 이희풍이 「초의대사탑명병서」를 작성하였다. 1875년(사후 10년) 10월 신헌구가 월여선실에서 『일지암시고』의 발문을 썼다. 1876년(사

---

18) 박동춘, 『맑은 차 적멸을 깨우네』, 동아시야, 2012, p.25.

후 11년)에 신헌이 「초의대종사탑비명」을 찬(撰)하고, 신정희가 전(篆)하였다. 1878년(사후 12년) 범해가 「초의차」라는 시를 지었다. 1890년(사후 24년) 5월에는 범인이 『일지암문집』을 편집하였다.

1906년(사후 40년)에는 상운(祥雲)과 쌍수(雙修)가 『초의시집』을, 1913년(사후 47년)에는 고벽담이 『선문사변만어』를 간행하였다. 1941년(사후 75년) 4월 응송이 초의대종사탑비를 재건립하고, 석전(石顛) 박한영(朴漢永)이 초의대종사탑비의 음기(陰記)를 작성하였다.

## 2. 교유관계

『초의집(草衣集)』을 통해 볼 때 초의와 교유(交遊)했던 인사들만도 40여 명이나 된다. 이들 가운데 초의와 다사(茶事)로 깊은 인연을 맺은 교유관계(交遊關係)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차의 실용을 제안해 국익과 민생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했던 다인(茶人)이자 조선후기 실학자이다. 진주목사 재원(載遠)의 아들이며 한국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승훈의 처남이기도 하다. 그의 박학다식하고 충직함을 아꼈던 정조가 승하하자 신유사옥(辛酉邪獄: 신유박해라고도 함.) 즉,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탄압으로 이승훈(李承薰, 1756~1801)과 이벽(李穡, 1754~1785)을 통해 천주교에 입교하였던 정약용은 유배를 당했다.

자(字)는 귀농(歸農), 미용(美鏞), 송보(頌甫)이고, 호(號)는 다산(茶山), 탁옹(籜翁), 삼미(三眉), 사암(俟菴), 태수(苔叟), 여유당(與猶堂), 철마산인(鐵馬山人), 자하도인(紫霞道人)이며, 시호(諡號)는 문도(文度), 세례명은 요한이다.<sup>19)</sup>

다산은 어려서부터 차를 마셨고, 열여섯 살에 부친이 화순현감으로 부임하자 부친을 따라 성주암(聖主庵)에서, 열아홉 살 때 예천군수로 부임했을 때 반학정(伴鶴亭)에 올라 차를 즐기기도 했다. 이처럼 청소년기에 일찍이 익힌 선비의 다풍(茶風)은 그가 차의 고장인 강진으로 유배되어 고독과 한유 속에서 아암 해장을 만남으로써 그 폭이 넓어지고 깊이를 더해갔다.

정약용은 1801년에 강진(康津)으로 유배가 사의재에, 1805년에는 보은산방에, 1806년에는 제자인 이학래의 집으로 옮겨 살았다. 1808년 봄이 되자, 운단의 산정(山亭)이 있던 다산(茶山)으로 거처를 옮겨 십여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 그는 이곳에 다산초당(茶山草堂)을 지어 차를 마시며 학문을 닦으며 저술에 전념했다. 그는 차를 마시기 위해 초당 앞에 다조(茶竈)를 만들고 정석(丁石) 아래 약천(藥泉)을 팠다.

초의 24세(1809년)때, 강진의 다산초당으로 유배 온 다산을 찾아 갔다. 이 인연은 초의의 출가만큼 중요한 만남으로, 초의가 한양의 식견 있는 사대부들을 만날 수 있던 모든 교유의 인연이 만들어진 것과 다산과의 만남 이후 3년 동안 다산을 스승으로 모시고 유학(儒學)과 시학(詩學)을 배워 학문적인 성취를 이룬 것은 모두 다산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의 교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809년에 그가 다산에게 올린 「봉정탁옹선생(奉呈籜翁先生)」에서 “부자는 재물로 사람을 송별하고, 어진 이는 좋은 말로 전송합니다. 지금 선생님께 말씀드리려 하나 마땅히 드릴 것이 없습니다. 먼저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펴 온화하신 선생님께 올립니다.”<sup>20)</sup>라고 한 것에서

19) 류건집, 『동다성 주해』, 이른아침, 2009, p.28.

20) 의순(意恂), 『초의시고(艸衣詩稿)』, 「봉정탁옹선생(奉呈籜翁先生)」, (한불전 10, 832. 下).  
“부송인이재 인송인이언 금장사부자 가무유증전 선경서누복 청진은쾌전(富送人以財 仁送人以言 今將辭夫子 可無攸贈施 先敬舒陋腹 請陳隱几前)”

가름해 볼 수 있다. 초의는 다산보다 24년 연하(年下)로 그들은 신분(身分)과 종교(宗教)를 초월(超越)한 만남이었다. 신현(申櫏)이 찬(撰)한 「초의대종사탑비명(草衣大宗師塔碑銘)」에 의하면 초의(草衣)는 다산(茶山)으로부터 유학(儒學)을 배우고, 시도(詩道)에 눈을 뜬 후 교리에 정통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선경(禪境)에 깊이 침잠(沈潛)하여 운유(雲遊: 뜬구름처럼 널리 돌아다니며 놀)의 깊고 오묘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와 같이 당대 최고의 지식인인 다산(茶山)의 가르침은 초의(草衣)로 하여금 시(詩)·서(書)·화(畫) 삼절(三絶)의 경지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그는 다산의 아들인 유산을 통해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를 소개 받았고, 그를 계기로 해거도인 홍현주, 금령 박영보, 자하 신위와 위당 신현 등 많은 경화사족(京華士族: 변화한 한양과 그 인근에 거주하는 사족)들과 교류하였다.<sup>21)</sup>

## 2)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김정희(金正喜, 1786~1856)는 초의와 같은 해인 1786년 6월 3일에 충남 예산군(禮山郡) 신암면(新岩面) 용궁리(龍宮里) 월성위(月城尉)에서 태어났다. 조선후기 문신이자 금석학에 밝았으며, 서화가였다. 판서 김노경의 아들로 자(字)는 원춘(元春)이다.

추사의 호(號)는 그때그때의 심정, 상황, 그리고 서정에 따라 새로 아호를 가지고 낙관을 하곤 했고 아호, 낙관, 도인에 쓰인 글귀만도 약 200여개나 된다. 그러므로 어떤 아호로 낙관했느냐가 추사 작품의 편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추사 아호의 기본은 추사(秋史)와 완당(阮堂)이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완당과 차를 관련된 호에 대한 것이다.

21) 송해경, 「초의 『다산전』 등초의 차문화사적 의의」, 선학36, 2013, p.42.

완당이라는 호는 추사의 나이 24세 되던 해 부친 김노경을 따라 연행(燕行, 사신으로 중국에 가는 것)을 갔다. 추사의 스승인 박제가와 1801년에 연경에 갔을 때 20대의 젊은 나이로 시를 주고받으며 교유했던 조강의 소개로 29세인 서송(徐松)을 만났다. 서송은 과거에 급제한 수재로 당시 옹방강과 자주 만나고 있었다. 추사는 서송을 통해 연경의 여러 학예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평생 가슴에서 떠나지 않은 두 선생과 조우하게 된다. 한 사람은 청대의 거유(巨儒)인 담계(覃溪) 옹방강(翁方綱, 1733~1818)으로, 담계와의 만남에서 귀국 후 ‘담계 옹방강을 보배롭게 받드는 서재’라는 뜻으로 보담재(寶覃齋)라는 당호를 갖게 되었다. 또 한 사람은 운대(雲臺) 완원(阮元, 1764~1849)으로, 운대와의 만남에서 그는 운대를 스승으로 모시겠다는 뜻으로 자신의 아호를 완당(阮堂)이라 했고, 연행 후 중년부터는 추사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sup>22)</sup> 추사는 그의 스승인 박제가의 책상에서 운대의 초상을 본 바 있어 그를 바로 알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운대 역시 추사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반가워서 신을 거꾸로 신고 나왔다고 한다.

차와의 인연으로 승설노인(勝雪老人), 승련노인(勝蓮老人), 고다노인(苦茶老人), 승설도인(勝雪道人)이란 호를 사용했다. 여기서, 승설도인이라는 호는 운대는 태화쌍비관에 추사를 친히 초청해 희대의 명차인 용봉승설(龍鳳勝雪, 송대에 만든 명차로 황실에 받쳐져서 나중에 명차의 대명사가 되었음)을 달여서 대접했다. 이때 맛본 감동은 추사의 차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자신의 호를 승설도인(勝雪道人)이라 하였다.<sup>23)</sup>

차 애호가인 추사는 물을 평하는데도 일가견이 있어 차 품격은 물에 의해 드러난다고 했다. 「수미변(水味辨)」에서 추사는 “물을 분별하는 것은 물의 가볍고 무거움으로 샘의 높고 낮음으로 나누었고, 은두(銀斗, 은으로 만든 계량기)를 만들어 그것을 견주었다.” 고 하였다. 물의 경중이 샘에 따라

22) 유홍준, 『추사 김정희』, (주)창비, 2018, pp.67~68.

23) 박동춘, 『박동춘의 한국차문화사』, 동아시아, 2015, pp.207~208.

달라진다는 것은 송대(宋代)의 문인들이 물을 분별하는 방법이었다. 그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차 이론에 밝았던 다인이란 증거이며 물을 분별하는 안목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초의가 30세(1815년) 늦여름, 첫 서울 상경한 후 겨울눈을 헤치고 해봉(海鵬)를 찾아온 김정희를 수락산 학림암(현 학림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추사의 차에 대한 안목이 초의차(草衣茶, 사대부들은 그 당시에 초의가 만든 차를 초의차라 불렀음)를 완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추사에게 잇을 수 없었던 차 벗은 초의였다. 초의차를 가장 애호했던 인물이자 추사와 초의는 추사가 타계(他界)할 때까지 40여 년 간 이어진 깊은 우정을 나눴던 불망지교(不忘之交)였다. 그가 교유했던 인물 중에 가장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추사의 영전에 바친 「완당김공제문(阮堂金公祭文)」을 통해 충분히 두 사람의 교유관계를 엿볼 수 있다.

추사는 음다(飲茶)의 즐거움을 체득한 인물이었으며 차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으로 음다층의 토대를 굳건히 했던 시대의 중심에 있었다. 이런 연유로 초의차의 막강한 품평가이면서 동시에 애호가였다.

### 3) 금령(錦齡) 박영보(朴永輔)

박영보(朴永輔, 1808~1872)는 조선후기 문신으로 박문수의 후손이다. 자는 성백(星伯)이고 금령(錦齡)은 그의 별자(別子)이자 호로도 사용되었으며, 열수(冽水)라는 호도 있다. 신위(申緯)의 제자로 차를 즐겨 마신 인물이다.

1830년 그의 벗 이산중(李山中)에게 초의차를 얻어 마신 후 환호작약하여 초의에게 쓴 「남다병서(南茶并序)」라는 시를 지어 보냈다. 이 시는 11월 15일에 완성되었는데 1830년 초의차를 세상에 알리는 데 직접적 계기가 되

는 작품이었다.

초의와 박영보의 교유관계를 살피는 데 있어 중요한 작품으로는 「증교(證交)」와 「몽하편(夢霞篇)」이 있다. 차를 마시게 된 경위와 두 편의 시가 오고간 사연은 다음과 같다.

1830년 9월, 초의는 스승인 완호의 삼여답을 세운 후, 탑명(塔銘)과 서문을 받기 위해 상경하면서 폐백으로 직접 만든 차인 보림사 죽로차를 들고 가게 되었다. 초의차를 벗인 이산중에게 조금 얻어 마신 금령은 초의차를 맛보고 그 맛에 반해 바로 일면식도 없던 초의에게 장편의 시를 지어 고마움을 전하고, 화답을 청했다. 박영보의 시를 받은 초의는 감격하여 며칠 뒤 바로 이 시에 화답해 서로 친구를 맺자는 뜻과 함께 「증교(證交)」시 두 수를 박영보에게 보냈으나 원시는 전하지 않고 있다. 금령을 만난 초의는 상경하기 전 자신이 일지암 공사를 마치고 나서 그곳으로 거처를 옮기던 밤에 꾸는 꿈을 「몽하편(夢霞篇)」으로 들려주었다. 꿈의 내용은 자하 신위가 나타나서 편액을 써주고 방사관(方山冠:악사가 쓰는 관)을 만들어준 이야기였다.

#### 4) 자하(紫霞) 신위(申緯)

신위(申緯, 1769~1845)는 1769년(영조 45년) 8월 11일에 서울 장흥방에서 참판 신대승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본관은 평산으로, 자(字)는 한수(寒叟), 호(號)는 자하(紫霞), 경수당(警修堂)과 소낙엽두타(掃落葉頭陀)이다.

금령의 스승이자 「몽하편(夢霞篇)」의 당사자인 자하는 금령을 통해 초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초의가 상경하기 전날 밤의 꿈을 듣고 기뻐하여 화답시를 썼는데 그것이 신위의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에 실려 있

는 「원몽사편(圓夢四篇)」이다. 이는 1830년 12월에 지었는데 이 시에 초의를 ‘전다박사(煎茶博士)’라 칭한 귀한 구절이 나온다.

박영보가 초의차를 세상에 널리 알린 것 못지않게 신위도 또한 초의차를 사랑하고 아껴 여러 편의 시를 남겼다. 대표적으로 박영보의 「남차병서」에 화운하여 「남차시병서」를 지어 초의에게 주었다. 이 시는 1830년경 신위가 각기병 치료를 위해 용경의 별장에 머물렀을 때 지었는데 칠언 장시로 총 40구로 이루어졌다.<sup>24)</sup> 자하는 초의가 보낸 차의 맛이 너무 어려서 전부터 가지고 있던 학원차(壑源茶)에 섞어 두었다가 새것과 옛것이 서로 어울리기를 기다려 사용했다고 하였다. 초의에게 보낸 시에 차의 맛을 내기 위해 고벽(古癖)의 방법으로 새것과 묵은 것을 적당히 섞어 서로 어울리기를 기다려 마셨다고 하였다.

초의가 보낸 차는 너무 여리다고 한 것으로 보아 우전(雨前)으로 짐작된다. 학원차는 중국의 명차였다. 자하는 이 둘을 섞으면 깊고 얇음이 조화를 이루어 기묘한 차맛을 낸다고 믿었다. 이는 평생 차를 마신 전문가가 아니면 가변이 시도하지 못할 위험한 방법이기도 하다.

초의가 스승 완호(玩虎)대사의 삼여탑(三如塔)을 세우며 서문을 자하에게 부탁할 때 보림백모(寶林白茅)를 보냈기에 그 보답으로 쓴 시에서 사찰에서의 차생활은 한결 같았으며, 시(詩)와 선(仙)이 차(茶)와 어울려 새로운 진여(眞如)에 접근했다고 했다.

한편 자하는 당시 차인들 중에서도 드문 수품가(水晶家)로, 좋은 물을 일부러 찾아다녔는데 좋은 물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 그 옆에 정자를 짓기도 하고 냉천정(冷泉井), 동정수(凍井水)를 찾아 나서는데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으니 좋은 차를 찾아 편력한 육우와 닮았다. <sup>25)</sup>

24) 박동춘, 『초의선사의 차문화 연구』, 일지사, 2010, p.198.

25) 류건집, 『동다성 주해』, 이른아침, 2009, pp.58-60.

#### 5) 해거도인(海居道人) 홍현주(洪顯周)

홍현주(洪顯周:1798~1865)는 문신으로 자(字)는 세숙(世叔), 호(號)는 해거도인(海居道人), 약헌(約軒), 그리고 해거재(海居齋)이다. 부친 족수거사(足睡居士) 홍인모(洪仁謨)는 여류시인 영수합(令壽閣) 서씨(徐氏)와 결혼하여 석주(奭周), 길주(吉周), 원주(原周), 현주(顯周) 등을 슬하에 두었다. 모친 영수합 서씨가 쓴 몇 편의 차시(茶詩)가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차생활을 즐긴 차인(茶人)으로 사료된다. 홍현주의 누나인 유한당(幽閒堂) 원주도 모친의 영향으로 차를 좋아했으며 200여 편의 시를 남겼다. 가족이 모두 차인이며 시인이었던 것이다.

홍현주는 정조의 둘째딸인 숙선옹주(淑善翁主)와 혼인하여 영명위(永明尉)에 봉해졌다. 숙선옹주도 차를 좋아해서 시어머니의 매옥(梅屋)에서 차를 마시고 시회(詩會)를 열곤 하였다. 이와 같이 차인으로서 가족의 배경을 가진 홍현주가 초의에게 『동다송』을 짓게 한 것은 우리 차문화사에서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일이다.

#### 6) 소치(小痴) 허유(許維)

허유(許維, 1809~1892)는 전라남도 진도 출신으로,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마힐(摩詰)이며 호는 소치(小痴) 또는 노치(老痴)이다. 어린 시절 집안이 가난하여 일찍이 화공(畫工)의 길을 걸었던 그는 해남 윤선도의 고택인 녹우당(綠雨堂)에서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 1668~1715)를 비롯한 윤씨 화가들의 작품들을 모사(模寫)하면서 전통 화풍을 익히고 중국 남종화도 접했다. 녹우당을 출입하면서 초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소치는 1836년 당시 일지

암에 머물던 초의를 찾아갔다. 소치의 비범함을 알아챈 초의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인 후 3년간 서예, 그림, 시문 그리고 불경과 차를 가르쳤다. 그렇게 초의에게 사사를 받던 소치에게 또 한 번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추사와 사제의 연을 맺게 된 것이다. 소치의 자질을 한 눈에 알아본 초의는 소치의 그림과 글씨를 들고 1839년 한양에 있는 추사를 찾아 나섰고 이를 본 추사는 “허균의 화격(畫格)은 거듭 볼수록 묘하니 이미 품격을 이루었으나 다만 견문이 아직 좁아 좋은 솜씨를 구사하지 못하고 있소. 빨리 한양으로 올라와 안목을 넓히는 것이 어떠하오” 라고 평했다. 그 후 추사는 소치의 자질을 인정하고 제자로 받아들였다. 추사는 소치에게 원(元)나라의 4대 화가 중 대치도인(大痴道人) 황공망(黃公望, 1269~1354)의 호를 본떠 그에게 ‘소치(小痴)’ 라는 호를 지어주었다. 이를 계기로 소치의 이름은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된다. 추사는 훗날 소치를 두고 “압록강 동쪽으로 소치를 따를 만한 화가가 없다. 소치의 그림이 내 것보다 낫다” 고 평할 정도로 그의 재능을 높이 샀다. 소치는 이때부터 그의 스승이었던 초의와 추사의 이어주는 가교(架橋)역할을 했다. 추사가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시기에 험한 바닷길을 마다하지 않고 추사의 거처에 세 차례 방문하여 초의가 준비한 차와 서신을 전해 주었다. 추사와 초의라는 당대의 걸출한 인물들을 스승으로 둔 소치는 궁중화가로도 화려한 꽃을 피웠다. 1849년에 소치는 당시 영의정이자 추사의 돈독한 친구였던 권돈인(權敦仁, 1786~1859)의 배려로 낙선재(樂善齋)에서 헌종이 쓰는 벼루에 먹을 찍어가며 그림을 그리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헌종은 소치를 궁중화가로 임명한 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정이품의 무관직)라는 벼슬을 내렸다. 초의와 추사의 가교역할을 했던 소치는 헌종에게 두 사람의 인품과 삶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역할도 함께 했다. 헌종이 초의에 대해 묻자 소치는 “세인이 모두 고승(高僧)이라 하옵는데 그분은 내외전(內外典)에 달통(達通)했으며 승속(僧俗) 간

에 많은 인사들과 교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다. 왕실의 어용화가로 활약했던 소치가 진도의 운림산방(雲林山房)으로 낙향하게 된 것은 스승인 추사가 죽고 난 다음 해인 1857년의 일이었다. 아마도 그는 당파싸움에 휘말려 고초를 겪은 스승 추사의 삶을 보며 한양에 대한 미련을 버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무렵 자신의 이름을 남종화와 산수수묵화의 대가였던 당(唐)의 왕유(王維)의 이름을 따서 허련(許鍊)에서 허유(許維)로 개명하였다.

조선 헌종(憲宗) 시대에 궁중화가로 활동하며 시(詩)·서(書)·화(畫)에 능하여 삼절(三絶)이라 불렸던 소치 역시 추사와 초의를 통해 학문과 예술, 그리고 차(茶)의 진수를 터득한 인물이다.

그러한 소치의 예맥(藝脈)과 다맥(茶脈)은 후손들을 통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소치의 예맥은 그의 아들인 2대 미산(米山) 허형(許滢, 1861~1938), 손자인 3대 남농(南農) 허건(許健, 1908~1987)과 그의 막내 동생인 임인 허림(1917~1942)을 거쳐 4대인 임인의 외아들인 임전(林田) 허문(許文, 1941~), 5대인 남농의 손자인 오당 허진(許填, 1962~)으로 이어져 왔고, 또한 미산에게 사사 받던 의재(毅齋) 허백련(許百鍊, 1891~1977)으로도 이어졌다. 소치의 다맥은 소치의 방손(傍孫)인 의재 허백련이 만든 무등산 삼애다원(三愛茶園)과 ‘춘설차(春雪茶)’로 이어져 왔다.<sup>26)</sup>

---

26) 손연숙, 『손연숙의 차문화 기행』, 도서출판 이른아침, 2008, pp.366~371.

### 3. 저술

초의가 남긴 저술(著述)은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선리(禪理)로 『선문사변만어(禪門四辯漫語)』와 『초의선과(草衣禪課)』가 있다. 둘째는 시문(詩文)으로, 『일지암시고(一枝庵詩稿)』, 『초의시고(艸衣詩稿)』 그리고 『일지암문집(一枝庵文集)』이 있다. 셋째로 다서(茶書)로 『동다송(東茶頌)』, 『다보서기(茶譜序紀)』와 『다신전(茶神傳)』이 있다. 넷째로 기타로 『진묵조사유적고(眞默祖師遺跡攷)』이다.

이 가운데 『다신전』을 박동춘은 기타로 분류하였는데 『다신전』이 차에 관한 이론서이지만 초의의 저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자료집에 해당된다고 본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초의가 정서하는 과정에서 차에 대한 그의 피력을 담고 있는 『다신전』이 우리의 차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하여 다서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들 중에 초의의 행적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되는 저술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선문사변만어(禪門四辯漫語)』는 백파(白坡)가 『선문수경(禪文手鏡)』에서 설파한 선(禪)의 잘못된 곳[오처(誤處)]을 규명하면서 전고를 통해 사실을 밝히는 고증적인 방법으로 그의 선관(禪觀)과 학문적인 태도를 가름해 볼 수 있다. 이는 1913년 5월 25일에 목판본 1책으로 문중과 사내 사무원들이 비용을 각출하여 대홍사주지인 백취운, 증법손인 고벽담, 임경과 연협이 편집·간행하여 지역 내 사찰에 배포하였다. 『초의선과(草衣禪課)』는 초의가 『선문염송(禪門拈頌)』의 중요한 부분을 가려 뽑은 친필본이고 일지암에 주석할 때 편찬한 것으로, 1985년 용운이 편집한 『초의선사전집(草衣禪師全集)』에 『선문염송선요소(禪門拈頌禪要疏)』의 필사본이 소개된 후에 세상에 알려졌으며 『초의선과(草衣禪課)』와 비교해보면 체제와 내용이 같아

『선문염송선요소(禪門拈頌禪要疏)』라고도 한다.

『일지암시고(一枝庵詩稿)』는 초의의 친필본 시집으로, 1807년 8월 15일에 쌍봉사에서 지은 「팔월십오일효좌(八月十五日曉坐)」를 시작으로 1850년에 지은 「봉화산천도인사다(奉和山泉道人謝茶)」까지 그동안 지은 시를 모아 1책 4권으로 묶은 책이다.<sup>27)</sup> 권(卷) 1에는 22세에서 44세까지 109수가, 권(卷) 2에는 45에서 46세까지 110수가, 권(卷) 3에는 47세에서 57세까지 122수가, 권(卷) 4에는 58세에서 65세까지 60수가 실려 있다.<sup>28)</sup> 이 시집에는 1831년에 연천(淵泉) 홍석주(洪奭周)와 자하(紫霞) 신위(申緯)가 쓴 서문, 말미에 석오(石梧) 윤치영(尹致英), 1851년에 위당(威堂) 신현(申櫛), 그리고 백파거사(白坡居士) 신헌구(申獻求)의 발문(跋文)이 들어 있다. 연천 홍석주에게 서문을, 위당 신현에게 발문을 미리 부탁했던 초의이었던건만 정작 본인은 이 시집을 완성하지 못한 채 열반했고, 1875년에 초의의 제자인 월여(月如)가 백파거사 신헌구에게 발문을 부탁해 월려의 선방에서 발문을 써 주었다. 이는 초의가 시를 지었던 시기와 장소, 교유했던 인물들과 당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 그의 활동 시기를 밝힐 수 있는 단서와 행적을 살필 수가 있어서 특별히 주목된다.

『초의시고(艸衣詩稿)』는 1906년 4월에 초의의 법손 상운(祥雲), 쌍수(雙修), 그리고 원응(圓應)이 『일지암시고』의 필사본을 저본으로 간행한 것인데 2권 2책의 목판본으로 후반부에 문류가 추가되었으며 『한불전』 10권에 도 수록되었다. 『초의시고(艸衣詩稿)』 하권에는 「천불전상량문」, 「대둔사신건광명전상량문」, 「청허비각상량문」, 「중조성천불기(重造成千佛記)」, 「미황사만일회기」 등 상량문과 회기를 수록하여 천불전이나 대광명전이 조성된 연유를 보여준다. 또한, 『동다송』을 지어 보내면서 쓴 글인 「상해거도인서(上海居道人書)」가 실려 있어서 『동다송』에 관한 여러 사

27) 박동춘, 『초의선사의 차문화 연구』, 일지사, 2010, pp.68~69.

28) 석용운, 『초의선사의茶香기』, 도서출판 초의, 2009, pp.288~289.

실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일지암문집(一枝庵文集)』은 1890년 6월 5일에 그 문인(門人)인 월여(月如) 범인(梵寅)이 편집하고 원응(圓應) 계정(戒定)이 정서하여 쓴 것<sup>29)</sup>으로, 전 2권 1책으로 되어 있으며 초의가 일생동안 지은 소(疏), 기(記), 서문(序文), 발문(跋文), 축문(祝文), 제문(祭文), 영찬(影贊), 상량문(上樑文) 등 52개의 항목과 탑비명이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권1에서는 소(疏) 3편, 기(記) 5편, 서문(序文) 8편, 발문(跋文) 2편과 상량문(上樑文) 4편으로 모두 22편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그 항목 중에 본 논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말년에 보련각(寶蓮閣)과 대광명전(大光明殿)을 창건하고 청허(淸虛) 휴정(休靜) 이후 대둔사(大菴寺, 현 대흥사)에서 배출한 12대종사와 12대강사를 비롯해 고승대덕(高僧大德) 172위(位)의 영찬(影贊)을 모신 「대광명전상량문(大光明殿上樑文)」과 홍현주(洪顯周)의 「시집발문(詩集跋文)」이 실려 있다. 권2에는 발문(跋文) 5편, 법문(法文) 1편, 제문(祭文) 9편, 축문(祝文) 2편, 영찬(影贊) 3편, 모연문(募緣文) 2편, 권선문(勸善文) 1편, 서간문(書簡文) 6편과 보살계패규(菩薩戒牌規) 1편 등 모두 30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본 논문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추사김공제문(秋史金公祭文)」, 『동다송』을 저술해서 보낼 때 보낸 편지인 「상해거도인서(上海居道人書)」, 다산(茶山)에게 보낸 서간문, 추사(秋史)에게 답한 「답쌍수도인(答雙修道人)」 등이다. 부록으로는 위당(威堂) 신현(申櫛)이 찬술(撰述)한 「초의대종사탑비명(艸衣大宗師塔碑銘)」, 「초의화상계(艸衣畫像偈)」와 송과(松坡) 이희풍(李禧豐)이 찬술(撰述)한 「초의대사탑명(艸衣大師塔銘)」이 실려 있다. 마지막으로 대승계를 받은 「수대승계자명(受大乘戒者名)」도 수록되어 있다.<sup>30)</sup> 이 중에서 특히 「초의대종사탑비명(艸衣大宗師塔碑銘)」와 「초의대사탑명(艸衣大師塔銘)」은 초의의 행적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29) 박동춘, 앞의 책, p.73.

30) 석용운, 앞의 책, pp.289~290.

『다보서기(茶譜序紀)』는 유품목록인 『일지암서책목록』의 「명한시초(明翰詩抄)」에 총 86종의 서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이 책은 『동다송(東茶頌)』, 『다경(茶經)』과 함께 각 1규(糾)가 포함되어 있고 초의의 새로운 다서일 가능성이 높아 그의 차 이론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자료로 여겨지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다서의 서명만 밝혀진 상황이다.<sup>31)</sup> 『진묵조사유적고(眞默祖師遺跡攷)』는 초의가 1842년 겨울 완산(현 전주) 봉서사에 가서 은고거사(隱臯居士) 김기종(金箕鐘)으로부터 진묵의 내력을 듣고 1847년 봄에 편찬하고 운고(雲臯)가 교정을 한 것으로 상하 2권 1책으로 되어 있다. 진묵(震默, 1562~1633)은 그의 법호이고 조사의 휘는 일옥(一玉)이며, 1562년(명종 11년)에 전라도 만경현 불거촌에서 태어났는데<sup>32)</sup>, 그가 태어나자마자 3년 동안 초목이 시들었다고 한다.<sup>33)</sup> 1633년(인조 11년) 10월 28일에 입적하니 세수 72세, 법랍이 52세이었다.<sup>34)</sup>

본 논문은 초의와 관련된 차문화 콘텐츠 연구이므로 저술 중에 다서(茶書)인 『다신전(茶神傳)』과 『동다송(東茶頌)』을 중심으로 좀 더 상세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다신전(茶神傳)』

『다신전』은 초의가 43세(1828년) 때 장마철에 지리산 칠불선원(七佛禪院)에 가서 지내면서 『만보전서(萬寶全書)』<sup>35)</sup>의 「채다론(採茶論)」를 등초

31) 박동춘, 앞의 책, pp.99~101.

32) 석용운, 앞의 책, p.293.

33) 박동춘, 위의 책, p.84.

34) 석용운, 위의 책, p.293.

35) 『만보전서(萬寶全書)』: 백과사전의 일종으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수집, 정리해 놓았는데 『다신전』의 내용인 「채다론」이 수록되어 있다. 『만보전서』의 여러 종류 중에서 『경당증정만보전서(敬當增訂萬寶全書)』 14권의 일부 내용이 「채다론」이다.

(臚抄)해서, 그로부터 2년 뒤인 45세(1830년 음력 2월) 때 정서(正書)<sup>36)</sup>하여 제명(題名)을 하고 말미에 발문(跋文)을 달아 만든 책이다.<sup>37)</sup>

『다신전』이란 ‘다신(茶神)의 전기’ 혹은 ‘다신(茶神)의 고서(古書)’라는 뜻으로, 다신(茶神)은 『다록(茶錄)』의 8항인 「포법(泡法)」에 나오는데 ‘다탕(茶湯)의 신기(神氣)’라는 의미로 차의 독특한 색(色), 향(香), 미(味)를 뜻했으나 초의가 사용한 ‘다신(茶神)’은 ‘차(茶)의 신(神)’ 혹은 ‘신령스러운 차’를 의미한다.<sup>38)</sup>

『만보전서』에 수록된 「채다론(採茶論)」의 원본은 모환문(毛煥文)의 『다경채요(茶經採要)』이며, 『다경채요』의 원본은 장원(張源)이 쓴 『다록(茶錄)』이다. 여기서, 『다록(茶錄)』은 명(明)의 장원(張源)이 1595년 전후에 쓴 책으로, 책의 서두에 “명포산장원백연저(明包山張源伯淵著)”라 하였는데, 포산(包山)은 강소성(江蘇省) 오현(吳縣)의 서남쪽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장원이 거쳐하던 곳이고, 백연(伯淵)은 그의 자호(字號)로 짐작된다.<sup>39)</sup>

현존하는 『다신전』을 보면 맨 처음에 「채다(採茶)」 또는 「채다론(採茶論)」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초의 의순 베껴 적음”이나 “『만보전서(萬寶全書)』에서 베껴 냄”이라 쓰여 있다.<sup>40)</sup>

### (1) 저술동기

『다신전』은 전부 22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발문(跋文)에 등초하게 된 동기(動機)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36) 송해경은 「초의 『다신전』 등초의 차문화사적 의의」에서 등초(臚抄), 정초(正抄), 정서(正書)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즉 등초는 혼자만 알아볼 수 있게 거칠게 베긴 것이고, 정초는 알아보기 쉽게 정자로 쓴 것이며, 정서는 잘못된 내용을 고쳐가며 다시 쓴 것으로 정의하였다.

37) 석용운, 위의 책, p.292.

38) 정영선 편역, 『동다송』, 너럭바위, 1998, p.167.

39) 정영선, 위의 책, p.164.

40) 정영선, 위의 책, p.166.

무자년(1828년) 비올 때 스승을 따라 방장산(현 지리산) 칠불아원에 가서 베껴왔다. 다시 정서(正書)하려고 하였으나 병으로 그렇지 못하였다. 사미승(沙彌僧) 수홍(修洪)이 그때 시자방(侍者房)에 있었는데 다도(茶道)를 알고자하여 그가 정초(精抄)하여 베꼈다. 그도 병으로 끝까지 정서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참선하는 여가에 관성자(管城子: 붓의 다른 말)에게 억지로 명하여 끝을 맺게 하였다. 총림(叢林, 승가)에 조주풍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다 없어졌다. 그래서 다도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베껴서 다도가 두려워할 만한 것임을 보이노라.

경인년 중춘(仲春) 암자[일지암]에서 쉬는 병든 중은  
 눈 내리는 창가에서 화로를 꺼안고 삼가 씬.<sup>41)</sup>

중국은 당대(唐代)에 차잎을 따서 시루에 찢 후 절구통에 찧고 틀에 넣어 모양을 만들어 말린 다음 껌미에 껌어 보관하는 7단계의 제다공정을 거친 병차(餅茶)를 만들었다. 이 병차를 끓여 마시기 위해서 먼저 보관 중 흡착된 수분을 제거하고 잘 빵기 위해 병차를 불에 굽고, 맷돌[연(碾)]로 차를 빵아라(羅)를 이용하여 체에 쳐서 가루 형태의 차를 술에 물을 끓여 술 한가운데 차가루를 넣고 대젓가락으로 휘저어 포말을 떠서 각 찻잔에 포말이 균일하게 담기도록 하여 마신 자차법(煮茶法)이었다. 송대(宋代)에는 병차를 맷돌에 곱게 갈아 가루차를 다완에 넣고 끓인 물을 부어 대나무를 잘게 쪼개어 만든 차선(茶筴)으로 저어 하얗고 부드러운 거품을 만드는 격불(擊拂)을 해서 마시는 점차법(點茶法)이 유행하였다. 명대(明代)에 태조(太祖) 주원장(朱元璋, 1328~1398)은 단차(團茶)의 제조를 폐지하는 칙령을 내렸다. 이 칙령으로 잎차인 산차(散茶)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차 끓이는 법[음다법(飲茶法)]도 자차법(煮茶法)이나 말차(抹茶)의 점차법(點茶法)이 차잎을 직접 우려 마시는 포다법(泡茶法)으로 점점 바뀌게 되었다. 잎차를 직접 우려 마시는 포다법은 기존의 자차법이나 점차법보다 간편하고 차의 향기를 음미할 수 있어 많은

41) 정영선, 앞의 책, p167.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가장 많이 즐기는 음다법이 되었다. 제다법(製茶法)도 찻잎을 시루에 찌서 만들던 증청법(蒸靑法)에서 솥에 볶아 만드는 초청법(炒靑法)이 개발되어 유행하였다.

『다신전』 등초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송해경은 다도교육의 목적, 새로운 초청산차 제다법의 발견, 『동다송』 저술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sup>42)</sup>으로 보고 있다. 초의는 『다신전』을 통해 우리보다 발달한 중국의 잎차 제다법과 음다법을 우리나라 다인들과 일반 승려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초의가 당시에 주로 만들었던 차는 병차(餅茶)였다. 그러나 『다신전』은 명나라 때 장원의 『다록』을 원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다법에 있어 찻잎을 솥에 볶는 초청법(炒靑法)과 음다법에 있어 완성된 산차를 뜨거운 물에 우려서 마시는 포다법(泡茶法)에 관한 내용이였다. 그러므로 초의는 『다신전』의 등초를 통하여 새로운 제다법과 음다법을 익히게 되었으며, 단순한 등초를 넘어 우리나라에 새로운 제다법과 음다법을 소개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또한 초의의 『다신전』은 『동다송』 저술의 기초가 되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당시에 맞는 제다법과 음다법이 필요한 시점에 이 책을 접하고 등초를 했으리라 사료된다.

## (2) 내용

『다신전』은 차 생활을 익히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입문서이자 차 생활에 필요한 지침서이다. 육우(陸羽)<sup>43)</sup>의 『다경(茶經)』은 병차(餅茶)<sup>44)</sup> 중심의 제다법과 차 끓이는 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으나, 『다신전』은 명(明)·청(靑) 이후에 발달한 잎차[엽차(葉茶)] 중심의 제다법과 보관법, 그

42) 송해경, 『초의 「다신전」 등초의 차문화사적 의의』, 2013, p.38.

43) 육우(陸羽):당나라 때 다성(茶聖)이며, 처음으로 차의 이론을 정립하여 『다경(茶經)』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인류 최초의 차의 전문서로, 3권 10장으로 정리했다.

44) 병차(餅茶):삼국시대 이후 유행한 차의 종류로, 찻잎을 시루에 찌서 절구에 찼어 떡모양으로 만든 덩이차이다.

리고 물 끓이는 방법과 마시는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초의도 이 『다신전』을 통해 이론과 실재가 정립된 차생활을 했고 그로 인해 차정신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본다.

『다신전』의 목차는 「채다(採茶, 찻잎 따기)」, 「조다(造茶, 차 만들기)」, 「변다(辨茶, 차 분별하기)」, 「장다(藏茶, 차 보관하기)」, 「화후(火候, 불 조절하기)」, 「탕변(湯辨, 끓인 물 분별하기)」, 「탕용노순(湯用老嫩, 탕의 노수와 순수)」, 「포법(泡法, 우리는 법)」, 「투다(投茶, 차 넣기)」, 「음다(飲茶, 차 마시기)」, 「향(香, 차의 향기)」, 「색(色, 차의 색)」, 「미(味, 차의 맛)」, 「점염실진(點染失真, 오염되면 차의 본성을 잃음)」, 「다변불가용(茶變不可用, 변질된 차는 사용하지 않음)」, 「품천(品泉, 샘물 품평하기)」, 「정수불의다(井水不宜茶, 우물물은 찻물에 부적당함)」, 「저수(貯水, 물 저장하기)」, 「찻잔(茶盞)」, 「식잔포(拭盞布, 찻잔 닦는 행주)」, 「다위(茶衛, 차의 운용)」의 22항목<sup>45)</sup>과 발문(跋文) 등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채다(採茶)」, 「조다(造茶)」, 「탕변(湯辨)」, 「정수부의차(井水不宜茶)」, 「다위(茶衛)」 등을 통해 초의가 자신의 차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sup>46)</sup>

이에 장원의 『다록』, 『만보전서』의 「채다론」, 그리고 초의의 『다신전』을 비교해보면 『다록(茶錄)』은 23항목, 1,422자(字)로 되어 있는데, 『만보전서』의 「채다론」은 제22항인 「분다합(分茶盒)」의 17자(字)가 빠져서 22항목으로 되어 있고, 『다신전』은 『만보전서』의 「채다론」을 정서(正書)했으므로 『만보전서』의 「채다론」과 동일하며, 『다록』의 제23항의 「다도(茶道)」가 내용은 그대로인데, 『다신전』에는 「다도(茶道)」를 「다위(茶衛)」로 바꾸어 제22항이라 쓴 것이 다르다.<sup>47)</sup>

45) 김수인, 『초의스님과 차』,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p.253.

46) 박동춘, 앞의 책, pp.85~86.

47) 정영선 편역, 『동다송』, 너럭바위, 1998, pp.164~165.

### (3) 판본

『다신전』은 초의가 친필로 쓴 『일지암본』과 다예관(茶藝館)에 소장된 법진본(法眞本), 그리고 일본인(日本人) 가입일웅(家入一雄)이 쓴 『조선의 차와 선』에 수록된 것이 있었다. 다신전의 원본인 장원(張源)의 다록본(茶錄本)과 만보전서(萬寶全書)의 원문(原文)이 있을 뿐이다. 초의가 친필로 쓴 『일지암본』은 일지암에 소장되어 있었으나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고 있다.<sup>48)</sup>

### 2) 『동다송(東茶頌)』

『동다송』은 7언 절구, 68행으로 구성된 짧은 송 형태의 글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차나무의 재배 생리나 생육 환경뿐 아니라 중국차과 우리차의 역사, 우리차의 우수성, 그리고 초의만의 독특한 차정신 등이 간결하면서도 종합적으로 설명되어 있다.<sup>49)</sup> 『동다송』은 다도를 물은 홍현주에게 변지화를 통해 차의 덕을 칭송한 다시(茶詩)이다.

『동다송』의 의미를 살펴보면 ‘동다의 동’은 ‘동국(東國)’ 즉, ‘조선’을 지칭하고, ‘동다(東茶)’란 ‘동국의 차(茶)’ 즉, ‘조선의 차’의 일반적인 통칭이며, ‘송(頌)’은 어떤 대상의 덕을 칭송하기 위해서 시경(詩經)의 육의(六義)에서 중의 문체 형식을 빌린 것이다. 초의는 『초의선과(草衣禪課)』에서 “송(頌)은 그 의를 드러내 칭송하여 그 오묘한 요점을 가려 뽑아 원류를 소통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50)</sup> 즉 『동다송』은 초의가 조선의 차의 덕을 드러내 칭송하고자 차의 오묘한 이치를 가려 뽑아 차의 원류를 이 땅에 알리고자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48) 석용운 스님, 앞의 책, pp.292-293.

49) 송해경, 『『동다송』의 새로운 연구』, 지영사, 2009, p.5.

50) 용운, 『초의선사전집』, 아세아문화사, 1985, p.342. “송자송선기요묘 소통원류(頌者頌選其要妙 疏通源流)”

(1) 저술 동기

『동다송』의 저술 동기는 「해거도인에게 올리는 글: 상해거도인서(上海居道人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근래 북산도인[北山道人: 전라도 진도부사(珍島府使)인 변지화(卞持和)]이 와서 당신의 가르침(부탁)을 받들어 나에게 다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침내 옛사람들이 전한 뜻에 의거하여 삼가 『동다행』 한 편을 지어 바칩니다.” 51)

『동다송』을 쓴 연대는 「해거도인에게 올리는 글」의 서두에 ‘정유(丁酉) 하(夏)’라 되어 있으므로 1837년 여름에 완성했으며, 방대한 주해(註解)로 보아 그보다 훨씬 전에 준비한 것으로 추측된다. 즉 초의는 52세에 『동다송』을 완성하였는데, 이때는 다산을 만난 지 28년이 지난 후였고, 『만보전서』를 등초하기 시작한 지 9년 뒤이며, 다산이 별세한 지 3년째 되는 해이다. 따라서 초의는 자신의 다도관이 원숙해진 후에 『동다송』을 저술한 것이다.

초의(草衣)는 홍현주의 부탁으로 차의 역사와 우리차의 역사를 간추려 정리하였다. 즉 차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압축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로 지은 작품이다. 초의는 『동다송』을 완성하고 자신의 심경과 그동안의 경위를 담아 홍현주에게 편지로 보냈다. 전해오는 각종 다서(茶書)들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뽑아 인용하고, 말미에 우리차에 관한 내용을 붙인 시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에 『동다송』은 ‘한국의 다경(茶經)’이라 불리는 차의 전문서라고 하겠다.

51) “승교수문다도 수의고인소전지의 근술동다행일편진헌(承敎垂問茶道 遂依古人所傳之意 謹述東茶行一徧進獻)” 용운 편, 『초의선사전집(草衣禪師全集)』 「상해거도인서(上海居道人書)」, 아세아문화사, 1985, p.309에서 재인용.

## (2) 제목 및 체제

이 글의 원전을 살펴보면, 1906년에 펴낸 목활자본<sup>52)</sup> 『초의시고(草衣詩藁)』에는 『동다송』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보다 16년 전인 1890년에 필사된 월여 범인 편집, 원응 계정이 정서한 필사본<sup>53)</sup> 『일지암문집』과 『문자반야집』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동다행』으로 되어 있다. 그런가하면 석오(石梧) 윤치영(尹致英)이 쓴 『초의시고』의 발문에는 초의와 노니는 자리에서 썼다고 하면서 『동다행』이라 하지 않고 『동다송』이라 하였다. 이를 보면, 초의가 홍현주에게 쓴 『동다행』 원본을 생전에 이미 『동다송』이라 고쳐 써서, 주변에 배포하고 다도를 널리 알리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행(行)과 송(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행’이란 악부(樂府)에서 변화된 한시의 종류로 음악에 맞춰 부를 수 있게 한 시가(詩歌)를 말한다. ‘송’은 시(詩)의 여섯 가지 체(體)인 육의(六義), 즉 풍(風)·부(賦)·비(比)·흥(興)·아(雅)·송(頌) 중의 하나로, 작품 양식상의 하나도 되지만 흔히 덕을 칭찬하는 글로 쓰였다. 불교에서 ‘송’이란 예불 직전에 외우는 종송(鍾頌)과 같이 범어 ‘가타(伽陀)’를 말하는 것으로, 계(偈) 혹은 계송(偈頌)으로 외우기 쉽게 구(句)로 지어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를 뜻한다. 따라서 『동다행』을 『동다송』이라 해도 무리가 없다. 그리고 유가의 시(詩)를 불가에서는 계(偈)라고도 하기에, 『동다송』은 다도의 길잡이인 다게로서 불가의 승려들에게 널리 전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해경은 초의 『동다송』을 짧은 송 형태의 글<sup>54)</sup>이라 하여 17송으로 보고 있다. ‘행’이나 ‘송’은 둘 다 자구(字句: 문자와 어구)·압운(押韻: 운을 다는 것)·용사(用詞) 등이 대체로 자유로운 형식이므로 칠언절구의 『동다송』이 11절부터는 9자에서 11자로 길어진 구가 있다.

52) 김봉호역, 『초의선집(草衣選集)』, 경서원, 1977. p.32.

53) 용운편(龍雲編), 『초의선사전집(草衣禪師全集)』, 아세아출판사, 1985. p.30.

54) 송해경, 『「동다송」의 새로운 연구』, 지영사, 2009, p.5.

‘송’의 의미는 초의가 『선문염송집』 서문에 명확하게 규정하기를 “송이라는 것은 그 뜻을 찬송하고 펼치며, 핵심을 가려 뽑아 원류에 소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동다송』은 차의 뜻을 찬송하고 펼치며, 차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가려 뽑아 차의 원류에 대해서 명확히 소통하기 위해 쓴 시가 된다. 해당한 원전 본문의 중간에 협주(夾註) 형식으로 끼워 넣어, 시의 행간에 압축된 의미를 상세히 알 수 있게 배려했다. 이 저술은 많은 다서와 자신의 증험을 토대로 완성되었다.

이 저술의 체제와 내용을 보면 각 송구(頌句)마다 주(註)를 달아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옛 고전(古典)인 『다경(茶經)』, 『다서(茶序)』, 『신이기(神異記)』, 『만보전서(萬寶全書)』 등 여러 문헌에 걸쳐 인용하여 초의의 차이론이 고인소전지의(古人所傳之意)에 어긋나지 않음을 증명했다. 우리 차에 관한 기록이 희귀한 상황에서 『동다송』은 더없이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sup>55)</sup>

『동다송』을 쓴 대의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차는 인간에게 더없이 좋은 약과 같으니 차를 마셔야 함을 강조했다. 둘째, 우리 차[동다(東茶)]는 중국차에 비해서 육안차의 맛이나 몽산차의 약효를 모두 겸비하고 있어서 맛이나 약효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 셋째, 차는 현묘(玄妙)하고 지극(至極)한 경지에 이르니 다도(茶道)라 칭하였다.<sup>56)</sup>

### (3) 판본

『동다송』은 네 종류가 있는데, 첫째, 초의가 친필로 써서 홍현주(洪顯周)에게 보낸 것, 둘째, 초의의 친필로 일지암(一枝庵)에 보관했을 것으로 사료되는 『일지암 소장본』, 셋째, 신헌구(申獻求)가 필사해서 박영희(朴暎熙)가 소장한 후 박중환(朴鐘漢)을 거쳐 태평양 다예관(茶藝館)으로 넘어간

55) 류건집 주해, 『동다송 주해』, 이른아침, 2009, pp.15~16.

56) 석용운 스님, 『초의선사의茶香기』, 도서출판 초의, 2009, p.176.

『다예관본(茶藝館本)』, 넷째, 석오(石梧) 윤치영(尹致英)이 필사한 『석오본』이 있다. 첫째와 둘째는 초의의 친필본으로 아직 발굴되지 않았고, 셋째와 넷째는 필사본으로 발굴되었다. 이 중에서 백과거사 신헌구의 필사본은 가로 14cm, 세로 17cm인 한지(漢紙) 20장, 본문은 35면으로 되어 있다. 이 필사본은 1975년 3월에 김봉호에 의해 문학사상(文學思想) 통권 30호에 최초로 번역하여 소개되었고, 그 뒤 동년(同年) 11월에 최범술(崔凡述)이 그의 저서인 『한국(韓國)의 다도(茶道)』에 부록으로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1977년 11월 30일에는 김봉호가 『초의선집(艸衣選集)』에 번역하여 수록했다. 1979년 12월 25일에 박종한(朴鐘漢)이 『다도(茶道)』에 『동다송』과 『다신전』을 함께 번역하여 수록했다. 1980년 12월 3일에 김미희(金美熙)가 『한국다도총서(韓國茶道叢書)』 제1집에 『다경(茶經)』, 『다신전』과 『동다송』의 원문만을 영인하여 수록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영인·번역되었고 『동다송』의 원본처럼 귀하게 여겨져 왔다.<sup>57)</sup>

『석오본』을 쓴 석오(石梧) 윤치영(尹致英)은 초의의 시집(詩集) 발문(跋文)에서 이르기를, “초의의 『동다송』 한 편은 육우의 『다경(茶經)』과 막상막하이다(又東茶頌一篇 與桑苧書相上下)” 라고 하여 초의의 『동다송』이 육우의 『다경』과 비교해서 하나도 손색이 없는 ‘한국의 다경’이라고 예찬했다.<sup>58)</sup>

57) 석용운 스님, 위의 책, p.159.

58) 석용운 스님, 앞의 책, p.177.

### Ⅲ. 차문화와 콘텐츠

#### 1. 차문화

‘차’란 차나무(*Camellia sinensis* (L.) O. Kuntze)의 싹·잎·어린 줄기를 원료로 특정한 가공 공정에 의해 만들어 음용 및 식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차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차란 차나무의 잎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정의된다. 즉 차나무의 잎을 덪거나 찌서 제조한 녹차, 차나무의 잎을 발효시켜 제조한 홍차, 차나무의 잎 등과 다른 곡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차, 그 밖에 차나무의 잎, 열매 또는 꽃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차가 포함된다.<sup>59)</sup>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해 녹차를 분류하면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에 따라 우전, 곡우, 세작, 중작, 대작으로 표시된다. 우전은 해당 연도 기상 조건에 따라 전반적으로 평년에 해당하는 절기상 곡우(穀雨) 이전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2엽을 사용한 것이다. 곡우(穀雨)는 절기상 곡우 또는 곡우 이후 7일 이내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2엽을 사용한 것이다. 세작(細雀)은 절기상 곡우 이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3엽을 사용한 것이다. 중작(中雀)은 5월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3엽을 사용한 것이다. 대작(大雀)은 6월 이후에 채취한 차나무 잎을 사용한 것이다.

한편 녹차를 표시함에 있어 절기상 곡우 또는 곡우 후 7일 이내에 첫 번째 채취한 1심2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제조한 제품에는 ‘곡우(첫물차 또는 1번차)’, 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첫 번째 채취한 1심2엽의 차나무 잎으

---

59)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로 가공·제조한 제품에는 ‘세작(첫물차 또는 1번차)’, 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두 번째 채취한 1심3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제조한 제품에는 ‘세작(두물차 또는 2번차)’, 5월에 두 번째 채취한 1심3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제조한 제품에는 ‘중작(두물차 또는 2번차)’ 로 표시할 수 있다.<sup>60)</sup>

경상남도, 보성군과 하동군의 조례에서는 ‘차’란 차나무 잎 등을 이용하여 다리거나 우려 마실 수 있도록 한 음료나 재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차산업법 제2조 4항에 ‘차문화’는 차나무의 재배와 찻잎의 채취, 가공, 평가, 저장, 판매, 이용, 다도 등 차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 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으로 정의되고 있다.<sup>61)</sup>

구체적으로 차문화는 차나무를 가꾸고 찻잎을 따서 제다하여 차를 마시는 과정에 있어 차와 인간의 문화를 중심으로 찻일[차사(茶事)] 전반에 걸친 동양 고유의 전통생활문화이다. 찻자리의 분위기를 즐기며, 차의 성품이나 차도구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차를 마시는 마음가짐을 통해 예절 바른 생활과 풍류의 멋을 가꾸는 것이다. 차를 음미하는 찻자리[차실(茶室)]에는 차를 마시는 차도구[다구(茶具)]와 함께 소박한 찻자리 꽃[다화(茶花)]과 차와 함께 먹는 다과(茶菓) 등이 준비되고, 분위기에 따라 음악과 춤이 무르익으므로 차문화는 일종의 종합문화예술로 발전되어 왔다.<sup>62)</sup> 또한 차문화는 사람들의 차에 대한 생생한 경험들이 축적된 흔적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생성된 문화유산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자연환경과 담박소쇄(淡泊瀟灑)한 선조들의 미감이 침잠된 ‘맑고 시원하며 소박하고 온화한’ 차의 원형적 특성은 한국의 차문화가 자랑할 만한 특수성이다.<sup>63)</sup>

60)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6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62) 오미정, 『차생활 문화개론』, 하늘북, p.96.

63)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ea-tea.co.kr>

## 2. 차문화 콘텐츠

콘텐츠(contents)란 영어 단어인 콘텐츠(content)의 복수형이다. 단순한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그릇을 채우는 내용물이나 보고서 혹은 책의 목차 등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문화산업진흥법에서는 콘텐츠를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의 자료 또는 정보<sup>64</sup>)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콘텐츠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획된 문화적인 내용물을 뜻한다. 즉 문화콘텐츠란 문화의 원형 또는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잠재성, 원형성, 활용성)를 찾아내어 매체(on-off line)에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 과정<sup>65</sup>)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개념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차문화 콘텐츠의 개념을 차문화를 매개로 구성되는 콘텐츠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초의 차문화 콘텐츠는 초의와 관련된 차문화의 원형 또는 차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잠재된 의미와 활용가치를 찾아내어 매체에 결합하는 새로운 차문화의 창조 과정으로 개념화한다. 또한 그 차문화 콘텐츠를 공간 콘텐츠, 축제 콘텐츠, 브랜드 콘텐츠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첫째, 공간 콘텐츠는 공간에 구성되는 가시적, 비가시적 내용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간의 물리적(hardware), 비물리적(software) 구성의 내용으로 각각 구분될 수 있다. 문화공간 콘텐츠는 문화를 매체로 공간에서 구성되는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콘텐츠로 정의내릴 수 있다. 세부적으로 문화공간 콘텐츠를 하드웨어적 범위에서 해석해보면, 전시·교육·체험·행사·집회·

64) 문화산업진흥기본법(약칭:문화산업법) 제1장 제2조(정의) 3항 참조.

65) 심승구, 한국술문화의 원형과 콘텐츠화, 인문콘텐츠학회, 인문콘텐츠학회 2005 학술 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2005, p.55.

위락 등의 기능에 따라 구성되는 전시 공간·세미나실·미디어실·공연장·강당·카페 등의 인프라가 이에 속하며 공간 내에서 장소와 연계되는 시설과 공간 내 형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적 범위에서 해석해보면 문화공간의 프로그램인 지역문화 행사·박람회·페스티벌·전시문화 기획 등이 이에 속하며, 공간과 이용자들 간 상호작용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인프라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문화공간의 물리적인 형태 속에서 전개되는 사건(event)·시간(time)적 성격을 가진 스토리를 의미한다.<sup>66)</sup>

둘째, 축제 콘텐츠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가 콘텐츠와 결합하여 문화콘텐츠로 사용되고 있듯이 축제도 콘텐츠와 결합하여 축제 콘텐츠라는 새로운 용어가 되었고 축제와 관련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축제 콘텐츠의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축제에서의 ‘콘텐츠’ 개념을 정확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콘텐츠의 의미가 분야별로 담는 내용물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제 콘텐츠의 콘텐츠는 단순히 축제 내용을 방문객에게 전달하는 내용물로서의 축제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문화콘텐츠로서의 콘텐츠를 의미한다고 본다. 축제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서 정보화사회의 새시대적 패러다임과 기술발전에 따른 창조산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제에서의 콘텐츠란 어떤 소재나 내용에 복합적 매체<sup>67)</sup>를 활용하여 문화적 요소<sup>68)</sup>를 부여한 문화상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문화상품이란 새로운 아이디어의 결합일 수도 있고 기획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이다. 현재 축제 콘텐츠는 광의의 개념으로는 축제 자체를, 협의의 개념으로는 축제 속의 콘텐츠(축제요소 또는 프로그램)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축제 콘텐츠를

66) 이영주, 이병훈, 지역문화공간 설립을 위한 문화공간 콘텐츠 연구, 한국디자인학회논문집 14(1), 2019. p.33.

67)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다양한 매체(문자, 그림, 영상 등)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미디어

68) 문화산업에서의 문화적 요소란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을 말한다.

위의 두 가지의 개념으로 명확히 해야만 축제 개발에 있어 정체성과 독창성을 담은 축제로 지역발전을 위해 성공적인 축제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종합하면 축제 콘텐츠란 축제와 관련된 문화적 요소와 특성(창작, 유통, 소비)을 담은 복합적 매체로서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이라 하겠다.<sup>69)</sup> 축제 콘텐츠를 분류(표 III-1)하면 첫째, 형태에 의한 분류로 참관형 축제 콘텐츠와 체험형 축제 콘텐츠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참관형 축제 콘텐츠는 축제 참여자가 단순히 행사를 관람하는 축제 콘텐츠를 말하고, 체험형 축제 콘텐츠는 축제 참여자가 직접 참가하여 체험하는 축제 콘텐츠를 말한다. 둘째, 성격에 의한 분류로 주제성 축제 콘텐츠와 비주제성 축제 콘텐츠로 나눌 수 있다. 주제성 축제 콘텐츠는 축제의 주제가 반영된 콘텐츠이고, 비주제성 콘텐츠는 축제 주제가 반영되지 않은 콘텐츠이다.<sup>70)</sup>

<표 III-1> 형태와 성격에 의한 축제 콘텐츠의 분류

분류 방법	분류	내용
형태에 의한 분류	참관형 축제 콘텐츠	단순히 행사를 관람하는 콘텐츠
	체험형 축제 콘텐츠	직접 참가하여 체험하는 콘텐츠
성격에 의한 분류	주제성 축제 콘텐츠	축제의 주제가 반영된 콘텐츠
	비주제성 축제 콘텐츠	축제 주제가 반영되지 않은 콘텐츠

출처: 차정현, 축제콘텐츠 성공요인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p.32의 내용을 본 연구자가 재구성.

한편 축제 콘텐츠는 행사 유형에 따라 주제 콘텐츠, 의례·시연 콘텐츠, 강연 콘텐츠, 체험 콘텐츠, 전시·판매 콘텐츠, 경연 콘텐츠, 공연 콘텐츠로 일곱 가지로 나눌 수 있다(표 III-2). 여기서 주제 콘텐츠는 그 축제의 주제(Thema)를, 의례·시연 콘텐츠는 개막식, 각종 제전, 폐막식 등에 관련된 행사를, 강연

69) 차정현, 축제콘텐츠 성공요인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p.32.

70) 맹혜영, 축제주제의 의미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21. 재인용.

콘텐츠는 세미나, 컨벤션, 심포지엄 등 학술 관련 행사를, 체험 콘텐츠는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직접체험과 간접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전시·판매 콘텐츠는 전시를 통해 정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각종 전시 관련 프로그램을, 판매 콘텐츠는 지역의 특산물, 특산품, 기념품,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관련 행사를, 경연 콘텐츠는 각종 경연대회 관련 행사를, 공연 콘텐츠로는 가요제, 예술제 등 볼거리 위주의 행사를 말한다.

<표 III-2> 행사 유형에 의한 축제 콘텐츠의 분류

분류	행사 유형
주제 콘텐츠	그 축제의 주제
의례·시연 콘텐츠	개막식, 각종 제전, 폐막식 등 관련 행사
강연 콘텐츠	세미나, 컨벤션, 심포지엄 등 학술 관련 행사
체험 콘텐츠	체험 관련 행사(직접체험, 간접체험)
전시 콘텐츠	정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
판매 콘텐츠	특산물, 특산품, 기념품, 식음료 등 판매 관련 행사
경연 콘텐츠	각종 경연대회 관련 행사
공연 콘텐츠	가요제, 예술제 등의 볼거리 위주의 행사

출처: 차정현, 축제콘텐츠 성공요인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p.33.의 내용을 본 연구자가 재구성함.

셋째, 브랜드 콘텐츠(branded contents)는 브랜드의 메시지를 녹여 소비자에게 공감과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콘텐츠로 정의할 수 있다. 한수진은 브랜드드 콘텐츠(branded contents)는 브랜드에 관한 콘텐츠로서 소비자가 상업적인 목적을 어느 정도 묵인한 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광고로 정의하였다. 즉 브랜드 콘텐츠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제작된 내용물에 대해 소비자가 그 제작의 목적을 인지하고 브랜드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메시지를 포함한 콘텐츠를 흔쾌히 받아들여 즐기는 문화콘텐츠

인 것이다.<sup>71)</sup> 위의진<sup>72)</sup>은 브랜드 콘텐츠는 직접 흥미위주의 콘텐츠를 제작,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좀 더 친밀도가 높은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상준<sup>73)</sup>은 문화콘텐츠가 정서적, 지적 만족을 준다는 점과 끊임 없는 내적 교감이 객체의 감정 변화를 유발하여 정신적 고양을 준다는 점에서 브랜드 콘텐츠 역시 소비자로 하여금 공감과 즐거움을 향유하게 하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브랜드 콘텐츠는 산업적 측면에서 활용되고 문화상품 그 자체가 브랜드 메시지의 접점으로 활용됨으로 문화콘텐츠의 성격을 지닌다고 논의하였다. 이는 브랜드 콘텐츠가 문화콘텐츠 산업 영역에 포함된다는 함축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때는 문화콘텐츠의 성격과 속성을 고려하여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브랜드 콘텐츠는 초의가 정립한 제다 방법에 근거해 제작되는 차 브랜드로 초의의 차문화에 관한 메시지를 녹여내 소비자가 그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 콘텐츠로 개념을 정의하기로 한다.

### 3. 선행연구

선행연구로 초의와 관련된 공간과 축제 그리고 브랜드 콘텐츠를 자료로 살펴보고자 했으나 초의의 축제 콘텐츠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먼저 초의의 차문화 공간에 관련하여 현영조<sup>74)</sup>는 조선시대를 살다간 지식

71) 한수진, 브랜드 콘텐츠 인게이지먼트 구성요소가 소비자 공감,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브랜드 콘텐츠 웹 드라마 영상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pp.8-10.

72) 위의진, 브랜드 콘텐츠가 소비자 공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17.

73) 이상준, 브랜드 콘텐츠의 속성 및 활용방안 연구- TV 광고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18.

인 중 대표적인 차문화 공간을 지역별로 문헌과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 연구한 결과, 호남문화권에서 고산, 다산, 초의의 차문화 공간을 문헌과 비교해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부분의 차문화공간은 그 지역에서 자연환경에 순응하려는 사상이 뚜렷하여 풍수지리사상을 기초로 터를 잡고 건물을 배치하고 건축 내외부를 자연계와 연계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초의의 차문화 공간으로는 일지암을 들고 있는데 그 주변의 자연경관 속에 폭 묻혀 있는 듯한 일지암을 둘러보고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임을 논하고 일지암의 건축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선일여라는 의미를 일지암에서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차문화 공간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일지암은 ‘다선초정(茶禪草亭)’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한국의 전통적 차문화의 대표로 최소한의 정제된 공간으로 평가했다. 또한 일지암과 그 주변은 자연과 공존하는 풍수생태적 차문화공간(風水生態的 茶文化空間)으로 기술했다.

노재현<sup>75)</sup>은 대둔사 일지암 다정(茶庭)의 원형적 모습을 고찰하였다. 일지암의 공간구성과 정원요소를 현재의 것과 비교하여 일지암의 조영에 있어서 진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초의(艸衣)’와 ‘일지(一枝)’라는 상징어와 시문 속의 단서와 정황을 살펴볼 때 초의 생존 시에는 소요(逍遙)와 선취(仙趣)를 지향한 자득(自得)의 공간이었던 일지암은 매우 고졸(古拙)하면서 원대한 조망과 탈속(脫俗)의 미학을 동시에 갖춘 다정(茶庭)이었던 것으로 보았다. 일지암은 초의의 선과 차가 행해졌던 다선일여의 공간으로서 장소성·역사성·조형성·경관성을 연계하여 복원의 진정성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논의하였다. 일지암의 왜소화와 다정으로서 면모를 왜곡시키고 있는 가장 큰 위협들로는 진입로의 확장, 법당과 설림당의 건립 등을 지적하고 복원된 일지암은 원형 복원이라기보다는 장소 복원으로 보고

74) 현영조, 조선시대 대표적 지식인의 차문화공간 연구-고산, 다산, 초의를 사례로-, 한국차학회 7(3), 2001, pp.8-12.

75) 노재현, 두륜산 대흥사 일지암 다정(茶庭)의 일고찰(一考察)- 시문과 현황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30(3), 2012, p.98.

국내 차문화 공간들의 사례를 조합하고 유추하여 재건(再建)된 것으로 보았다. 상·하지 연못은 방지(方池) 형태로 재건되어야 할 것이 요구되며 죽림(竹林)은 차밭 조성을 위해 제거된 것으로 보아 원래대로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된다고 했다.

브랜드로서 초의차의 제다법을 고찰한 정서경<sup>76)</sup>은 초의가 주석했던 대둔사를 초의차의 제다공간으로 설정하고 대둔사 주변을 현장조사 통하여 대둔사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이후 사하촌을 이루고 살았던 제다인들과 후손들의 구술 조사를 병행하여 초의-범해-원응-응송으로 내려오는 대둔사의 제다법을 기억하여 같은 방법으로 초의차를 만들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현장 조사를 중심으로 문헌 기록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초의차의 제다법을 정리하였다.

박동춘<sup>77)</sup>은 초의는 차 이론을 정립하여 초의차(草衣茶)를 완성함으로써 대흥사(大興寺)에 전해오는 사원차(寺院茶)를 복원하고 차문화를 중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초의차는 경호사족들에게 차의 가치와 우리차의 우수성을 알려주고 차의 본연의 가치를 드러내 그와 교류했던 이들의 심신을 안정시켜 주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초의차는 심폐를 시원하게 하여 답답한 울화나 번뇌를 씻어 주는 원형적인 가치를 특징으로, 완성 시기는 대략 1840년 이후로 보고, 차를 즐기는 이들의 기호와 열의가 함의된 차라 하였다.

정서경<sup>78)</sup>은 초의차의 전승맥락을 고찰하여 초의차는 우리 차의 근간이고 한국차의 원형일 뿐 아니라 우리 차문화 전승의 원론이라고 평하고 전승맥락을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초의차의 정의와 초의의 다풍 전승을 논하여 초의의 다법은 범해, 원응, 금명, 그리고 응송에게 계승되었으며 지금에 와서 박동춘이 전승을 담당하고 있음을 밝혔다.

---

76) 정서경, 초의차의 제다법 고찰: 고전기록과 문헌 속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9, 2016, pp.205-243.

77) 박동춘, 초의선사의 초의차 완성과 그 영향, 한국사상과 문화, 86, 2017, pp.219-242.

78) 정서경, 대둔사 찻독 초의차의 전승맥락, 한국사상과 문화 86, 2017, pp.243-278.

## IV. 초의(艸衣)의 차문화 콘텐츠 사례 분석

### 1. 공간 콘텐츠

공간 콘텐츠는 초의의 생애 및 교유관계와 연관된 사건이 담긴 차문화 공간의 콘텐츠로 정의하였다. 이에 초의의 공간 콘텐츠는 초의가 탄생한 시기부터 시간적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초의선사 유적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초의길 30에 위치한 초의선사 유적지가 바로 초의의 탄생지로 무안군과 함께 초의와 초의차에 관한 연구 및 전승에 힘쓴 석용운의 지난한 노력이 빛을 발하는 곳이다. 초의는 1786년 4월 5일에 전라남도(全羅南道) 무안군(務安郡) 삼향면(三鄉面, 현 삼양읍) 왕산리(旺山里)에서 태어났다.<sup>79)</sup> 이곳이 지금 초의선사 유적지가 위치한 곳이다. 그는 어린 때 부분을 삼향면에 있는 구산(舊山) 근처에 마련한 새집에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의 출가 동기에 대해서는 세상에 알려진 바가 없다. 15세에 출가를 결심하고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의 공간인 셈이다. 그가 고향의 옛집을 다시 찾은 것은 1843년으로, 고향을 떠난 지 40여 년만의 일이었다. 다음의 「귀고향(歸故鄉)」은 초의가 고향을 찾아가 그의 감회를 읊은 시이다.

멀리 고향을 떠난 지 40여년

遠別鄉關四十秋

79) 석용운 스님, 『초의선사의茶香기』, 2009, p.260.

머리가 하얗게 센 줄도 모르고 (고향에) 다시 돌아왔네.	歸來不覺雪盈頭
옛집은 풀에 덮여 사라졌는데 내 살던 집은 어디에 있는가	新基草沒家安在
오래된 무덤가 걸을 적마다 수심이 일렁이네.	古墓苔荒履跡愁
마음이 쇠잔해졌으니 한(恨)인들 어디에서 일어나며	心死恨從何處起
몸이 이미 늙었으니 눈물조차 흐르지 않네.	血乾淚亦不能流
외로운 몸 다시 구름 따라 떠나려 하니	孤筇更欲隨雲去
아! 이 몸으로 고향 찾음이 부끄럽구나.	已矣人生愧首邱

초의가 살았던 옛집은 수초로 덮여 벌써 흔적조차 사라졌다. 떠날 때를 마음속에 그리며 고향을 찾았으나 “머리가 하얗게 센 줄도 모르고 다시 돌아왔네.” 라는 구절에서는 세월의 무상함마저 느껴진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형제의 묘소를 참배하며 무덤가를 서성일 때 꿈속에서도 그리던 옛집에서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을 것이다.<sup>80)</sup>



<사진 IV-1> 초의선사유적지

80) 박동춘, 『맑은 차 적멸을 깨우네』, 동아시야, 2012, pp.23~25.

## 2) 운흥사

운흥사(雲興寺)는 전남 나주시 다도면 암정리 965번지에 위치하며 덕룡산 동쪽 기슭에 있는 사찰로, 신라 효공왕(孝恭王:재위897~912) 때 도선국사(道선國師)가 도성암(道成庵)이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운흥사의 연혁은 1711년의 『덕룡산 운흥사 사적』, 1775년의 『운흥사 진여문 중창기』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 두 차례에 걸쳐 중창되었고 조선시대에 1573년(선조 6), 1684년(숙종 10), 1758년(영조 34)에 세 차례에 걸쳐 중수되었다. 초창기에 불렀던 도성암은 응점사(熊岾寺)로 개칭되었고, 16세기 이후 응치사(熊峙寺)로 개칭되었으며, 18세기 후반부터 운흥사로 다시 개칭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다도(茶道)’란 낱말이 지명으로 사용된 곳은 불회사(佛會寺)와 운흥사(雲興寺)가 있는 전남 나주군 다도면뿐이다. 이곳에는 특수 행정 구역인 소(所)가 있었다. 소(所)는 신라 말 이후 왕실과 관아에서 필요한 각 지역의 수공업, 광업, 수산업 분야의 공물을 생산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나주의 다소(茶所)는 차를 만들어 바치던 곳이다. 고려시대의 다소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고다소(古茶所)’라고 기록되어 있다. 19개의 다소 가운데 남평현도 포함되어 있는데 초의의 출가지인 운흥사도 그 당시 남평현에 소속된 곳으로 야생 차밭이 있었고 이런 지리적 조건에서 운흥사로의 출가 인연은 후일 초의의 차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리라 짐작된다.<sup>81)</sup> 무안의 초의선사 유적지가 세속적 고향이라면, 나주의 운흥사는 초의선사가 승려로서의 기본적인 공부를 통해 세속적 삶에서 출세간적 삶으로 전환하는 출가의 고향이자 운흥사 주변의 무성한 야생차나무들과의 인연으로 차 생활의 기초를 닦았던 다도(茶道)의 출발지였던 것이다.

---

81) 김수인, 『초의스님과 차』,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pp.30~31.

본 사례조사 과정에서 운흥사로 가는 길은 너무도 험하고 좁은 길이었다. 길을 따라 한참을 가는 길에 스님 한 분이 내려오고 조금 더 가니 익살스런 나주 운흥사 석장승(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양정리 954, 중요민속자료 제12호)이 양쪽으로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해탈문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잡초가 우거져 더 이상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곳을 지나 대웅전에 도착했으나 아무런 인기척도 느낄 수 없고 법당문은 잠겨 있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로 우리나라의 다성(茶聖)으로 추앙받는 초의가 출가한 장소이자 다도면이라는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야생 차밭이 형성된 역사적 근거지로 차문화에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내문이나 활동들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 IV-2> 초의의 출가지인 운흥사

### 3) 월출산

월출산(月出山)은 전남 강진군 성전면과 영암군 영암읍의 경계에 위치한 산으로, 삼국시대에는 달이 난다 하여 월라산(月奈山)이라 하고, 고려시대에는 월생산(月生山)으로 부르다가 조선시대부터 월출산으로 불려왔다. 깎아지르듯 기암절벽이 많아 예로부터 영산(靈山)으로 불리며 뾰족한 바위산과 깊은 골짜기를 따라 폭포와 유적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이에 얽힌 수많은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서해에 인접해 있어 달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이라 하여 월출산이라 불린다.

이곳 월출산은 초의의 깨달음의 매개체인 보름달을 본 곳이다. 초의가 19세(1804년, 순조 4년) 무렵 “월출산을 지나다가 그 월출산의 수려함과 기이함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그 산봉우리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다. 바다에서 떠오르는 보름달을 보며 고노<sup>82)</sup>가 훈풍을 만나듯 명하여 찰나에 가슴에 맺힌 것이 풀렸고 이후부터 가는 곳마다 걸림이 없었다.” 고 한 곳이다.<sup>83)</sup>

### 4) 대흥사<sup>84)</sup>

해남 대흥사(大興寺)에는 초의의 발자취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부도전 안에 있는 초의탑과 부도비, 북원에 있는 대웅보전, 남원에 있는 적묵당(寂默堂) 앞 초의매, 정보박물관 옆에 세워진 동다송비, 정보박물관 2층에 있는 초의관, 초의선사 동상, 별채인 대광명전과 동국선원, 그리고

82) 고노(杲老)는 송나라 때에 간화선(看話禪)을 주장한 대혜종고(大慧宗杲) 선사를 말한다.

83) 의순, 앞의 책, 권하(한불전10, 869중), “약관과월출산 애기기수 불각중보독제기령 망견만월 출해 황약고노지우훈풍 거각애응지물 자시이왕 소우무소오자(弱冠過月出山 愛其奇秀 不覺縱步獨躋其嶺 望見滿月出海 恍若杲老之遇薰風 去却碍膺之物 自是以往 所遇無所忤者)”

84) 초의가 생존해 있는 동안 사찰의 이름은 대둔사(大菴寺)였고, 범해 각안이 생존해 있을 때는 대흥사(大興寺)로 개명하였다.

복원된 일지암 등이 있다.

대홍사는 두륜산도립공원에 있는 절이며 대둔사(大菴寺)라고도 하는데,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대홍사길 400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22교구의 본사이다. 대홍사만큼 절 이름이 자주 바뀐 곳도 드물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대홍사이지만 창건 때 대둔사 이었다가 조선 초 대홍사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중후기에 다시 처음 이름인 대둔사로 돌아갔다. 그래서 초의 당시에는 조선후기에 해당하므로 대둔사였는데 이때 『대둔사지』라는 절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사지(寺誌)가 편찬되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에 다시 대홍사로 바꾸게 되었다. 그러나 1992년에 대홍사라는 이름은 일제의 잔재라는 말이 나와 다시 대둔사로, 2004년부터 지금까지는 대홍사로 확정되어 불리고 있다.<sup>85)</sup> 본 논문에서도 대홍사로 표기하겠지만, 대둔사로 지칭되었을 때의 옛 기록을 인용하거나 문맥상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원문대로 대둔사로 제시하겠다.

동다송비의 음기(뒷면)에는 대홍사의 창건된 시기에 신라의 쟁관존자(爭觀尊者)가 창건하여 만일암이라 하였고, 514년 화도화상이 창건하였다고 하는 『죽미기』의 기록과 875년 도선대사(道詵大師)가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500 사찰을 짓는 것이 좋겠다고 상소하였는데 대홍사도 그 중에 하나라는 설 등이 모두 망라되어 기록되어 있다.

일찍이 서산대사가 “전쟁을 비롯한 삼재가 미치지 못할 곳(三災不入之處)으로 만년동안 훼손되지 않는 땅(萬年不毀之地)” 이라고 하여 그의 의발(衣鉢)을 이곳에 보관한 이래로 대홍사는 한국 불교의 종통이 이어지는 곳이 되었으며 한국 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 도량으로 변모하여 13대종사(大宗師)와 13대강사(大講師)가 배출되었다. 그리고 13대종사 가운데 한 사람인 초의로 말마암아 대홍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차문화(茶文化)의 성지로

---

85) 민병천, 두륜산 대홍사, (재)대한불교진흥원, 2011, pp.36~39.

불리게 되었다. 넓은 산간분지에 위치한 대흥사는 특이한 가람 배치를 갖고 있다. 절을 가로 지르는 금당천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에 각각 당우들을 배치하였는데, 다른 절의 가람배치 형식과는 달리 당우(堂宇)들을 자유롭게 배치해 독특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흥사 사찰 경내는 대흥사를 관통하는 금당천을 기준해 북원에는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명부전, 응진전, 산신각, 침계루와 백설당 등이 위치하고, 남원에는 천불전을 중심으로 용화당, 봉향각, 가허루, 세심당, 적목당 등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남원 왼편으로 서산대사를 모신 사당인 표충사 구역과 동국선원 내에 대광명전 구역이 있다.<sup>86)</sup> 별원으로 가는 길목의 오른편에는 성보박물관, 동다송비와 초의동상이 있다.



<그림 IV-1> 대흥사의 초의에 관한 공간 안내도

86) 대흥사 홈페이지 [www.daeheungsa.co.kr](http://www.daeheungsa.co.kr).

(1) 초의탑(草衣塔)과 초의선사탑비

‘두륜산 대흥사’ 라는 현액이 걸린 일주문(一柱門)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면 해탈문에 다다르기 전 가는 길에 오른편에 나지막한 담장이 둘러쳐진 부도전이 보이는데 이 부도전에는 대흥사의 13대종사와 13대강사 그리고 여러 고승들의 부도와 탑비가 가득하다. 국내 사찰 중에 최대 규모인 부도 56기, 탑비 17기가 이곳에 있다. 부도란 한 수행자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열반한 후에 그의 사리를 봉안한 석물로 이곳에 초의탑과 초의선사탑비가 있다.

신헌이 찬한 「사호보제존자초의대종사의순탑비명」을 보면, 초의선사탑비는 추사의 제자인 추금(秋琴) 강위(姜瑋, 1820~1884)가 대신 지은 것이다. 그리고 비문은 신헌의 아들인 향농(香農) 신정희(申正熙, 1833~1895)가 썼으며, 세우기는 일제 때 석전(石顛) 박한영(朴漢永, 1870~1948)이 세웠다.<sup>87)</sup>



<사진 IV-3> 초의탑과 초의선사탑비

87) 석용운 스님, 『초의선사의茶香기』, 도서출판 초의, 2009, p.260.

(2) 대웅보전(大雄寶殿)

대흥사의 금당으로 팔작지붕에 앞면 5칸, 옆면 4칸의 규모를 하고 있다. 대웅보전에 관하여 『대둔사지』와 『대둔사대웅전중건기』에 1667년 심수(心粹)대사가 3년 동안 중건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보면 이미 그 이전부터 대웅전이라는 이름의 금당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의 건물은, 1899년에 불이 나 1901년에 법한(法翰)스님이 새로 지은 것이다. 물론 그 이후에도 몇 번에 걸쳐 보수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조선후기의 모습을 훼손하지 않은 채 잘 간직되어 있다.



<사진 IV-4> 이광사의 글씨인 「대웅보전」

무엇보다도 눈여겨 볼 것은 처마 아래에 걸린 「대웅보전(大雄寶殿)」이라는 편액의 글씨이다. 조선후기의 명필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 1705~1777)가

행서체로 쓴 것으로 그의 자유분방함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이 글씨를 두고 초의와 추사 김정희와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전한다.

1840년 추사 김정희가 제주로 유배 갈 때의 이야기다. 그는 귀양길에 평소 친분이 두터운 초의를 만나기 위해 대흥사를 들렀다가 대웅보전 처마 아래에 걸린 이 글씨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낫겠다고 권유했다. 힘이 없고 속기(俗氣: 속계의 공통된 기풍) 가득한 글씨라는 것이었다. 스스로 「무량수각(無量壽閣)」이라고 쓰고 그것으로 바꾸라고 하기 까지 했다. 하지만 대흥사 스님들이 보기에는 이광사의 글씨도 명필로 유명한지라 쉽사리 바꾸지 못하고 그냥 두었다. 9년 후에 추사가 유배에서 풀려나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초의를 만나려고 대흥사에 들렀다가 다시 이 글씨를 보게 된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처음 보았을 때와는 달리 한참을 응시하던 추사는 예전에 자신이 잘못 보았던 것을 인정하고 초의에게 이광사의 글씨가 명필이라고 했다. 이 일화는, 젊은 시절 자신의 능력과 재주만을 최고로 생각하다가 인생의 모진 세파를 겪은 뒤 심성이 겸손해지고 심안(心眼)이 트인 사람을 말할 때 즐겨 인용되는 이야기다. 여기서 추사 김정희의 글씨인 「무량수각」은 현재 백설당에 「백설당(白雪堂)」이란 편액과 나란히 걸려있다.<sup>88)</sup> 백설당은 대웅보전을 바라보고 있는 자리에서 왼쪽에 있는데 이 「백설당」의 편액은 해사(海士) 김성근(金聲近, 1835~1919)의 글씨다. 대흥사 해탈문 앞에 걸린 「두륜산(頭輪山) 대흥사(大興寺)」와 「명부전(冥府殿)」도 그가 썼다.<sup>89)</sup> 추사 김정희의 진필인 「무량수각」, 「대광명전」, 「명선」 이 세 작품의 진필은 성보박물관 1층에 따로 보관 중이다. 또 추사의 글씨라고 전하는 「명선(茗禪)」은 제주도 귀양지까지 찾아온 초의의 정성에 감동한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건물마다 처마 아래 명패마냥 내걸린 편액 글씨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sup>90)</sup>

88) 민병천, 『두륜산 대흥사』, (재)대한불교진흥원, 2011, pp.140~143.

89) 민병천, 위의 책. p.163.

### (3) 초의매

대흥사 해탈문을 지나 무염지를 지나 곧바로 보이는 남원에 위치한 적묵당(寂默堂) 앞에 수령이 200년이 되어 높이는 4.5m에 이르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 이는 초의선사가 심은 매화나무로 이를 ‘초의매(草衣梅)’라 한다. 하지만 이는 승려들이 조용히 수행하는 장소여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초의의 다재다능한 면모를 이 매화나무를 통해 알 수 있다. 그가 조경에도 조예가 깊었다는 것은 『수방보』라는 책을 통해서도 가늠이 가능하다.



<사진 IV-5> 초의가 심었다는 초의매

### (4) 동다송 기념비

동다송 기념비는 2007년 8월 11일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에 의해 대흥사 경내 성보박물관 광장 우측에 건립되었다.

---

90) 민병천, 위의 책, p.144.

이 비의 음기에는 이 비를 세운 취지를 “『동다송』은 기록(記錄)이기에 다인(茶人)이며 사상(思想)이기에 민족(民族)의 미래(未來)다. 이에 역사(歷史)의 유계(流繼)가 명원문화재단(茗園文化財團)의 이념(理念)으로 전승(傳承)되니 차문화(茶文化)의 종가(宗家)로 성업(成業)하고자 하여 명원(茗園) 이대(二代) 이의정은 모친인 명원(茗園) 김미희(金美熙)가 일지암(一枝庵)을 복원하였듯이 이 비(碑)를 세우니 다문화의 바른 정착(定着)에 기여(寄與)하고자 한다. 차(茶)로써 차(茶)는 귀하고, 차(茶)는 차(茶)로써 중용(中庸)이고, 차(茶)는 차(茶)로써 신의(信義)이고 차(茶)는 차(茶)로써 오렴과 새로움의 경계를 허물지니 『동다송』이 표현하고자 했던 차(茶)의 사상(思想) 깊은 향진(向進)의 모든 의지(意志)를 추려내니 비(碑)를 세우는 명원(茗園) 김미희(金美熙)의 참뜻으로 통(通)하고자 한다.” 고 기록하고 있다.



<사진 IV-6> 동다송비

(5) 성보박물관

해탈문을 지나 무염지에서 우측으로 가면 바로 보이는 기와 건물이 성보박물관이다. 이곳은 1층과 2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박물관의 1층은 대흥사가 소장한 국보급 보물을 모아 놓은 성보관으로 초의의 평생에 지우었던 추사 김정희 걸작 편액들도 있는데 모각본이 아니라 모두 진필이다. 「일로향실(一爐香室)」과 「동국선원(東國禪院)」 그리고 「무량수각(無量壽閣)」으로 이 가운데 「동국선원」은 걸작으로 칩 붓으로 쓴 편액이다.



<사진 IV-7> 초의관이 있는 성보박물관

성보박물관 2층에 위치한 초의관에는 초의에 관련된 그림과 글씨, 초의가 생전에 사용한 다완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초의에 관한 설명인 대흥사 차의 역사, 초의선사의 행장(行狀), 초의의 차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개최되는 초의문화제, 시(詩)·서(書)·화(畵)·다(茶)에 능한 사절(四節)에 관한 내용들이 벽보로 설명되어 있다(표 IV-1).

<표 IV-1> 초의에 관한 벽보의 내용

구분	벽보의 내용
대홍사 차의 역사	<p>대홍사가 있는 해남 땅은 서기 1530년 증보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조선 중기의 학자 어숙권이 쓴 『고사촬요(攷事撮要)』에 차산지로 명기되어 있다. 또한 『여지도서(輿地圖書)』와 『고사신서(攷事新書)』에도 분명하게 해남 땅이 차산지로 기록되어 있다. 대홍사의 차가 지리지(地理誌)가 아닌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청허 휴정 스님이 쓴 『청허당집(淸虛堂集)』이다. 청허스님이 차를 마시고 음다풍을 익힌 것은 스님이 지리산의 여러 사찰과 대홍사에 머물렀을 때로 추측된다. 청허스님이 대홍사에 주석할 당시 해남 두륜산에서 ‘차’가 재배되고 있었으므로 대홍사에서 차를 만들어 마시는 음다풍이 일상적으로 행해졌을 것이다. 이는 청허스님 이래 대홍사에 주석한 고승과 대덕(大德)들이 남긴 다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홍사의 13대종사 가운데 7명이, 13대 대강사 가운데 2명이 다시를 남겼다. 즉 13대종사 가운데 4대 월저도안 대종사가 1편, 5대 설암추봉 대종사가 10편, 6대 환성지안 대종사와 10대 상월새봉 대종사가 각각 1편, 11대 함월해원 대종사가 4편, 12대 연담유일 대종사가 5편을 남겼으며, 13대 초의의순 대종사가 25편 29수 외에 『동다송(東茶頌)』과 『다신전(茶神傳)』 그리고 산문 2편을 남겼다. 또한 13대강사 가운데는 아암혜장 대강사가 5편 8수, 13대 범해각안 대강사가 20편의 다시 외에 차와 관련된 산문 1편을 남겼다. 대홍사의 13대종사나 13대강사는 아니지만 다시를 남긴 대홍사의 스님이 있는데, 초의선사보다 5살 아래인 철선혜즙(鐵船惠楫:1791~1858) 스님이 3편, 대홍사에서 출가하여 초의선사에게 보살계를 받은 보계심여(普濟心如:1828~1875) 스님이 2편, 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걸쳐 송광사와 대홍사에서 활동한 금명보정(錦溟寶鼎:1861~1930)스님이 60여 편을 남겼다.</p>
초의선사(艸衣禪師)의 행장(行狀)	<p>초의선사는 1786년(조선 정조 10년)에 전남 무안군 삼향면에서 태어났으며 속성은 홍성 장(張)씨이고 법명은 의순(意恂)이며 호는 초의(艸衣)이다. 5세 때 강변에서 놀다가 급류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 마침 인근 사찰의 스님에 의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 스님이 출가할 것을 권해 15세가 되던 해 나주시 남평에 있는 운흥사로 출가하였으며 19세 때에 해남 대홍사(대둔사)에서 완호(玩虎)스님으로부터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탕화를 잘 그렸으며 한</p>

	<p>국 최고의 근대 화가인 소치 허련(小痴 許鍊)이 초의선사 문하에서 그림을 배웠다. 서예는 천의무봉(天衣無縫) 바로 그것이었다. 완당 김정희(玩堂 金正喜) 등 당대의 석학들과 종교와 신분을 초월하여 교류하였다. 39세 때 대흥사 뒤편에 일지암(一枝庵)을 창건하고 이곳에서 『초의선과(艸衣禪課)』, 『동다송(東茶頌)』, 『다신전(茶神傳)』 등을 저술했다. 1866년(조선 고종 3년) 서쪽을 향하여 가부좌를 하고 홀연히 입적하여 세수(世壽) 81세요 법랍(法臘)은 66세였다. 여기서 법랍이 66세로 65세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p>
<p>초의문화제 (草衣文化祭)</p>	<p>우리나라 차문화의 중흥조(中興祖)이며 시(詩), 서(書), 화(畫)의 달인이었던 초의선사의 다도(茶道)정신을 기리는 초의문화제는 큰절 대흥사와 일지암 일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주요행사로는 초의선사 영정 앞에 다인들의 뜻과 마음을 차에 담아 바치는 의식인 헌다를 비롯하여 행다시연(行茶試演), 백제차 재현, 들차회, 산사음악제, 차사진 전시회, 차 만들기 등이 있으며, 그 밖에 한국화그리기, 차 이야기[다담(茶談)], 차음식전시회, 차시전시회, 다구전시 및 기타 판매 행사 등이 있다. 특히, 2008년부터 찾아오는 봄철과 초의선사의 탄생시기에 맞추어 개최시기를 조절하였으며 많은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문화축제이다.</p>
<p>4절(四絶)</p>	<p>조선 후기의 예술을 말할 때 시(詩)·서(書)·화(畫)를 잘하면 3절이라고 말하는데 초의선사는 시(詩)·서(書)·화(畫)·다(茶)의 4절(四絶)에 능하였다. 지금 해남 대흥사를 비롯하여 인근 사찰에 소장되어 있는 탕화의 거의 대부분이 초의선사의 작품인 것으로 봐서 그의 화격(畫格)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남아있는 탕화 중에 대흥사 소장인 「사십이수관세음보살」은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걸작이다. 단청으로는 대흥사(대둔사)의 「대광명전·대응보전·천불전 단청」이 있으며, 그림으로는 「강진의 다산초당 원경」, 「다공양도」, 달마산 미황사 응진당 내부의 「나한도」와 「관세음보살상」이 있다. 또한 초의선사의 서예는 어느 서체에 속한다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글씨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거친 듯하면서도 자연스런 멋이 풍겨 나온다. 초의선사는 실제 선사의 생애에 대략 180여 편의 시를 썼다고 전해진다. 그 외에 선사의 글은 여러 분야를 넘나들고 있으며, 선사가 여러 가지의 제문이나 상량문, 불교에 관한 글 또는 서문이나 발문 등을 합치면 사는 동안 참으로 많</p>

	은 글을 썼다. 이뿐 아니라 초의선사는 탕화와 단청, 범패, 바라, 그리고 사찰 음식에까지 여러 방면에 재주가 많았다. 이 같은 기록은 초의선사의 『수방보』라는 책에서 알 수 있으며 여기서는 승복의 침선법, 사찰음식 조리법, 난을 기르는 법, 조정법, 지병을 치료하는 투약법, 역술, 택일법, 목공법, 도요법 등 오늘날 생활 백과사전의 역할을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	--

#### (6) 초의동상

성보박물관 바로 원편 뒤쪽에는 바로 초의선사의 동상이 자리해 있다. 동상에는 ‘초의대선사상’ 이라고 새겨져 있으며 차(茶) 한 잔을 앞에 두고 가부좌를 튼 채 한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다른 한 손에는 염주를 손에 들고 있는 노년의 모습이다.

동상 밑으로 몇 계단을 내려오면 우측에 설치된 표지석에는 다음과 같이 ‘초의선사의 발자취’ 라는 제목으로 한국차를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한 다도의 중흥조로서 초의를 소개하고 있다. 초의는 당시의 진보적 지식인들과 함께 새로운 정신문화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한사람의 차인(茶人)으로서 한국차를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한 다도의 중흥조이다. 또한 초의는 대둔사와 그 부속암자인 일지암에 머물면서 한국차의 고전이라 일컬어지는 『동다송』을 편찬을 통해 우리 차문화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복원했을 뿐만 아니라 차를 손수 만들어 당대 사상가들에게 한국차의 맛과 정신을 알게 했다. 차와 선(禪)의 세계가 하나로 통하는 초의의 대선일미(茶禪一味)의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선(禪)과 차(茶)를 통하여 차문화의 향기를 심어준 초의와 만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사진 IV-8> 초의동상

(7) 대광명전(大光明殿)과 동국선원(東國禪院)

표충사에서 동쪽으로 약 300m 되는 자리에 대광명전이 있다. 맞배지붕에 앞면과 옆면 각각 3칸씩으로 된 건물로 전라남도유형문화재 94호로 지정되어 있다. 대광명전 구역에 선원의 요사채인 수심당을 들어서면 중앙의 대광명전을 중심으로 동국선원, 벽안당과 요사채가 있다. 이곳은 대흥사에서 선원(禪院)에 해당하는 구역이다.

동국의 최고의 선원이란 뜻을 갖고 있는 「동국선원」의 현판은 초의가 추사의 방면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추사가 써준 편액이다. 대광명전은 1841년(헌종 7년)에 초의가 제주도에 유배가 있는 추사의 방면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 추사 김정희의 제자이자 당시 전라수군절도사였던 위당(威堂) 신관호(申觀浩, 1810~1888)의 도움으로 건립했다고 전한다. 초의는 이곳에서 다선일여(茶禪一如)를 실천하며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사진 IV-9> 대광명전과 동국선원

(8) 일지암(一枝庵)

산내암자란 본사 경내에 있지 않고 주변 산속에 별도로 자리하며 행정적으로 본사에 소속된 크고 작은 암자이며 일지암도 그러한 산내암자에 해당된다.

성보박물관을 지나 동국선원으로부터 500m 지점에 주 등산로와 일지암으로 가는 길이 갈라지는데 이곳부터 경사가 가파른 길을 500m 더 올라가야 일지암 앞의 차밭이 나온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탁 트인 전망은 평생에 막힘이 없었던 초의의 개오를 느낄 수 있다. 아스팔트가 그곳까지 깔려 있어 차를 이용하면 쉽게 올라갈 수도 있다. 숲속도서관 옆의 계단을 오르면 자우홍련사(자우산방)가 나오는데 그곳은 초의선사의 살림채로, 연못에 작은 돌들을 첩첩이 쌓아올린 네 개의 돌기둥으로 만든 누마루 건물이다. 그 위에는 손님을 맞이하는 찻자리가 펼쳐져 있고 그 옆으로 연못에는 맑은 물이 흐른

다. 바로 옆에 초암(草庵)인 일지암과 그 옆 뒤편으로는 김노경이 예찬한 최고의 물맛을 자랑하는 유천(乳泉)이 흐른다.

일지암 앞에 세워진 안내문에는 다음과 설명하고 있다. 일지암은 시·서·화 삼절(三絶)로 차를 중흥시킨 초의(草衣)가 만년 40년(1826~1866) 동안 살았던 곳이고, 자우산방(紫芋山房)은 그가 삶을 꾸렸던 살림채이다. 이곳에서 차와 선, 시와 그림, 예술과 문화를 하나로 생활화하고 장구한 역사 속에서 차의 교과서로써 유일무이한 『동다송(東茶頌)』과 『다신전(茶神傳)』, 그 외의 많은 책(『선문사변만어(禪門四辯漫語)』, 『이선래의(二禪來儀)』, 『진묵조사유고(震默祖師遺攷)』 등)를 저술하였다. 조선후기 실학의 거두인 다산 정약용, 추사체와 금석학으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 정조의 둘째사위인 홍현주, 병조판서를 지낸 권돈인, 당대 최고의 시인이라 일컫는 자하 신위 등 많은 대석학들과 차(茶)를 매개체(媒介體)로 하여 교파(教派)를 초월한 방외청교(方外淸交)를 맺었던 곳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차문화의 성지로 일컬어지는 곳이다. 특히 진도 운림산방의 주인이었던 소치 허련을 배출하여 남종화의 산실이기도 하다. 소치 허련은 초의와 추사의 두 스승을 인연으로 미산·의재·남농으로 이어지는 남종화의 화풍을 이루었다. 초의가 입적(1866년)한 후 화재로 소실되어 그동안 폐허로 방치되었던 이곳은 차를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뜻을 모아 1979년에 복원되었다. 초의의 시와 간찰(簡札), 소치가 저술한 『몽연록(蒙緣錄)』 등을 토대로 옛 모습을 살리고자 여수에 있던 고가의 목재를 쓰는 등 여러 시도를 한 끝에 조자룡 박사의 설계로 복원되었다. 한국 선다실(禪茶室)의 전형(典型)인 일지암(一枝庵)은 우리가 잘 지키고 가꾸어야 할 문화유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차의 성지로 두륜산 자락에 있는 단출한 산내암자 일지암은 초의가 1824년, 그의 나이 39세 때에 창건하였다. 「일지암을 중수하며」라는 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830년(경인년)에 중수하고 40여 년간 기거하면서 『다신전』을 정리했고, 다서

의 고전인 『동다송』을 저술했다.

일지암(一枝庵)이라는 이름은 장자가 쓴 『남화경(南華經)』에 실려있는 「소요유」의 ‘뱀새는 잠잘 때 한 가지(一枝)에서만 자고 다람쥐는 물을 마실 때 배를 채우지 않는다’는 구절과 「한산시(寒山詩)」의 ‘뱀새는 항상 한마음으로 살기에 나무 한 가지(一枝)만으로도 편안하다’는 구절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한다. 당시 일지암의 모습에 대해서는 『일지암시집(一枝庵詩集)』 서문에 잘 써져 있다. 장춘동은 해남 남방 20 리의 두륜산 일맥으로 용과 호랑이 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산맥은 십구이고 계곡은 구곡이다. 대홍사의 남방이며, 북암에서 불 때는 서쪽이고 남암에서 불 때는 북쪽이다. 이곳에 초당을 지었으니 이름이 일지암이다. 삼간 초당에는 초의와 동자 한 사람, 법당에는 금으로 도금된 부처 일좌(一座)가 있다. 아침저녁의 목탁소리, 샘물과 수목이 서로 의지하고, 죽림(竹林)의 바람소리는 가야금 소리와 같다. 축대를 쌓아 과원(果園)을 만들고, 연못 위에는 나뭇가지를 엮어 포도넝쿨을 틀어 올리고, 정원 주변에는 수석으로 갖추었다.

일지암 창건에 대해 범해는 『동사열전(東師列傳)』의 「초의선백(艸衣禪伯)」에 이르기를, 일지암이 초의가 세상을 피하여 숨어살 곳을 마련하여 두 문불출한 채 40여 년간 지관(止觀)에 진력하였고 그 뒤 수행정진을 위해 지은 토굴인 용마암(龍馬庵)이 있었으며, 다시 종신토록 주석할 막사인 쾌년각(快年閣)을 지었다고 기록하였다.

일지암 복원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된 것은 1976년 10월 5일로, 당시 일지암 복원 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복원 취지문을 작성(1976년 9월 20일)하여 전국 차인들의 참여를 촉구했다.<sup>91)</sup>

일지암 복원취지문을 작성한 후 추진위원회는 현장을 확인하고 원형을 추정하여 설계하기로 하였다. 현장 답사는 복원취지문 작성 전후 10여 차례 실

---

91) 손연숙, 『손연숙의 차문화 기행』, 이른아침. 2008, pp.353~355.

시했는데 해남다인회 회원들, 서울과 부산 등지의 다인들이 대홍사의 스님들과 동행했다. 어느 날 고생 끝에 틀림없이 일지암 터로 알고 가설계도와 자축회도 열었지만 며칠 후 “그 자리는 일지암 터가 아니고 신월암 터” 라고 증언한 사람이 있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상황에서 압담하기 짝이 없었다. 그 이유는 대홍사의 사찰림은 900ha나 되고 그 안에 절터만도 100여 곳이나 되어서 가려내기가 어려웠으며, 대홍사의 승려들과 인근 주민들 중에 일지암을 알고 있는 이들이 모두 작고했기 때문이었다.<sup>92)</sup>

추진위원회에서는 『남다병서(南茶竝序)』, 『몽하편병서(夢霞篇竝序)』, 『대둔사지(大屯寺誌)』 등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고 대홍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승려인 응송 박영희(당시 90세)의 고증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 후 암자터(지금의 자리)를 확정지은 것은 응송과 함께 현장으로 간 1977년 2월 하순이었다. 그 암자터는 대홍사의 대광명전으로부터 동남쪽으로 1700m 거리에 있었는데 낙엽과 토사로 뒤덮여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고 큰 잡목이 우거져 그곳이 과연 일지암 터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으나 산에 오르기 전에 응송과 승려인 낭월 고재석이 말한 백일홍과 두 층으로 이루어진 연못을 확인하고 나서야 확증하게 되었다. 건축 설계는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구조학 박사학위를 받은 에밀레 박물관장이던 조자룡 관장이 담당하였다. 일지암은 5.5평의 정사각형 초가(草家)로 하고 법당 겸 주택은 장차 모임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15.5평의 호즙(互菴)으로 정하고 가설계를 만들었고 1980년 4월 5일에 낙성식을 갖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93)</sup>

일지암의 복원과정에서 얻어진 큰 결실은 한국 차문화의 도약에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과 1979년 일지암 복원을 위해 모인 차인들로 한국차인연합회가 결성되어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것이다.

---

92) 해남다인회. <http://hntea.kr>.

93) 해남다인회.



〈사진 IV-10〉 일지암

(9) 녹차밭과 녹차 체험장<sup>94)</sup>

녹차밭의 소재지는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 4-1이다. 녹차 체험장은 두륜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내 2층에 위치해 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녹차밭과 함께 개장한다. 대홍사 초입에 있는 ‘천년의 향기 두륜산 녹차 체험장’이란 현수막이 걸린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현수막이 초의를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주제로 바꾸었으면 한다. 녹차체험장이 있는 두륜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1층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녹차체험 관리 대장에 성명, 주소, 연락처, 요금(채엽 5000원/ 덫음 5000원)란에 기입하고 녹차 체험 참여자의 명패를 받은 후 2층 체험장에 준비된 플라스틱 바구니를 한 개씩 가지고 차밭으로 올라간다. 1차 2기나 1차 3기를 따서 다시 체험장으로 내려와 녹차 제조 방법에 따라 차를 만든다. 녹차 체험장에는 체험자들을 위해 제다에 필요한 준비가 모두 완비되어 있다. 녹차를 덫는 가마솥 4

94)두륜산 도립공원 홈페이지, <https://duryunsan.kr>.

개, 솥의 온도를 재는 온도계, 솥 주변이 뜨거워 솥 가장자리에 깔거나 1차 덥고 난 후 솥을 닦는 수건들, 덥을 때 필요한 면장갑과 팔 토시, 유념할 때 필요한 멍석과 먼 보자기와 대바구니, 건조할 때 필요한 방충망 문썩과 문썩 거치대, 포장할 때 필요한 저울, 녹차봉지, 밀폐기와 녹차봉지를 담은 종이상자, 그리고 만든 차를 시음할 때 필요한 종이컵과 생수가 준비되어 있다. 이곳 벽면에는 덥음차 제조과정, 녹차체험장 준수사항, 차의 분류, 찻잎의 성분과 효능, 차나무의 종류와 구조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사례조사 결과 시음장은 있으나 그곳에는 종이컵만이 준비되어 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방 하나가 나오는 데 그곳에는 다기가 마련되어 있으나 단체장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곳을 단체장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으므로 체험객들에게 차 마시는 공간으로 이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녹차밭과 녹차 체험장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체험 신청을 하고 멀리 있는 녹차밭에서 찻잎을 따서 다시 체험장까지 오는 비효율적 공간 배치는 다시 시정되어야 하며, 체험장을 녹차밭 근처의 두륜미로파크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보는 한 방안이라 사료된다.

<표 IV-2> 녹차 체험장의 운영 현황

체험 장소	녹차 밭 및 덥음 체험장 (도립공원관리사무소 2층)
체험 시간	매일 10:00 ~ 17:00
이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차 밭에서 채취한 녹차를 직접 녹차 체험장으로 이동</li> <li>* 녹차 제조 방법에 따라 녹차 덥음 체험</li> <li>* 녹차포장: 가공된 녹차를 30g 단위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kg 덥으면 가공 녹차 300g 정도 생산</li> <li>· 체험자 1인당 포장지 10매 제공</li> </ul> </li> </ul>

출처: 두륜산도립공원 사이트, <https://duryunsan.kr>.



<사진 IV-11> 대흥사 녹차밭 전체 전경

#### 5) 다산초당

강진군 도암면 다산초당길 68-35에 위치한 다산초당은 한국 차문화의 요람이라 부를 수 있다. 굴동마을 뒷산인 다산(茶山)의 이름은 정약용이 이곳에 머물면서 그의 호가 되었고, 이곳에 초암을 지어 다산초당(茶山草堂)이라 하여 다산이 혜장, 초의와 차를 매개로 친교를 맺은 곳이다. 다산은 보은산방(寶恩山房)에서 2년, 그의 제자 이학래(李鶴來)의 집에서 2년을 머물다가 1808년 강진 남쪽 굴동마을의 뒷산인 다산(茶山)에 자리한 외척 해남 윤씨인 윤규로(尹圭魯:1769~1837)의 산간 정자로 거처를 옮겼다.

다산은 1808년 봄, 해남 윤씨 집안의 산정에 놀러갔다가 이곳에 위치한

아늑하고 경치가 아름다운 다산서옥(茶山書屋)은 지난 7년 동안 전전해오던 주막이나 제자 이학래의 집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게다가 가까운 백련사(白蓮寺)에는 절친한 벗인 혜장(惠藏)이 있었고 다산(茶山)은 그 이름 그대로 차나무로 가득했다. 다산은 시를 지어 보내 머물고 싶은 마음을 윤씨 집안에 전했고 이를 허락받게 된다. 이곳에서 그는 10여 년 동안 다산학단(茶山學團)으로 일컬어지는 18명의 제자를 길러냈고 초당을 가꾸는데도 정성을 다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산정은 다산초당으로 거듭 났고, 정약용은 스스로 다산초부(茶山樵夫)로 칭했다. 그 후 1818년 해배될 때까지 10여 년간 그곳에서 지냈다.

현재의 다산초당은 1958년 강진의 지역민들로 구성된 다산유적보존회가 무너진 초당을 1차 복원한 뒤 그 해 사적 제107호로 지정을 받고 1974년에 다산유적복원위원회가 거듭 복원한 것이다. 지금의 다산초당은 기와집이지만, 다산이 살았던 당시에는 초가지붕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배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간 다산이 그의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초당과 동암 서재의 지붕에 새로 이엉은 없었느냐’ 라는 대목으로 이를 알 수 있다.

현재 초당에 오르면 전후와 좌우에 마루가 있는 정면 3칸과 측면 1칸의 기와집인 다산초당을 중심으로, 서재인 동암(東庵)과 제자들의 숙소인 서암(西庵)이 자리하고 있다. 동암에는 「보정산방(寶丁山房)」 과 「다산동암(茶山東庵)」 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이 둘 다 추사의 글씨이다. ‘정약용을 보배롭게 모시는 방’ 이라는 뜻의 「보정산방」 현판은 동암을 복원할 때 추사가 직접 쓴 글씨를 확대하여 모각한 것이며, 「다산동암」 은 추사의 글씨를 집자해 만든 것이다.

초당 뒤편 커다란 바위에는 유배지에서의 외로움을 잊고자 다산이 직접 새긴 ‘정석(丁石)’ 이라는 두 글자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초당의 모퉁이에는 다산이 찻물로 길어 오던 샘인 약천(藥泉)과 연못인 연지석가산

(蓮池石假山), 차를 달이던 돌 부뚜막인 석조(石竈)가 보존되어 있다. 이 네 개의 유적을 가리켜 다산사경(茶山四景)이라 부르는데, 다산은 이에 대해 각각 시를 남겼다.

동암의 뒤쪽으로 백년사 넘어가는 산길을 가다가 천일각(天一閣)을 만난다. 천일각은 하늘 끝 한 모퉁이라는 천애일각(天涯一閣)의 준말로 다산이 이곳 언덕에 올라 흑산도에 유배 중인 형 정약전을 그리워한 마음을 담아서 강진군에서 1975년에 세웠다고 한다. 천일각에서 백련사까지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은 혜장이 다산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만든 길이라고 한다. 약 800m의 오솔길이 나 있는 이 산이 다산(茶山)으로, 그 이름에 걸맞게 길 주변에 키 작은 야생 차나무들이 가로수인양 자라고 있다. 이곳에서 다산은 두 번째 깊은 인연인 초의를 만났다. 1809년에 초의는 혜장의 소개로 다산과 첫 만남을 가졌다. 당시 24세의 초의는 24살 차이의 다산을 스승으로 삼아 유학과 시도(詩道)를 배웠다. 초의는 다산을 일컬어, ‘덕업이 나라에서 으뜸가고 문질이 빛나는 스승’이라 했고, 그를 만난 기쁨을 ‘하늘이 내게 맹자 어머니 같은 이웃을 내려주셨다.’고 했다.<sup>95)</sup>

---

95) 손연숙, 『손연숙의 차문화 기행』, 이른아침, 2008, pp.306~318.



<사진 IV-12> 다산초당

#### 6) 칠불사

칠불사는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528에 위치한 지리산 토끼봉의 해발고도 830m 지점에 있는 사찰로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동시에 성불(成佛)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01년에 창건되어 가야 불교의 중심 사찰로 성장했다. 칠불사는 신라 효공왕 때 한 번 불을 때면 온기가 100일 동안 간다는 아자방(亞字房)이 있어 더욱 유명해졌다. 그 후 전란으로 소실된 것을 1978년에 제월당(霽月堂) 통광(通光)이 중창(重創)했으나 방문했을 때(2019년 5월)는 완전한 복원을 위해 아자방은 공사 중이었다.

칠불사는 초의가 『다신전(茶神傳)』을 등초한 다도(茶道)의 중흥지로도 커다란 의미를 갖는 곳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월당 통광이 초의선사다신담비를 칠불사 들어가는 초입에 세웠다.



<사진 IV-13> 『다신전』을 등초한 칠불암(현 칠불사)



<사진 IV-14> 칠불암 입구에 있는 초의선사다신탑비

## 7) 수종사

수종사(水鍾寺)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433번길 186에 있는 남한강과 북한강 두 개의 강물이 한강에서 만난다하여 이름 붙여진 양수리 또는 순우리말인 두물 머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운길산 정상에 위치해 있다. 수종사의 창건 연대는 1939년 경내에 있는 세종 21년(1439)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의옹주(貞懿翁主)의 석조부도를 중수하면서 조선 초기 유물이 대거 발견되었으므로 유물이 조성된 시기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그 후 세조 4년(1458)에 왕명으로 크게 중창하여 연혁이 새로 성립하게 되지만 한국전쟁 때 전소되고, 지금의 수종사는 1974년부터 중건한 것이다.<sup>96)</sup>

1830년 가을, 초의는 한양에 와서 수종사에서 다산 부자, 추사와 해거도인 등을 사귀면서 반년을 보냈는데 이 해 겨울, 석옥화상의 시에 차운하여 ‘수종사차석옥화상운(水鍾寺次石屋和尚韻)’ 12수를 남겼고 수종사로 초의를 찾아온 정학연 형제와 광산 박종유는 폭설로 인해 그곳에 머무르며 아회(雅會)를 즐겼는데 강 위로 휘날리는 설경을 감상하며 지은 시의 일부만이 전해진다.<sup>97)</sup>

물맛이 좋기로 소문난 이곳에 어울리는 삼천헌은 수종사에서 마련한 다실로, 차를 안내 글에 따라 직접 우려 마실 수 있는데 초의를 염두하여 마련한 자리로 짐작되며 두물 머리의 경치를 내려다보면서 한 잔의 차를 마시며 그 당시의 풍류를 즐겨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수종사 사적기에는 수종사의 역사를 요약하고, 초의와 인연이 된 공간임을 말미에 적고 있다. 이곳에서 초의, 다산, 추사를 비롯하여 다선묵객들이 함께 모여 담론을 나누며 사회변혁의 꿈이 깃든 곳이라고 적혀 있다.

96) [네이버 지식백과] 수종사 (답사여행의 길잡이 9 - 경기북부와 북한강, 초판 1997, 13쇄 2012, 한국문화유산답사회, 김효형, 김희균, 김성철, 유홍준, 문현숙, 정용기)

97) 박정희, 『한국 차문화의 역사』, 민족원, 2015, p.207.



<사진 IV-15> 수종사의 다실, 삼천현



<사진 IV-16> 초의에 관한 이야기가 수록된 수종사 사적기

## 8) 학림암(鶴林庵)

학림암(鶴林庵, 현 학림사)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에 있는 사찰로, 671년(신라 문무왕 11년) 원효(元曉)가 창건하였다. 1597년(조선 선조 30년)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다가, 1624년(인조 2) 무공(無空)이 중수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쳤다. 학림암은 마치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학포지란(鶴抱之卵)의 형국이라서 학승을 많이 배출하는 지세라고 전해진다.

1815년 초의가 첫 상경에서 평생지기인 추사를 처음으로 만난 곳이 학림암으로 초의와 추사의 교유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1861년 가을, 초의가 쓴 ‘제해봉대사영정첩(題海鵬大師影幀帖)’ 발문에는 이들이 만났던 당시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지난 1815년 해봉 노화상을 모시고 수락산에 있는 학림암에서 한 해의 마지막 겨울을 보내고 있을 당시 하루는 추사가 눈길을 헤치고서 노화상을 찾아와 공(空)과 각(覺)의 소생(所生)에 대해 깊이 토론했다. 하룻밤을 보내고 돌아갈 때 노스님께서 (추사에게) 글을 써 주었다. 이 글에는 ‘그대는 집 밖을 쫓아 다니고, 나는 집안에 앉아 있네. 집 밖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집안에는 원래 번뇌가 없다.’ 라고 하셨다.

1815년 대둔사를 출발해서 한양에 도착한 초의는 수종사에 머물렀는데 그 당시 수종사는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추운 겨울을 이곳에서 지내야 하는 초의의 어려운 처지를 알게 된 정학연은 학림암의 해봉에게 부탁해 초의가 그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초의는 수종사, 학림암 등에서 지내면서 정학연, 김명희, 이노영과 더불어 여러 편의 시를 남겼다.

학림암(현 학림사)는 절 입구에서부터 가파른 길을 한참이나 걸어서 올라 가야 나오는 사찰인데 입구부터 단아한 느낌이다. 두 사람의 만남을 지켜보

왔을 듯한 법당 왼편에 서있는 600년 된 반송(盤松)에는 학이 깃들 것만 같은 기쁨이 가득하다.



<사진 IV-17> 추사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학림암(현 학림사)

#### 9) 제주도 추사 적거지

추사의 적거지(謫居地)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44(대정읍 안성리 166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현재 제주 추사관과 대정 추사 적거지가 함께 있다. 대정 추사 적거지는 대정현 안성리에 있는 강도순의 집을 빌려 유배를 지냈던 곳으로, 추사가 집으로 보낸 서찰에서 밝힌 것을 토대로 1983년에 추사의 유배지 중 가장 오래 지냈던 강도순의 집을 복원하여 그 앞에 추사유물전시관을 세웠다. 이 집은 고증에 따라 대지 60평에 제주도의 말로 안거리, 밖거리, 모거리, 연자마, 이문거리라고 부르는 다섯 채의 초가

로 지었다. 2007년에는 추사유물전시관을 열고, 2010년에 추사의 「세한도」를 본 뜬 모양으로 제주 추사관을 새로 지었다. 추사관 들어가는 입구에는 계단과 함께 추사의 유배길을 표현한 꼬불꼬불한 길이 꽤 인상적이다.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정면으로 1844년 그의 나이 59세에 생애 최고의 명작인 국보 180호 「세한도(歲寒圖)」를 만날 수 있다. 이 서화를 그린 결정적인 이유는 1843년에 이상적인 연경에서 구한 계복(桂馥)의 『만학집(晩學集)』과 운경(惲敬)의 『대운산방문고(大雲山房文藁)』를 추사에게 제주까지 보내주었고, 이듬해인 1844년에 하우경(賀耦耕)의 『황조경세문편(皇朝經世文編)』을 보내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린 작품이다. 또한 이것은 추사의 마음의 이미지를 그린 것으로 갈필과 건묵의 능숙한 구사로 그림에 서려 있는 격조와 문기(文氣)가 생명이다. 그 외에 강진 다산초당의 현판 「다산초당(茶山草堂)」, 제주 대정향교의 「의문당(疑問堂)」, 해남 대흥사의 「무량수각(無量壽閣)」의 탁본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는 추사가 1840년부터 1848년까지 9년간의 유배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강도순의 집을 복원한 적거지(사적487호)로 연결된다. 이곳은 추사가 기거하던 모거리, 학문을 가르치던 밖거리, 집주인 강도순이 살던 안거리로 나누어진다. 제주도 전통 화장실인 통시, 추사관 자체의 의미와 건축학적 스토리, 추사의 뒷이야기 등을 보고 들을 수 있다.

1840년, 추사에게 내린 형벌은 ‘대정현에 위리안치하라’ 였다. 위리안치란 집 주위를 가시울타리로 두르고 그 안에서만 살게 하는 것으로, 천극(梟棘) 죄인이라고 하여 당쟁으로 인한 정치범들이 주로 받았다. 가시 많은 탕자나무는 남해안과 제주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추사는 절도안치(絶島安置: 조선시대에, 죄인을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으로 유배 보내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원악지(遠惡地)인 제주도에서 또 서남쪽으로 80리 더 내려가야 하는 대정현에 위리안치 되었으니 가혹한 이중의 형

별이었다.<sup>98)</sup> 추사가 1840년 9월 4일에 위리안치의 명을 받고 유배지로 가는 길은 전주와 해남 대둔사를 거쳐 완도에서 9월 27일에 거룻배를 타고 제주 화북진 항구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80리 떨어진 대정현까지 가는 기나긴 행로였다.

추사가 대정현에 와서 첫 유배처로 삼은 곳은 대정읍성 안동네(안성리 1682번지) 송계순의 집이었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대정현 안성리 강도순의 집으로 옮겼으며, 또 유배가 끝날 무렵 식수문제로 안덕 계곡에 위치한 대정현 창천리로 한 번 더 옮긴다. 이곳에서 추사와 두 사람의 만남을 주목해야 하는데 한사람은 추사의 제자이자 초의의 제자이며 두 사람의 전령 역할을 한 소치 허련이고, 다른 한 사람은 추사의 평생지기인 초의이다. 소치(小痴)는 추사를 처음 월성위궁에서 만난 것이 1839년 8월이었고, 1840년 8월 20일에 추사가 의금부로 압송된다. 첫 번째 방문은 1841년 2월에 대둔사를 경유해서 추사의 유배지인 제주로 가서 그에게 시·서·화를 배우며 나날을 보낸다. 소치는 중부가 별세하였다는 부음을 받고 대정에 온지 4개월만인 1841년 6월 8일에 추사 곁을 떠난다. 두 번째 방문은 1843년 7월에 대둔사에 있던 소치가 이용현 제주목사와 함께 제주로 들어와서 이용현의 막하에 있으면서 추사의 유배지인 대정과 제주관아를 오가며 필요한 물품을 구해주며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이었다. 세 번째 방문은 추사 회갑 이듬해인 1847년 봄, 추사에게 서화 지도를 받기 위해 온 것이었다.

초의는 1843년 봄, 추사의 상처(喪妻)를 위로하기 위해 제주에 있는 추사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다. 초의의 훗날 「완당김공 제문(祭文)」에서 “제주에서 반년을 한 지붕에서 지냈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 반년을 지내고 간사실을 알 수 있다. 한 지붕 아래 먹고 자던 초의에게 준 시가 몇 편 있는데 「초의에게 주다」라는 시에는 “한 침상에서 다른 꿈 없는 것이 좋기만 하

---

98) 유흥준, 『추사 김정희』, (주)창비, 2018, pp.238~239.

다.” 라고 노래했으며, 한 지붕에 아래 함께 지내던 어느 날 밤 책상에서 글을 쓰고 있던 초의를 바라보며 추사가 쓴 「우사가 연등을 밝히다」라는 시를 지어 주었다. 우사는 일지암의 별칭이자 초의의 별호인 것이다.



<사진 IV-18> 세한도를 본 뜬 제주도 추사관



<사진 IV-19> 추사의 두 번째 적거지인 강도순의 집



<사진 IV-20> 유배지에서 함께 보낸 추사와 초의

## 2. 축제 콘텐츠

초의와 관련된 축제 콘텐츠는 초의의 차문화를 계승 및 발전시키고 있는 축제를 선정하였는데 초의문화제와 초의선사탄생문화제가 그것이다. 이에 축제 콘텐츠는 축제의 행사 유형에 따라 주제, 의례·시연, 강연, 체험, 전시·판매, 공연, 경연 등의 콘텐츠로 분류한 후 분석하였다.

### 1) 초의문화제

초의문화제(草衣文化祭)는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축제가 많지 않던 시기에 일찍부터 초의의 다도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축제이다.

초의문화제의 태동은 1991년 8월 2일(음) 초의선사 제례일에 대홍사 일지암에 모인 해남 다인들<sup>99)</sup>이 초의를 기리는 문화제 개최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다. 1966년부터 차의 종가로서 한국 차문화 발전을 선도해 온 해남다인회가 주축이 된 전국 규모의 ‘초의문화제’ 개최를 결의한 것이다. 그 뒤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준비 작업을 거쳐 1992년 1월 연중계획 수립 시 그 해(제126주기 제례일)에 초의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초의문화제의 취지는 물질문명의 풍요를 누리면서도 쇠퇴해가는 우리의 정신문화를 진작시키는 데 전통 차문화의 향상이 첩경임을 인식하고 다성인 초의선사의 ‘다선일여(茶禪一如)’와 ‘중정(中正)’의 다도정신을 이어받아 민족정신을 고양시켜 차문화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이었다.

1992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19년 현재 28회째 이어지고 있는 초의문화제는 다성인 초의와 차의 성지로 상징되는 일지암의 위상을 정립시키고, 전국적인

---

99) 참석자는 해남다인회장 김제현, 극작가 김봉호, 대홍사 원학 총무스님, 자우다회회장 이순희, 해남군공보실장 윤상열이었다.

차문화 축제로 승화시켜 우리나라의 차문화 발전을 선도하며, 지역 문화자원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정착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초창기 초의선사의 기일에 맞추어 가을철에 개최된 초의문화제는 18회(2009)부터 22회(2013)까지 봄철로 개최시기를 옮겼다가, 다시 23회(2014)부터 가을철에 개최되고 있다. 장소도 대흥사 일원에서 계속 이루어지다가 27회(2018)부터 해남 군민광장으로 장소를 옮겼는데 이는 대중들과 소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초의가 주석했던 일지암이 자리한 대흥사에서 해남읍내로 변경한 것은 그다지 초의문화제의 취지에 맞지 않아 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초의와 선대 차인들에게 올리는 ‘선고 다인 헌다례’를 시작으로, 차문화 발전에 기여한 차인에게 수여되는 ‘초의상’, 차에 관련된 도서발간 및 학술강연, 차학을 전공하고 있는 후학들을 위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논문 공모전, 떡차(녹차) 제다 시연 및 체험, 경연대회, 각종 행다 시연과 들차회, 차 관련 서적·다기·다구의 전시·판매, 지역 특산품 전시·판매와 기타 각종 체험행사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두 해째 차학을 전공하고 있는 후학들을 위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논문 공모전은 개최가 중단된 상황으로 차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인재 양성의 영향을 미쳐 왔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참관한 2017년(제26회)부터 2019년(제28회)까지의 축제 콘텐츠의 행사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 (1) 주제 콘텐츠

제26회는 ‘차와 음악이 어우러진 가을밤 찻자리’, 제27회는 ‘초의와 대중의 만남’, 그리고 제28회는 ‘초의와 차 한 잔’이라는 주제를 담아 개최되었다.

## (2) 의례 · 시연 콘텐츠

제26회 때는 유천수 기르기, 육법공양, 109인 추모를 위한 선고 다인 헌다례를 진행했다. 제27회에는 선비차와 접빈다례 시연을 한국차문화협회 10명이 ‘관람객들에게 차를 올린다’로 준비했다. 유천수 길놀이는 일지암 유천수 헌다례 찻물을 만장2기를 선두로 풍물패가 뒤따르고 유천동의 5명이 행사장을 신명나게 순회한 후에 전달했고, 육법공양을 해남다도대학 학생들 6명과 사회단체장, 기관장, 집행위원장, 내빈들이 함께 헌다했으며, 선고다인 헌다례를 대홍사 보선조실스님, 위원장, 원로다인들이 올렸다. 제28회의 다례시연, 일지암 유천수 길놀이는 초의가 40여 년 동안 기거했던 일지암에서 유천수를 떠서 향아리에 삶어지고 내려오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원로 다인들이 이 유천수를 받아 한담다회에서 직접 차를 끓여 초의선사 영정에 헌다했다. 또한 육법 공양, 선대 다인 109인을 추모하는 선고 다인 헌다례도 엄숙하게 올렸다.

## (3) 강연 콘텐츠

제26회에는 다인들의 『동다송』 암송이 함께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제27회는 금강스님의 「초의차 사상」 강연으로 초의가 누구이며, 어떻게 초의차가 만들어졌으며 초의차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전달했다. 제27회에는 강연이 개최되지 않았다. 제28회는 최한선 교수의 「호남 문화의 속살」이란 인문학 특강이 마련되었다.

## (4) 체험 콘텐츠

제26회는 들차회(전야제), 음악과 어우러진 들차회, 떡차 만들기, 부채·다포 그리기가 이루어졌다. 제27회에는 음악이 어우러진 찻자리에 자우다회, 해남다인회, 초의차보존회, 해남다도대학, 한담다회, 원광다례원이 찻자리를 전야제 행사로 선보였으며, 음악과 들차회를 서난영의 사회로 한국차문화협회

등 20개 팀이 찾자리를 준비했고, 차인과의 다담은 해남군 관내 시회단체 초청 다담으로 진행되었다. 체험 행사로 1만원을 내고 다섯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 떡차 만들기, 부채·다포 그리기, 찻잔 싸개 만들기, 내손으로 찻잔 만들기, 다식 만들기가 진행되었다. 제28회는 차와 음악이 어우러진 사회단체 초청 차인들과의 다담, 사회단체 등 군민들과 전국 다인들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들차회가 진행되었고, 부채·다포 그리기는 해남 미술협회 회원인 국선작가들이 나와서 부채와 다포에 글씨나 그림을 그려주었다. 내손으로 찻잔 만들기는 물레로 다완을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떡차 만들기는 솥에 찻잎을 넣고 7분 정도 쪄 후에 찻잎을 기계에 간 후 절구에 찜어 면보를 틀에 놓고 그 위에 찜은 찻잎을 채워 넣고 잘 누른 후 꺼내어 하나씩 포장해서 가져갔다. 다식 만들기는 다식판에 여러 가지 다식 재료를 넣어 만들었다.

#### (5) 전시·판매 콘텐츠

제26회는 명차 및 도자기상품 전시회, 황토염색, 천연염색, 시골떡거리 장터 운영, 농수특산물 전시·판매가 있었다. 제27회는 해남 농·수산물 특산물 전시·판매를 했다. 제28회는 처음으로 해남전국다도구공모전 수상작과 전국다식경연대회 수상작 작품전시(당일)를 시행했고, 도자기 전시·판매에 류도예공방에서 해남의 역사 깊은 녹청자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또한 해남농·수산물 특산물 전시·판매장에서 우리 해남군에서 나는 것들로 전시되고 판매가 이루어졌다.

#### (6) 공연 콘텐츠

제26회는 국화꽃 속 국악관현악 연주(전야제), 전정민 명창과 함께하는 국악공연이 이루어졌다. 제27회는 전야제 행사로 국화속 국악관현악을 해남서초 땅끝관현악단과 땅끝색소폰동호회가 연주했으며 가수의 초청공연이 있었다.

또한 한정하 명창과 함께하는 국악공연을 초의선사 열반 152주년 기념으로, 서예 퍼포먼스를 백련서예대가의 휘호로 주 무대에서 펼쳐졌다. 제28회는 ‘디노’ 4인조 그룹사운드, 땅끝색소폰동호회의 공연이 전야제에, 『동다송』 휘호 퍼포먼스를 박방영 화가가 선보였으며, 전국 다인들과 어우러진 국악공연에 (사)보성소리마당 국악인들을 초청해 국악과 명창이 어우러진 공연과 원로다인들의 차시 낭송도 진행됐다.

#### (7) 경연 콘텐츠

제26회는 초의상 시상과 차 논문 공모전 시상이 이루어졌다. 제27회는 초의상 시상이 진행되었다. 제28회에는 초의상 시상 외에도 새롭게 마련한 세가지 시상으로 전국차도구공모전 수상작 시상, 전국다식경연대회 시상, 들차회 찾자리 시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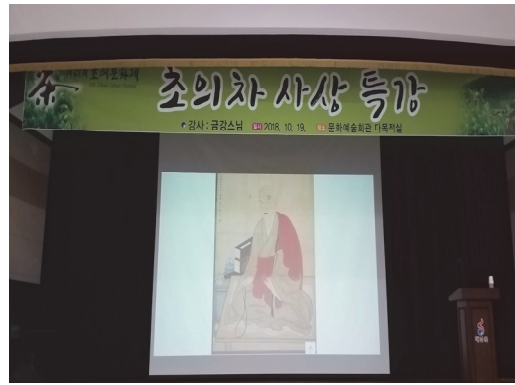
이상으로 살펴본 초의문화제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제27회부터 해남읍내에 서만 개최되고 있어 우리나라 차문화의 성지로 불리는 일지암에서 초의문화제가 이행되지 못하는 점이 재고의 여지로 남는다. 또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논문 시상을 통해 우리나라 차와 차문화의 연구 발전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 중단되어 우려가 되는 바이다. 한편 제28회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차도구 공모전 수상작 시상, 전국다식경연대회 시상 등은 처음으로 시도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 해남의 역사가 깃든 녹청자 작가들의 활발한 활동과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3> 초의문화제의 축제 콘텐츠 분류

분류	제26회(2017년)	제27회(2018년)	제28회(2019년)
주제	차와 음악이	초의와 대중의 만남	초의와 차 한 잔

콘텐츠	어우러진 가을밤 찾자리		
의례 · 시연 콘텐츠	유천수 기르기, 육법공양, 선고 다인 헌다례	선비차, 접빈다례, 유천수 길놀이, 육법공양, 선고 다인 헌다례	다례시연, 일지암 유천수 길놀이, 초의선사 영정 헌다, 육법 공양, 선고 다인 헌다례
강연 콘텐츠	금강스님과 함께 『동다송』 암송	금강스님의 “초의차 사상”	최한선 교수의 “호남 문화의 속살”
체험 콘텐츠	들차회(전야제), 음악과 어우러진 들차회에서 차 마시기, 떡차 만들기, 부채·다포그리기	음악과 들차회 (차인과의 다담), 떡차 만들기, 부채·다포그리기, 찰잔 싸개 만들기, 내손으로 찻잔 만들기 (호리병, 찻잔 등), 다식 만들기	차와 음악이 어우러진 사회단체 초청, 차인들과의 다담, 전국 다인들의 들차회, 부채·다포 그리기, 내손으로 찻잔 만들기, 떡차 만들기, 다식 만들기
전시 · 판매 콘텐츠	명차 및 도자기상품 전시회, 황토염색, 천연염색, 시골먹거리 장터운영, 농수특산물전시·판매	해남 농·수산물특산물 전시·판매	해남전국다도구공모전 수상작, 전국다식경연대회 수상작 작품 전시, 도자기 전시·판매, 해남 농·수산물특산물 전시·판매
공연 콘텐츠	국화꽃 속 국악관현악 연주(전야제), 전정민 명창과 함께하는 국악공연	국화속 국악관현악, 가수 전미경 초청공연(전야제), 한정하 명창과 함께하는 국악공연,	디노 4인조 그룹사운드, 땅끝색소폰동호회 공연(전야제), 『동다송』 휘호 퍼포먼스,

		서예 퍼포먼스	전국 다인들과 어우러진 국악공연, 다인들의 차시 낭송
경연 콘텐츠	초의상, 차 논문 공모전 시상	초의상	전국차도구공모전 수상작 시상, 전국다식경연대회 시상, 들차회 찾자리 시상



<사진 IV-21> 제27회 초의문화제(2018)

## 2) 초의선사탄생문화제

초의선사탄생문화제는 전남 무안군이 2019년 5월 11일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초의선사유적지 일원에서 초의선사의 탄생 제23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했다. 사례조사에 의거해 축제 행사 유형에 따라 주제, 의례·시연, 체험, 전시·판매, 경연 콘텐츠로 분류해 정리하였다.

### (1) 주제 콘텐츠

‘선다일여(禪茶一如)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2019년에 16회째 개최된 초의선사탄생문화제는 조선후기 다도의 선구자이자 다성(茶聖)으로 추앙 받고 있는 초의의 탄생일을 맞이해 초의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이다.

### (2) 의례·시연 콘텐츠

행사 전날인 10일에는 제천다례, 별빛차회와 봉화 올리기 등 전야제를, 당일인 11일에는 초의선사 헌다, 제물봉헌의례와 5범공양 헌다례가 거행되었다.

### (3) 체험 콘텐츠

초의선사 발우공양, 서화 탁본 체험, 떡메치기 체험 및 시식, 초의차·꽃차·말차 시음, 다식 만들기, 에코백·아이클레이·액자·양초·초의선사 부채 만들기 등 분청 물레 체험 등 축제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되었다.

### (4) 전시·판매 콘텐츠

특별전시회 및 찻자리 전시로는 차문화 다도구전, 초의선사 소장 유물 전시, 초의선사 시, 서각 및 사진 전시와 꽃차 전시 등을 진행했고, 판매로는

지역특산물 판매, 꽃차 판매, 초의차 판매와 다도구 판매가 운영되었다.

(5) 경연 콘텐츠

경연콘텐츠로는 청소년 글짓기 사생대회가 개최되었다.

초의선사탄생문화제는 광활한 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관람객들이 짜임새 있게 관람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사의 진행공간과 시간을 표시한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면 효율적인 축제관람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사진 IV-22> 초의선사 탄생문화제

### 3. 브랜드 콘텐츠

브랜드 콘텐츠는 초의가 정립한 제다 방법에 근거해 제작되는 차 브랜드로 초의의 차문화에 관한 메시지를 녹여내 소비자가 그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 콘텐츠이다.

초의를 배출한 대흥사는 예부터 야생 차나무가 자라던 차산지에 위치해 있다. 대흥사가 있는 해남 땅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의 문헌에 해남에는 대흥사와 일지암을 포함한 17개소에 차나무 자생지가 분포되어 있다고 기록되었다.

한편 대흥사의 다맥은 대흥사 13대종사(大宗師)와 13대강사(大講師)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첫 출발은 대흥사를 대대적으로 확장시키고 발전시킨 청허(淸虛) 휴정(休靜, 1520~1604)이다. 대흥사의 다맥은 승려들의 다시(茶詩)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휴정은 「천옥선자(天玉禪子)」라는 시에서 차 생활을 무애자재(無碍自在)한 ‘청산(靑酸)’과 ‘백운(白雲)’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읊었다.

낮이면 한 잔의 차요  
밤들면 한바탕의 잠 일세  
청산과 백운이  
함께 무생(無生)을 이야기 하네

휴정스님은 총 아홉 편의 다시를 남겼다. 그를 시작으로 대흥사의 다맥은 월저(月渚) 도안(道安, 1638~1715), 설암(雪巖) 추봉(秋鵬, 1651~1706), 환성(喚醒) 지안(志安, 1664~1729), 상월(霜月) 새봉(靑葑, 1687~1767), 함월(涵月) 해원(海源, 1691~1770), 연담(蓮潭) 유일(有一, 1720~1799), 아암(兒庵) 혜장(惠藏, 1772~1799), 초의(艸衣) 의순(意恂, 1786~1866), 철선(鐵船) 혜즙(惠楫,

1791~1858), 범해(梵海) 각안(覺岸, 1820~1896), 금명(錦溟) 보정(寶鼎, 1861~1930), 응송(應松) 박영희(朴暎熙, 1892~1990) 로 이어져왔다.<sup>100)</sup>

초의차(草衣茶)는 초의가 만든 차이다. 황상의 「결명시」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봐서 그 당시의 사대부들은 초의가 만든 차를 초의차로 거명(擧名)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01)</sup> 초의차를 브랜드로 발전시켜 다매를 계승한다면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제다(製茶)와 음다(飲茶)의 부분이다. 먼저 초의의 병차 제다와 장다에 관한 내용이다. 범해(梵海) 각안(覺岸)은 초의의 뒤를 이은 다승(茶僧)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다시(茶詩) 중에 초의가 어떻게 차를 만들었고 보관했는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시가 남아 있는데, 그 시가 바로 「초의차(草衣茶)」이다.

곡우에 막 날이 개어도  
노란 싹 잎은 아직 피지 않았네.  
빈 술에서 세심하게 잘 볶아내어  
밀실에서 아주 잘 말렸구나.  
жат나무 틀에 네모모양 둥근모양 찍어내어서  
죽순 껍질로 채단하여 포장한다네.  
잘 간수해 바깥 기운 단단히 막아  
한 사발의 향기 가득 떠도는구나. <sup>102)</sup>

위의 시에서 곡우에 어린 찻잎을 술에 정성스럽게 뒤어내어 밀실에서 잘 말려 잣나무 틀에 네모나게 혹은 둥글게 찍는다. 여기까지는 제다 과정이다. 죽순껍질에 잘 보관하여 바깥 기운을 막는다는 부분은 장다(藏茶) 즉 보관법에 해당한다. 그 차로 향기를 즐기는 초의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여기서 차를 틀에 넣어 모양을 만드는 것으로 보아 병차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100) 손연숙, 『손연숙의 차문화 기행』, 이른아침, 2008, pp.346~349.

101) 박동춘, 『초의선사의 차문화 연구』, 일지사, 2010, p.11.

102) 박정희, 『한국 차문화의 역사』, 민속원, 2015, p.236.

다음은 산차에 관한 기록이다. 초의의 저서 『동다송』에 따르면 그는 당 시에 좋은 찻잎으로 산차(散茶)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의 제다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솥이 뜨거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찻잎을 솥에 넣고 급히 던져낸다. 알맞게 던져지면 솥에서 꺼내 대자리에 놓고 여러 차례 가볍게 둥글리듯이 비빈 후 털어서 다시 솥에 넣는 다음 불을 점점 줄이면서 말린다. 이처럼 던지고 말림에는 법도가 있다고 하였다.<sup>103)</sup>

초의는 대흥사에 전해진 사원차를 복원하여 초의차를 완성함으로써 경화 사족들의 관심과 애호를 끌어내었고, 그 애호층의 확대는 차문화 증흥의 토대가 되었다.<sup>104)</sup>

오늘날 초의에 연관된 차 브랜드 콘텐츠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초의에 대한 연구와 지금의 초의선사 유적지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한 고월 석용운의 ‘초의차’이며 다른 하나는 초의차 5대 계승자인 무공 박동춘이 만든 ‘동춘차’이다.

#### 1) 고월(古月) 석용운(釋龍雲)의 ‘초의차’

고월(古月) 석용운(釋龍雲, 1947~)의 호는 고월(古月)이고 법명은 용운(龍雲)으로 용이 구름 위로 승천한다는 뜻이다. 그는 1972년에 초의가 주석(住錫)한 대흥사에서 출가하여 1975년 일지암 복원불사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1979년에 대흥사 주지로 일지암 복원에 참여했다. 1990년에 초의문화재단 이사를 맡아 사장을 역임하였고, 1998년부터 지금까지 초의선사유적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석용운은 차문화 확산운동을 위해 1970년대 그는 전남 해남 대흥사 주변

103) 박동춘, 『박동춘의 한국차문화사』, 동아시아, 2015, p.226.

104) 장혜원, 초의선사의 다법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p.45~46.

에서 자신이 만든 차 두 가마니가 우리나라 차 생산량의 대부분이던 시절, 차 재배로서 적지인 보성, 하동, 광양 등지에 차나무를 널리 보급하였고, 각종 강연회나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차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설교했다. 1980년대 초반에는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던 제다공장(차 제조공장) 설립 요건을 도지사 허가만으로 완화해서 차 농가들이 용이하게 제다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가 차를 알게 된 것은 당연히 초의를 받들면서부터였다. 그는 1972년 대홍사로 출가해 첫 소임인 서고 관리를 맡아 『동다송』, 『다신전』 등 초의가 남긴 책들을 모두 섭렵하게 되었다. 선승으로서나 인간적으로도 초의에 매료된 그는 초의 알리기에 나섰다. 조선 후기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던 다산과 추사는 활발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이들과 함께 했던 초의는 저평가되고 있음을 안 그는 『초의전집』의 발행, 일지암 복원 등 초의의 명예 회복에 앞장섰다. 또한 초의 때에 차문화의 부흥을 위해 직접 차를 재배하고, 우수한 품종을 선발하며 전국 각지와 세계의 제다기술도 두루 익혔다. 그는 우리 차문화를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한때 일본의 차문화가 들어와 다례를 우선하기도 했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라고 우리 조상들이 생활 속에서 늘 차를 가까이했듯, 그렇게 편히 차를 즐기면 됩니다. 예법 따질 것 없이 차는 마시면 마실수록 좋습니다.”

석용운은 초의선사유적지에서 한국의 다도를 중흥시킨 다성(茶聖) 초의의 다맥을 이어 ‘초의차’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식품명인 제47호로 지정된 품목은 초의차와 초의병차이다. 조선시대 차문화를 이끌어온 초의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초의차’와 ‘초의병차’에 있어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전통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일본에서 2009년에 개최된 세계녹차

콘테스트에서 ‘초의차’로 금상을, 연이어 2010년 ‘초의병차’로 금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차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이와 같이 석용운의 ‘초의차’는 조선후기 차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했던 초의의 고유한 제다법의 보존을 통해 만들어진 차다. 현재도 석용운은 차문화 부흥과 복원을 위한 연구로 ‘초의차’의 대중화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다.

‘초의차’는 높은 온도의 무쇠 솥에서 찻잎을 넣고 볶아낸 후 1~2차 건조과정을 거쳐서 제조되며, 일반 녹차에 비해서 맑은 색, 은은한 향과 짙은 맛이 덜하다. ‘초의병차’는 찻잎을 시루에 넣고 증기로 쪄 절구통에서 찻잎을 찻 후 동전모양으로 만든 차로, 진한 차향이 오래 지속되는 게 특징이다.

초의차의 제다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단계인 부초(釜炒)는 발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효소를 분해하고 섬유질을 부드럽게 하며, 2단계인 유념(揉捻)은 부서지지 않도록 하는 공정이다. 유념단계부터는 부드럽게 말아주기 시작하며 점점 힘을 더해 가며 비비는 공정이다. 비빌 때 진액이 나오기 시작하면 말아주던 반대방향으로 풀어주고 털어서 넣어준다. 건조단계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1차 건조 때는 차의 진액을 찻잎의 몸에 바르는 역할을, 2차 건조는 차의 수분을 75% 말려서 약 10% 안팎으로 건조시켜내는 과정이다. 초의차는 높은 온도에서 뒤어서 약 90℃ 이상의 뜨거운 물로 차를 우려도 쓴맛이 거의 없다. 즉, 초의차는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서, 높은 온도에서 차를 우려도 맛이 거의 쓰지 않고 특유의 맛을 지닌다. 석용운은 발효차인 초의진향차도 만드는데 예전에 발효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이가 없을 때, 발효차를 만들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은 일지암을 떠나 초의선사유적지 현창사업을 펼치고 있는 석용운은 앞으로 초의선사유적지를 세계차의 메카로 키워 나아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무안군과 협력해 차의 각종 제반 시설들을 건립 진행 중에 있다. 그는 “초

의선사의 고향인 삼향을 공자의 고향인 중국 취푸(曲阜)에 버금가는 세계적 탐방지로 만들겠다.” 고 하는 포부를 밝혔다.<sup>105)</sup>

초의차는 (주)초의차 홈페이지(<http://www.choyeetea.co.kr>)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식품명장 제 47호 식품명장이 만든 차’ 라는 설명이 나온다. 상품 분류는 초의녹차꽃차, 초의병차, 초의티백차, 초의 다기로 나뉜다(표 IV-4). 첫째, 초의 녹차 꽃차를 초의차로 지칭한다. 그 이유는 일지암에서 초의가 직접 만들었던 정통 제다법으로 만든 차이기 때문이다. 둘째, 초의 병차는 전통의 방식을 재현해서 찻잎을 발효시킨 뒤 떡처럼 반죽해서 틀에 찍어 내어 말린 것으로 떡차이다. 셋째, 초의 티백차는 연향녹차로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인근에서 채취한 백련잎과 순수한 재래종 찻잎만을 골라 따서 만든 발향 녹차이다. 넷째, 초의 다기세트이다.



<사진 IV-23> 석용운의 ‘초의차’

출처: 초의차 (주)초의차, <http://www.choyeetea.co.kr>.

105) <https://jihyun3024.blog.me>.

<표 IV-4> ‘초의차’의 상품 분류 및 구성

상품명	상품분류	상품구성
초의 녹차 꽃차	초의 연꽃 2인 다기세트	차 2가지
	초의 꽃차세트	13g, 6개
	초의 차세트	9종(9가지)
	초의 꽃잎차세트	10입, 1세트
	초의 꽃잎허브차 선물세트	꽃잎차+허브차
	초의 허브차	10입, 1세트
	초의신다	10g
	초의뇌소차	10g
	초의진다	10g
	백련차 다기세트	3개
	초의백련차세트	3종 세트
	초의 꽃잎차 선물세트	병1개, 티백10개
	초의 병차	초의병차
초의병차(청하)		300g
초의병차-정사각		9개
초의 티백차	사각다낭(대)	1.2g×33개
	사각다낭(소)	1.2g×10개
	색동다낭	1.2g×10개
	초의연향차	50개
	초의진향차	50개
초의 다기	1인다기(흑유)	1개
	백자다기세트	1세트
	용운다기세트	1세트
	초의다기세트	1세트

## 2) 무공(無空) 박동춘(朴東春)의 ‘동춘차’

초의를 중심으로 초의차의 다법을 전승한 사람은 범해 각안, 금명 보정, 응송 박영희, 그리고 5대째 무공(無空) 박동춘이다.<sup>106)</sup>

먼저 응송(應頌) 박영희(朴映熙, 1892~1990)를 설명해야 이어지는 박동춘을

106) 박계순, 草衣禪師의 茶風에 관한 研究-茶風 確立 및 繼承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89.

이해하기가 용이하다. 응송은 초의의 다맥을 잇고 제다법을 후학에 전수한 인물로, 1911년 대홍사로 출가하여 80여 년간 대홍사와 인연을 맺었다. 당시에 범해가 열반한 지 10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홍사의 다맥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응송은 초의의 다서인 『다신전』과 『동다송』을 수집, 정리하여 초의의 제다법과 차 정신을 연구했다. 승려이자 문학평론가로 활동했던 김운학(金雲學, 1934~1981)은 응송에 대해 오늘날 우리가 초의를 말하고, 우리 차의 전통을 이야기하게 된 것은 초의의 유품을 오늘에 전해준 것도, 우리가 다전(茶典)인 『동다송』의 필사본을 보전해 온 것도 응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1954년, 대홍사 주지에서 물러난 응송은 해남 백화사와 광주 운천사를 오가며 초의와 초의차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다. 대홍사 입구에 마련된 백화사의 응송다실을 차인들은 ‘호남 제일의 명원(名園)’이라 불렀다. 응송은 30여 년 간 운천사에 머물다 열반에 하였는데, 이곳에서 『동다정통고』를 초록하여 이 책이 1985년에 출간되었다. 『동다정통고』는 초의와 우리 전통차에 대한 응송의 모든 연구를 집대성하는 역작이다. 박동춘의 스승이자 전다계를 내려 준 응송의 제다법과 음다법을 살펴보면 응송은 초의의 제다법을 재현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른바 가마솥 뒤음차로, 뜨거운 불에서 생잎을 살청하면 차가 가지고 있던 영양소를 그대로 간직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동다정통고』에서 열탕법을 사용했던 초의의 차 우리는 과정을 우선 무쇠로 만든 다관에 물을 넣고, 물이 끓으면 다관에 차를 넣고 조금 있다가 찻잔에 차를 따른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 식힘 그릇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 알지 못했고 더욱이 사용한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응송도 초의의 음다법을 연구하였는데 차를 끓일 때 열탕법(熱湯法)을 고수한 다법으로, 60~70℃로 식혀서 우리는 것과는 달리, 95℃의 끓은 물에 짧게 우려 마시는 것으로, 차의 찬 성질을 뜨거운 물로 다스려 중정(中正)을 이뤄야 응축된 기(氣)가 드러난다고 보았다. 이는 중

정청경(中正淸境)을 한국차의 정신으로 개척한 초의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또한 응송의 큰 업적 중 하나가 초의의 생가와 일지암을 복원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 점이다. 응송은 옛 문헌들과 대흥사 승려들의 말을 근거로 지금의 일지암 터를 잡을 수 있었다. 응송은 자칫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 버렸을 초의의 생애와 사상, 초의차의 제다법과 음다법을 보존하고 연구함으로써 오늘날 차문화 부흥에 주춧돌 역할을 한 것이다.<sup>107)</sup>

한편 1979년, 한학을 공부하던 26세의 박동춘(朴東春, 1953~ )은 해남 대흥사에 있는 백화사에서 86세 응송 박영희를 만났다. 이곳에서 응송의 『동다정통고』 출판을 도우며 차 이론과 제다 방법을 전수받아 ‘초의차’의 5대 계승자가 되었다. 박동춘이 초의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계기는 1970년대 말에 응송과의 학연 때문인데 응송의 슬하에서 공부하던 박동춘에게 전다계를 내린 것은 1985년이다. 스승인 응송은 전다계를 내리면서 초의에 대한 연구도 함께 부촉하였다. 이로부터 박동춘은 초의에 대한 문헌 연구뿐 아니라 응송이 전해 준 제다법대로 차를 만들며 우리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일을 숙명처럼 이어갔다. 박동춘은 2004년 「초의 의순의 다도 사상 연구」로 석사학위를, 2010년 「초의선사의 차문화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금석학의 대가인 청명 임창순에게 한학을 사사했다. 현재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에서 ‘초의차’를 계승하는 한국 다도의 맥을 전수하고 있다.

박동춘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대광사지 야생차밭에서 직접 차를 덖어 여러 지인들을 비롯해 찻자리에서 대중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동춘차’는 응송 열반 후 그와 함께 제다했던 기억들을 되살려 만들기 시작하여 2017년에 본인의 이름을 따서 ‘동춘차’로 명명되었다. 무공 박동춘의 ‘동춘차’에 관한 영상으로는 초의차 5대 계승자 박동

---

107) 손연숙, 『손연숙의 차문화 기행』, 2008, pp.396-400.

춘 제다 과정 영문본(How to make Korean traditional tea)이 있다. 이는 박 동춘이 한국전통 (산차)제다법으로 차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홈페이지에 ‘동춘차 이야기’ 에서 ‘동춘차’ 마시는 방법을 (표 IV-5)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 IV-5> 동춘차 마시는 방법

<동춘차 마시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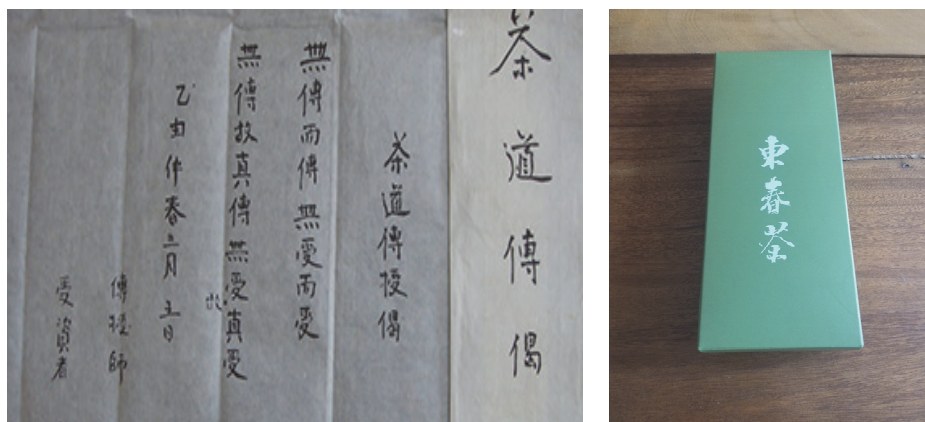
1. 물을 준비한다.

- ① 수돗물일 경우: 물이 끓기 시작하면 주전자 뚜껑을 10초 정도 열었다가 다시 덮고 30~40초 정도 끓인다.
- ② 생수일 경우: 물이 끓기 시작하면 10~20초 정도를 더 끓인다.

2. 뜨거운 물로 다관과 찻잔을 미리 예열한다.

3. 다관에 1.5~2g 정도의 차(3인 기준)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다.  
물의 온도는 90~93℃이다.

4. 10~15초 정도 기다린 후 찻잔에 따른다.  
(만약 차를 얹게 달이려면 10초 내외에서 차를 따른다)



〈사진 IV-24〉 박동춘의 전다게와 ‘동춘차’

##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초의가 발현한 사절(四絶)의 분야 가운데 다(茶)에 초점을 두고 초의에 관한 차문화 콘텐츠를 공간 콘텐츠, 축제 콘텐츠, 브랜드 콘텐츠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례를 조사해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초의는 “물은 차의 체(體)이고, 차는 물의 용(用)이다” 라고 했다. 이는 물이 차를, 차는 물을 서로 도와 잘 어우러져 극명의 조화로움이 이루어질 때 최고의 찻물이 되어 우리의 심신을 정화시켜 줌을 의미한다. 물과 차가 그랬듯이 인간과 인간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고 소통하는 공간과 시간이 또한 차를 통해 가능하리라 본다. 초의 차문화에는 이러한 삶의 지혜와 여유가 숨 쉬고 있다. 따라서 초의의 차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공간 콘텐츠, 축제 콘텐츠, 그리고 브랜드 콘텐츠를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초의차의 역사성을 공간콘텐츠, 축제콘텐츠, 브랜드 콘텐츠에 체계적으로 구성 및 활용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초의 차문화 콘텐츠의 발전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 콘텐츠로서 대홍사 녹차밭과 제다장소인 녹차체험장을 해남군에서 장기적으로 육성하여 초의가 정립한 우리 고유의 차를 보다 많은 대중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초의를 부각시키는 홍보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녹차체험장인 2층 전 건물을 녹차 체험장으로 만들어 녹차를 직접 제다한 관광객 자신이 직접 만든 차를 제대로 우려 마셔보는 제반 시설을 마련하고 그곳을 차와 다구를 전시·판매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홍사는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되었다. 차의 성지인 일지암과 한국의 다성인 초의가 주석한 사찰로서 차별화가 가능

하다. 대홍사의 템플스테이 과정 중에 ‘초의선사와 소통하는 차 여정’ 이란 제목으로 전문 차인들의 해설을 통해 대홍사 경내의 공간과 작품들을 감상하고 초의의 음다법과 초의가 강조했던 다도정신인 ‘중정’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축제 콘텐츠에 있어 일지암과 해남읍내를 연결한 초의문화제의 이행 재고를 비롯해 축제 행사 가운데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술논문 발표를 통한 우리나라 차문화 연구의 지속적 발전 그리고 전국차도구공모전 수상작 시상과 같은 작가들의 작품 전시 활동이 계속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광활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초의선사 탄생문화제의 경우 짜임새 있는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 구성으로 초의차 장인의 제다 시연과 제다 교육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우리 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초의와 관련된 브랜드 콘텐츠의 홍보로도 이어지는 길이 될 것이다.

셋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콘텐츠들을 상호 융합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초의와 연관되는 공간 콘텐츠들이 상호 연계되는 스토리텔링 구상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초의의 공간과 공간을 융합하여 차문화기획인 티 로드(Tea road)도 제안해 볼 수 있다. 한 예로 ‘초의와 함께 떠나는 차(茶) 여행’이란 주제로 공간을 무안, 나주, 해남을 연결해 스토리텔링의 공간 콘텐츠로 묶어 초의선사 유적지-운홍사-대홍사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차의 다성인 초의에 관한 차문화 콘텐츠에 중점을 두었다. 초의는 민멸한 차의 기나긴 연결고리를 만들었으며 우리 차의 원형을 전수·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게 하였다. 우리는 초의가 『동다송』을 저술한 공간, 초의의 차생활이 반영되는 축제, 초의가 정립한 제다법(製茶法)으로 만든 차브랜드를 콘텐츠로 조명하여 초의에 관한 차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층 더 우리 차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차문화의 원형

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를 토대로 다양한 콘텐츠 간 상호융합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노력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본 논문은 초의와 관련된 차문화 콘텐츠를 공간 콘텐츠, 축제 콘텐츠, 브랜드 콘텐츠로 분류하고 각각의 사례조사를 직접 시행하여 현황과 특징을 분석한 점에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의 사례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공간, 축제, 브랜드 관한 콘텐츠 발굴과 분석이 한계로 남아 있어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초의의 차문화 관련 출판, 교육, 영상 등 본 연구에서 콘텐츠로 다루지 못한 영역이 있어 이 점 역시 제한점으로 남아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폭넓은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 콘텐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사)동다송문화회, 『동다송, 다신전』, 동다송문화원, 2001.
- 곽의진, 『초의선사』, 동아일보사, 2004.
- 김대성, 『동다송』, 동아일보사, 2004.
- 김대성, 『차문화 유적답사기』(중), 차의 세계, 1994.
- 김수인, 『초의스님과 차』, 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 김의정, 『다성 초의선사』, 하늘 숲, 2005.
- 김진영·배규범 역주, 『초의선사 의순 詩집』, 민속원, 2004.
- 담원 김창배 화·역주, 『다신전』, 술과학, 2009.
- 담원 김창배 화·역주, 『동다송』, 술과학, 2009.
- 류건집, 『동다송 주해』, 이른아침, 2009.
- 민병천, 『두륜산 대홍사』, (재)대한불교진흥원, 2011.
- 박동춘 편역, 『추사와 초의』, 이른아침, 2014.
- 박동춘, 『맑은차 적멸을 깨우네』, 동아시아, 2012.
- 박동춘, 『박동춘의 한국차문화사』, 동아시아, 2005.
- 박동춘, 『우리시대 동다송』, 북성재, 2013.
- 박동춘, 『초의선사의 차문화 연구』, 일지사, 2010.
- 박정희, 『한국 차문화의 역사』, 민속원, 2015.
- 석용운스님, 『초의선사의茶香기』, 도서출판 초의, 2009.
- 손연숙, 『손연숙의 차문화 기행』, 이른아침, 2008.
- 송해경, 『『동다송』의 새로운 연구』, 지영사, 2009.

- 신숙정, 『21세기에 만나는 초의』, (재)한강문화재연구원, 2014.
- 원학 스님, 『향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환희라네』, 2014.
- 유홍준, 『추사 김정희』, (주)창비, 2018.
- 윤병상 편역주, 『茶道古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 전재인, 『사진으로 읽는 다신전』, 이른아침, 2008.
- 정민,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 김영사, 2011.
- 정영선 편역, 『동다송』, 너럭바위, 1998.
- 정영선, 『한국 茶文化』, 너럭바위, 1990.
- 조수동·김주완·이강화·이윤아 공저, 『문화의 이해』, 이문, 2002.
- 주영애 외 6인, 『세계의 차문화』,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12.
- 짱유화, 『차과학 길라잡이』, 도서출판 삼녕당, 2013.
- 초의 저, 한유미 주해, 『동다송』, 연주출판사, 2013.
- 최석환, 『韓國의 茶人 I』, 월간<차의 세계>, 2017.
- 통광역주, 『초의차 선집』, 불광출판사, 1996.
- 한승원, 『초의』, 김영사, 2009.

## <논문>

- 강승수, 한국의 차생활 공간에 관한 연구 : 다산, 초의, 효당을 중심으로,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명희, 禪茶 思想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김미옥, 조선시대 茶人들의 茶詩에 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김민규, 다산 차문화 콘텐츠의 활용방안 고찰: 강진군을 중심으로, 목포대학

-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김수연, 다서(茶書)에 나타난 차의 효능 연구: 중국과 한국 다서(茶書)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영희, 초의선사의 다도관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효은, 한국 차(茶)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화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나남미, 조선후기 다도사상 연구: 초의선사, 정약용, 김정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노재현, 두륜산 대흥사 일지암 다정(茶庭)의 일고찰(一考察): 시문과 현황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30(3), 2012.
- 류정호, 초의선사의 생명관 연구: 『동다송』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맹해영, 축제주제의 의미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박동춘, 초의 의순의 다도 사상 연구: 동다송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동춘, 초의선사의 차문화관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박동춘, 초의선사의 초의차 완성과 그 영향, 한국사상과 문화, 86, 2017.
- 신미경, 동다송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전통문화산업학과 예대전공 석사학위논문, 2002.
- 심향옥, 초의선사의 다선수행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안봉옥, 한국 전통 차문화 정신의 이해: 『동다송』을 중심으로,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위의진, 브랜드 콘텐츠가 소비자 공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

- 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유광옥, 草衣禪師 茶詩 探究,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유홍숙, 치원 黃裳의 차생활과 交遊,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경미, 조선후기 다문화에 나타난 미의식: 초의선사의 동다송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경순, 조선후기 차문화 중흥조의 미적 삶과 다미론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이상준, 브랜드 콘텐츠의 속성 및 활용방안 연구- TV 광고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이영주, 이병훈, 지역문화공간 설립을 위한 문화공간 콘텐츠 연구, 한국디자인학회논문집 14(1), 2019.
- 이은경, 차문화 공간의 현대적 적용 방안,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이진욱, 차(茶)생활 교육콘텐츠 개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임태희, 커피와 차에 대한 문화적 인식 및 소비가치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장성운, 韓國 佛教의 茶文化에 대한 考察: 僧家の 茶生活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장혜원, 초의선사의 다법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전동복, 문헌(文獻)을 통한 찻물 고찰,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정계순, 草衣禪師의 茶風에 관한 研究 : 茶風 確立 및 繼承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정미숙, 雲林行茶禮法の 傳承 研究,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정서경, 초의차의 제다법 고찰: 고전기록과 문헌 속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9, 2016.
- 정서경, 대둔사 찻독 초의차의 전승맥락, 한국사상과 문화 86, 2017.
- 조미진, 의재 허백련 생활차 운동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진승환(지성), 초의선사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논문, 2019.
- 차정현, 축제콘텐츠 성공요인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채점숙, 초의차의 완성을 통한 한국 차문화 발전방안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채정복, 초의선사의 다선수행론,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최진영, 東茶意識의 形成과 展開에 관한 연구: 『茶賦』·『記茶』·『茶神傳』·『東茶頌』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한수진, 브랜드 콘텐츠 인게이지먼트 구성요소가 소비자 공감,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 콘텐츠 웹 드라마 영상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한예지, 한국 차(茶)문화를 소재로 한 통합적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디자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현영조, 朝鮮時代 代表的 知識人의 茶文化空間 研究: 孤山, 茶山, 草衣를 事例로, 한국차학회 7(3), 2001.
- 황을순, 韓國茶의 由來와 그 禮俗에 관한 小考,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 <기타>

네이버 지식백과, <http://www.naver.com>

대흥사 홈페이지, <http://www.daeheungsa.co.kr>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http://www.ea-tea.co.kr>

두륜산 도립공원 홈페이지, <https://duryunsan.kr>

(주)초의차, <http://www.choyeetea.co.kr>

해남다인회, <http://hntea.kr>

## ABSTRACT

### A Study on Tea Cultural Contents of Choeui

Kim, Jin-hee

Traditional Cultural Contents Major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Arts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focuses on the tea among the fields of virtuoso in the four arts, and divides the tea cultural contents of Choeui into spatial contents, festival contents, and branded contents,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case and to suggest ways to develop the tea cultural contents of Choeui.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ubject of the case investigation on the spatial contents was selected the contents of the tea cultural space containing the events related to Choeui's life and his social relations. Specifically, the Choeui's birthplace(the survey of July 11. 2019), Unheungsa(outside the survey of October 19, 2019), Mt. Wolchul(the survey of October 19, 2019) Daeheungsa where Choeui had lived a lifetime(the survey of July 4~7. 2017, October 21~23. 2018, October 19, 2019), Dasanchodang where Dasan who taught Choeui confucianism and poetry was exiled for a decade. (the survey of September 24. 2018), Chilbalsa where Choeui copied 『Dasinjeo

n』 (the survey of September 24. 2018), and Sujongsa where Choeui met Dasan Yak-yong Jeong and his two sons(the survey of March 24. 2019), Haklimsa where the first time Choeui met with Chusa Jeonghee Kim who made Choeui tea(the survey of March 24. 2019), Chusa' s House of Exile where Choeui spent time with Chusa Jeonghee Kim in Jeju Island(the survey of July 16~17. 2019) were investigated. In addition, Green Tea Field and Green Tea Experience Center, which is a space where you can leave Daeheungsa and experience green tea making (the survey of July 4~7. 2017, July 5. 2018, July 3~17. 2019) also are included in the survey. The subject of the case investigation on the festival contents are the festivals consisting of the types of tea cultural events related to Choeui, and Choeui Cultural Festival was held (the survey of October 20~21, 2017, October 19~20. 2018, October 18~19. 2019) and Choeui Birth Cultural Festival was selected (the survey of July 11. 2019) and the contents of these festivals were divided into themes, rituals · demonstrations, lectures, experiences, exhibitions · sales, performances, and contests. Next, the subject of the case investigation on the branded contents was carried out “Choeui tea” made by Gowol Yongun Seok and “Dongchoon tea” made by Mukong Dongchoon Park as the tea branded contents produced based on the tea making method established by Choeui.

The researcher surveyed each of these cases by field trip,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and suggested the development method of Choeui tea cultural contents as follows. First, as a spatial contents, Daeheungsa Green Tea Field and Green Tea Experience Center where makes green tea should be fostered by Haenam-gun for a long time to

develop and operate a program so that more people can experience our unique tea. Second, in the contents of festivals, it would be suggested to implement the Choeui Cultural Festival linking Iljiam and Haenam-eup, and to hold the dissemination conference for university students and graduate students, and to keep the exhibitions of the works of artists of national-wide tea utensils contest.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Birth Cultural Festival of Choeui, which is held in a wide area, it should be utilized as an opportunity to publicize the excellence of our tea to people by demonstrating the tea maker's tea ceremony and demonstrating tea making education with a structured viewing and experience program. This will also lead to the promotion of branded contents related to Choeui. Third, efforts should be made to reintegrate the currently operating contents into new contents. Above all, storytelling schemes in which the spatial contents associated with Choeui may be interconnected may be possible. Also, Tea-Road, a tea cultural project, can be proposed by connecting a space and a space of tea.

In conclus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tea cultural contents about Choeui, Saint of Tea. Choeui have made a long chain of vanishing tea and passed on and developed the prototype of our tea to this day. We can get closer to our tea by illuminating tea cultural contents with the space where Choeui wrote 『Dongdasong』, the festival that reflects life of Choeui, and the brand made by the tea making method that Choeui established. As such, we need to continue to discover the prototype of Korean tea culture and to develop new contents through mutual convergence among various contents.